

晦齋先生の 政治思想 研究

琴 鍾 友

目 次	
I 序 論	1. 無極太極辯答 答忘機堂書
II. 先生の生涯와 德行	1) 無極太極說後
1. 先生の生涯와 그 時代狀況	2) 答忘機堂第一書
2. 先生の人品와 德行	3) 答忘機堂第二書
3 箴銘	4) 答忘機堂第三書
1) 元朝五箴	5) 答忘機堂第四書
2) 立箴	2. 「一綱十目疏」
3) 知耻銘	3 「弘門館上疏」
4. 大學章句補遺	4. 「進修八規」
III. 無極太極辯・「一綱十目疏」・「弘門館上疏」・「進修八規」	IV. 結 論

I. 序 論

晦齋李彥迪先生(1491~1553)은 朝鮮朝中期の 大學者이며 政治家이다. 同時に 많은 著述을 남겼다.

政治思想이란 政治를 對象으로 한 思想과 政治를 對象으로 하는 政治에 作用하는 思想이다. 따라서 政治思想의 内容은 廣範한 것이 그 特徵이다. 그러므로 晦齋先生の 政治思想은 先生の 全著述과 行蹟을 中心으로 考察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論文에서는 先生の 生涯와 德行을 考察하고 箴銘, 無極太極辯答忘機堂 第一, 二, 三, 四書, 「一綱十目疏」・「弘門館上疏」・「進修八規」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先生の生涯와 德行

1. 先生の生涯와 時代狀況

先生の 姓은 李氏이며 諱는 彥迪(처음의 諱는 迪이었으나 뒤에 中宗의 命에 의하여 彥字를 더하였다)이요, 字는 復古, 號를 스스로 晦齋 그리고 또 紫溪翁¹⁾이라 하였으며 시호는 文元 本貫은 滎州로서 成宗 22年 辛亥(1491년 11月 25日 戊戌子時에 당시 慶州

1) 晦齋李先生行狀「晦齋先生文集附錄」.

府良佐村(現 慶北 月城郡 江東面 浪洞里) 本第에서 아버지 成均生員 諱蕃과 어머니 精忠出氣敵愾功臣雞川君 孫昭의 따님 貞敬夫人 孫氏의 딸아들로 誕生하였다.

先生이 겨우 10歲되는 燕山君 6年 庚申(1500年)에 37歲의 先府君 贊成公의 喪을 당하였으나 2男 1女의 말으로 30이 갓넘은 어머니 膝下에서 자랐다.

남달리 賢淑하고 識見이 높고 思慮²⁾깊은 어머니의 訓導를 받아 잠시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다. 13歲되는해 2월에 服을 마치고 外叔 右參贊愚齋 孫仲暉先生을 따라 그의 任地인 梁山·金海·尙州 등지에 다니면서 배워 이로부터 力學하여 文章에 能通하였으며 舉業에 旁通³⁾하였다고 한다.

14歲되는 燕山君 10年 甲子(1504年)에는 이미 聖賢의 學問에 뜻을 현했다. 恒常 山寺에 머물며 공부하였다. 18歲되는 中宗 3年 戊辰(1508年)에 夫人朴氏를 맞이하였다. 23歲되는 中宗 8年 癸酉(1513年)에는 生員試에 合格하고 이어 그 이듬해에는 文科別試에 及第하니 당시 試官이었던 慕齋金安國이 先生의 策文을 보고 感嘆해 가로되 「王佐의 才」라고 하였다. 이에 權知校書館副正字를 거쳐 이듬해에는 慶州 州學敎官에 任命되고 27歲되는 中宗 12年 丁丑(1517年) 元旦에 五箴을 지으니 「옛 聖賢들은 그 進德함이 날마다 새롭지 아니함이 없고 해마다 化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오직 날로 부지런하여 죽은 뒤에라야 그친다(死而後已)」고 하고 「五箴을 지어 終身토록 箴을 삼으려 한다」⁴⁾고 하였다.

先生이 14歲때 聖賢의 學問에 厲志하고 27歲에 이와 같이 항상 聖賢의 學問을 돈독히 하고 聖賢이 되고자한 높은 뜻을 가지고 實踐窮行할 다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忘齋(進士孫叔暉)와 忘機堂(進士 曹漢輔)의 無極太極說을 辯論하였다. 7월에 內任으로 들어가 副正字가 되고 10월에 正字에 올랐다.

28歲되는 中宗 13年 戊寅(1518年)에 忘機堂에 答하는 四篇의 글을 쓰고 著作에 오르니 1~2월에는 88歲의 祖父 諱壽會의 喪을 당함에 故鄕에 돌아와 承重으로 三年喪을 마쳤다. 31歲되는 中宗 16年(1512年) 2월에 贊成公의 改葬을 하고 八月에 博士에 오르고 얼마 안있어 弘文館博士兼 經筵司經·春秋館記事官에 選任되었다. 이해에 王命으로 先生의 諱迪字위에 「彥」字를 더하였다. 32歲되는 中宗 17年 壬午(1522年)에 世子(仁宗) 侍講院說書가 除授되고 다음해에는 成均館典籍으로 遞職되고 兵曹佐郎, 吏曹佐郎에 차례로 任命되었다. 34歲되던 해 中宗 19年 甲申(1524年) 6월에 大夫人 奉養을 위해 外任을 請하여 仁同縣監이 되고 春秋館記事官을 兼하였다. 다음해 7월에 內職으로 들어가 司憲府持平이 되고 8월에는 兵曹正郎으로 慶尙道 御史가 되고 다시 吏曹正郎에 除授되었다. 다음해 7월에 侍講院文學, 8월에는 司憲府掌令兼 承文院校勘에 除授되었다. 당시

2) 「晦齋先生文集」晦齋先生年譜. 李源鈞, “晦齋先生의 生涯와 學問”, 「晦齋先生의 行蹟과 學問」, 良佐會, 1979.

3) 晦齋先生年譜.

4) 「晦齋先生文集」卷之六, 元朝五箴并序.

臺諫들이 趙光祖의 餘習이 있으니 이를 禁해야 한다는 論함이 있음에 先生은 劄子를 올려 그 그릇됨을 極言하였다.⁵⁾

38歲되는 中宗 23年 戊子(1528年) 2월에 奉常寺僉正으로서 內資寺副正에 오르고 6월에는 成均館司成이 除授되고 8월에 다시 慶尚道 御使에 差遣되고 12월에 大夫人奉養을 위하여 外職을 請하여 密陽府使가 除授되었다. 다음해 先生의 39歲때 外叔右參贊孫公이 歿하고 다음해 다시 召還되어 司諫院司諫이 되었다. 41歲되는 中宗 26年 辛卯(1531年) 正月 金安老의 起用을 反對하다가 成均館司藝로 左遷되고 이윽고 彈劾을 입고 罷職되어 田里로 돌아가 이듬해에는 先生의 考亭이며 少年時代부터 그 珍奇한 巖壑과 潔淸한 溪流를 사랑해 오던 紫玉山中(月城郡 安康邑 玉山里)에 獨樂堂(보물 第413號)을 짓고 시 넷가에 濯纓・澄心・觀魚・詠歸・洗心 등 五臺를 命名하였다. 그리고 觀魚臺 위에는 또 亭子를 지어서 松竹과 화초를 심고 자연과 책을 벗삼아 근 6年間 逍遙自適하면서 복잡한 世上일을 전혀 잊고 學問研究를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또 專心하였다. 47歲되는 中宗 32年 丁酉(1537年) 11월에 金安老가 敗死하자 中宗은 先生의 忠直함을 생각하여 제일 먼저 再登用을 命하여 掌樂院 僉正을 除授하였다. 이어 先生은 宗簿寺僉正을 거쳐 弘文館 副校里・知製敎兼 經筵侍講官 春秋館 記注官이 除授되고 校里로 轉任되어 12월에 弘文館應敎知製敎兼 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으로 옮겼다. 48歲되는 中宗 33年 戊戌(1538年) 2월에 議政府檢詳이 除授되고 3월에는 清白吏가 加資되고 左舍人으로 擢用되었다가 이윽고 軍器寺正이 除授되고 5월에는 弘文館 直提學 知製敎兼 經筵侍講官 春秋館編修官으로 옮겼다가 陞秩되어 兵曹參知가 되고 10월에 大夫人奉養을 위해 外職을 請하여 全州府尹이 되었다. 49歲되는 中宗 34年 己亥(1539年)에 全州府境이 크게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頌德碑를 세웠다. 10월에 應旨上疏하니 이것이 곧 數千言의 一綱十目疏이다. 王은 “옛날의 眞德秀도 이에 기나칠 것이 없다”고 찬탄하면서 世子(仁宗)에게 傳하여 보이고 온 朝廷에 알리라고 하고 表裏衣一襲을 下賜하며 嘉善大夫에 特陞을 命하고 敎諭를 내려 褒彰하였는데 11월에 笏을 올려 간절히 辭讓하였으나 允許하지 않았다. 12月 9일에 兵曹參判 兼 世子右副賓客을 除授하고 急히 召還하라는 下敎가 있어 先生은 곧 赴闕하였다.⁶⁾ 50歲되는 中宗 35年 庚子(1540年) 4월에 禮曹參判, 6월에 成均館大司成, 11월에 司憲府大司憲이 各各 除授되었다.

51歲되는 中宗 36年 辛丑(1541年) 3月, 左副賓客에 오르고 다시 弘文館 副提學 知製敎 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이 除授되었다. 上疏하여 聖學本末과 時政得失을 極陳하였으며 6월에 暑症으로 狀을 올려 辭任하였으나 敎諭를 내려 弛放하지 아니하였다. 7월에 돌아가 大夫人을 奉養코저 請하였으나 允許하지 아니하였다. 8월에 또 陳情하였으나

5) 時李沆論臺諫有趙光祖餘習請禁之先生上劄極言其非。(晦齋先生年譜)。

6) 府境大治民立石頌德十月先生應旨上疏數千言 上嘉獎賜表裏一襲仍命特陞嘉善降 聖旨褒諭十一月上箋懇辭不允十二月九日 除兵曹參判兼世子右副賓客有旨促召先生即赴 闕(晦齋先生年譜)。

允許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外任을 請하여 金海府使가 除授되었는데 臺諫이 挽留하였다 9월에 漢城府判尹에 오르자 三辭하여도 允許하지 않았다. 이윽고 正憲大夫에 오르고 議政府參贊 兼 同知成均館事를 除授하자 또다시 大夫人을 奉養키 위하여 再辭하여도 允許하지 않고 大夫人을 서울로 모셔 오라고 命하였다. 다음해 正月에 吏曹判書가 除授되고 4월에 知中樞府事로 遞職되고 재차 陳情하여 大夫人 奉養을 請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5월에 議政府 右參贊이 除授되고 辭任하였다. 8월에 司憲府 大司憲이 特除되었다. 劄子를 올려 “至誠格天”⁷⁾의 道를 陳述하였다. 9월에 刑曹判書가 除授되고 力辭하였다. 10월에 禮曹判書가 除授되고 또 辭任하였다. 11월에 議政府左參贊이 除授되고 12월에 詣闕하여 다시 陳情하여 朝廷에서 물러날 것을 간절히 請함에 부득이하여 安東府使를 除授하고 갈 즈음에 東宮(仁宗)께 獻規하였다. 얼마뒤 諫官의 挽留가 있었다. 다음해 正月에 弘文館 提學同知成均館事를 兼하고 三月에 大夫人의 病患으로 辭任하였으나 四月에 教諭를 내려 允許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朝廷에서는 慶尚監司에게 命하여 敦諭케 하고 아울러 母夫人에 食物을 보내게 하였다. 先生은 드디어 王命을 좇아 上京하였으나 도중에 病患으로 聞慶에 머무르며 狀啓를 올려 辭任하였다. 中宗은 또 下敎하여 거를을 주고 다시 忠淸·慶尚兩監司에게 下敎하여 病患을 救藥케 하더니 조금 차도가 있자 詣闕하여 謝恩箋을 올리고 外職을 더욱 힘써 請하였는데 七月에 慶尚道 觀察使를 除授하여 老母夫人을 모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54歲되는 中宗 39年 甲辰(1544年) 봄에 圭庵 宋麟壽와 白楊寺에서 會合하고 四月에 病患으로 辭任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며 五月에 固辭하였다. 七月에 漢城府判尹이 除授되었다. 거듭 召還의 敎書를 내렸으나 力辭하였다. 八月에 知中樞府事 兼 世子副賓을 除授하고 召還하였으나 病患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病患이 조금 治癒되어 行하려던 차에 다시 甚해져 狀啓를 올려 辭任하였다. 九月에 또 召還하였으나 또 辭任, 11월에 또 辭任하였다. 中宗이 昇遐하고 仁宗이 即位하였는데 미처 赴任하지 못해 憂慟으로 病患이 더욱 甚해져 狀啓를 올려 待罪하였으나 下書하여 慰諭하고 監司에게 命하여 특별히 救療케 하였다.⁸⁾

55歲되는 仁宗 元年 乙丑(1545年) 正月에 狀啓를 올려 待罪하였는데 下敎하여 召還하였으나 病患으로 辭讓하였다. 이윽고 특별히 議政府右贊成으로 召還했으나 다시 辭讓하였다. 특별히 教諭를 내리고 藥餌를 下賜하며 이어 醫員을 파견하여 藥을 下賜케 하여 救療하였다. 閏正月에 議政府左贊成으로 轉任하였다. 2월에 病患이던서 中宗의 山陵에 參與하려 行하였으나 永川에 이르러 病患이 甚해져 더 가지 못하였다. 3월에 잇달아 辭職의 글을 올렸다. 初여름이 되어 病患이 조금 차도가 있고 이어 快癒되어 朝廷으로 나가 知經筵 春秋館事를 兼하였다. 7월에 仁宗이 31歲의 젊은 나이로 在位 8개월만에

7) 正月除吏曹判書四月遞爲知中樞府事再陳乞外養不許五月除議政府右參贊辭八月特除司憲府大司憲上劄陳至誠格天之道(晦齋先生年譜, 二十一年壬寅條).

8) 仁廟即位未克赴臨憂慟病益甚具狀待罪下書慰諭命監司別加救療(晦齋先生年譜, 二十三年甲辰條)

또 昇遐하고 仁宗의 아우가 12歲의 어린 나이로 即位하니 이가 곧 明宗이다. 明宗은 나이가 어려서 親政을 펴 수 없었음으로 垂簾聽政이 論議되었다. 이때 王室에는 大王大妃 文定王后와 王大妃 仁聖王后가 있어 누가 聽政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었는데 領議政 尹仁競은 이 문제를 결정짓기 위하여 百官會議를 개최하였으나 左右가 默然한데 先生이 宋나라 哲宗때의 故事를 인용하여 大王大妃의 聽政이 옳다하매 드디어 朝廷의 議論이 이리로 기울어져 母后인 文定王后尹氏가 垂簾聽政에 임하게 되고 當面한 問題에 관해 10條의 建議를 書啓하였다.⁹⁾ 8월에 不得已 判義禁府事를 兼하고 忠順堂 引見에 참여하였다. 明宗이 即位하고 文定王后가 聽政하게 되니 大尹·小尹의 權力鬭爭은 형세가 달라지고 乙巳士禍가 일어났다. 이때 先生은 여러모로 士類를 두둔하고 直言으로써 小尹派의 그릇된 일을 지적하였다. 이윽고 衛社功臣에 錄해지고 驪城君에 封해졌으나 功도 없이 勳爵을 받는 것은 나라의 법도를 문란케 한다고 力辭하였다. 그리고 劄子를 올려 讒邪를 믿고 戚屬을 偏愛하는 禍를 論하고 12월에는 辭狀을 올리고 省親하였다.

56歲되는 明宗元年 丙午(1546年) 봄에 入京하여 3월에 辭職의 뜻을 밝히고 省親하였다. 떠나기에 앞서 劄子를 올려 「學問을 講하고 道理를 감히 親賢遠邪하도록」 빌었다. 鄉里에 돌아온 뒤에도 세번이나 글을 올려 辭職하였다. 7월에 判中樞府事로 遷職하고 9월에 李芑·尹元衡이 啓를 올려 先生의 勳爵을 뺐었다. 다음해 閏九月에 江界府에 安置되었다. 謫命을 듣고 집안이 다 號泣한데 先生은 怡然히 飲食하고 平日과 다름없이 言笑하며 家人에게 부탁해 가로대 “大夫人을 잘 奉養하면 皇人이 在上하니 내가 不久當還하리라”그 하였다. 다음해 6월 18일 辛酉에 大夫人이 下世하여 7월에 訃音이 傳해지자 大夫人의 遺衣로 設位하고 朝夕으로 號哭하였다.

59歲되는 明宗 4年 己酉(1549年) 10월에 「大學草甸 補遺」 그리고 그 이듬해 8월에는 「奉先雜儀」 10월에는 「求仁錄」「進修八規」의 著述을 完成하였다.

63歲되는 明宗 8年 癸丑(1553年)에 「中庸九經衍義」를 未完成으로 남기고 11월 23日 乙丑에 病患으로 돌아가시니 侍奉中이던 아들(子) 僭溪公 諱全仁이 12월 12일에 喪輿로 江界를 떠나서 다음해 2월에 鄉里에 運柩하였다. 그 後 僭溪公은 先生의 著述을 血誠으로 모아서 退溪先生에게 나아가 行狀을 달고 明宗 21年 丙寅(1566年)에는 「進修八規」를 갖추어 올리는 孝誠을 다하였다. 그리고 돌아가신 13年만에 드디어 復爵의 命이있었다. 宣祖가 即位하자 丁卯(1568年) 11월에 下敎하여 先生의 遺著를 搜訪하도록 命하였다.

宣祖元年 戊辰(568年) 2월에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에 追贈되고 夫人에게는 歲稟을 賜與하도록 命하고 3월에는 禮官을 보내어 致祭하였다. 다음해 8월에는 「文元」의 시호를 내리고 明宗廟庭에 配享하니 文은 “道德博聞”의 뜻을 取하였고 元은 “主義行德”의 뜻을 取한 것이다.¹⁰⁾

9) 七月 仁廟昇遐 明廟即位先生定垂簾之議具議書啓十條(海齋先生年譜, 二十四年乙巳條).

10) 贈諡文元道德博聞曰文主義行德曰元(海齋先生年譜, 三年己巳條).

宣祖 5年 壬申(1572年)에 鄉人들이 獨樂堂아래에 書院을 지었다.

宣祖 6年 癸酉(1573年) 2月 丁卯에 慶州西岳 鄉賢祠에서 位版을 옮겨 書院에 奉安하고 12月 3日에 「玉山書院」이라는 賜額이 있었다.

光海君 2年 庚戌(1610年) 8월에 禮官을 보내어 家廟에 致祭하고 9월에 文廟에 從祀되었다.¹¹⁾

위와 같이 先生의 行蹟을 年譜에 따라 考察하였다.

先生의 生涯는 16世紀의 前半期에 해당하는 時代이다. 이 時代의 狀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功臣들과 戚臣들을 主軸으로 하는 「勳舊派」 貴族이 中央政府에서 勢力을 펴고 王權은 相對적으로 弱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勳舊派」 貴族은 權力을 利用하여 大土地 占取, 賄賂의 公行, 奢侈와 放縱을 일삼고 不正과 腐敗를 蔓延시켰다. 이와 같은 事實은 農民들에게 負擔을 加重시키고 農民들의 抵抗이 있게 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注目한 事實은 新興士林派의 繼續의 進出이다.¹²⁾ 이 士林派는 대개 地方의 中心地主階層出身으로 學問과 德行을 닦아 新進官僚로서 活動하는 良心的學者·知識人들이다. 이들은 道德과 節概를 崇尚하고 名分과 傳統을 尊重하여 勳舊派와는 體質적으로 달랐다. 이 士林派는 前世紀末로부터 이미 擡頭해 왔거나와 勳舊派와의 政治鬭爭에서 여러번 挫折과 一方의 慘禍를 입었다. 先生이 8歲때에 戊午士禍, 14歲때에 甲子士禍가 일어났으나 幼年時節의 일이었고, 29歲때에 己卯士禍가 일어났으나 별일은 없었다. 그러나 先生이 學者로서 官人으로서 名望과 地位가 높아진 55歲때에 乙巳士禍¹³⁾를 당하여 57歲되든 明宗 2年 丁未(1547年) 閏九月에 江界府에 安置되었다. 憂國의 衷情을 著述속에 담았으니 先生은 道學에 奮發하여 德이 行實에 符合하였고 말이 後世에 傳하고 63歲로 他界하였다.

2. 先生의 人品과 德行

退溪先生은 그가 지은 「晦齋李先生行狀」에서 “嗚呼라! 우리東國은 옛부터 仁賢의 德化는 입었지만 道學은 傳함이 없었다. …… 우리先生은 授受한 곳도 없이 스스로 이 學問에 奮發하여 闡然히 날로 드러나 道德이 行實에 符合하였고 환하게 붓으로 적어내어 말이 後世에 傳하게 되었으니 우리 東方에서는 그와 비길 사람은 적을 것이다”¹⁴⁾고 하였다. 退溪의 이말을 文憲公 高峯奇大升은 그가 지은 「文元公晦齋李先生神道碑銘并序」에서 “公의 道에 對하여 길이 알고 갈 달한 것”¹⁵⁾이라고 論하였다.

高峯의 文元公 晦齋李先生神道碑의 銘은 다음과 같다. “上帝는 顯命이 있어 사람에게

11) 「晦齋先生文集」, 晦齋先生年譜, 李載浩 譯, 「國譯晦齋全書」, 1974. 李源鈞, “晦齋先生的 生涯와 學問” 「晦齋先生的 行蹟과 學問」, 良佐會, 1979.

12) 李佑成, “李晦齋先生的 歷史的 位置와 그 經世思想” 「國譯晦齋全書」 收錄.

13) 上同.

14) “嗚呼我東國百被仁賢之化而其學無傳焉麗氏之末以及本朝非無豪傑之士有志此道而世亦以此名歸之者然考之當時則率未盡明誠之實稱之後世則又固有淵源之徵使後之學者無所尋逐以至于今民氓也者吾先生無授受之處而日奮於斯學闡然日章而德符於行炳然筆出而言垂于後者求之東方殆鮮有其倫矣”(晦齋李先生行狀).

15) “此其於公之道可謂深知而善言之也” 高峯이 지은 「文元公 晦齋李先生神道碑銘并序」.

性을 주었다. 性의 四德은 실로 사람마다 가진 것이다. 氣와 質에 가리워져서 性은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된다. 學으로 回復하면 그 性은 같게 된다. 아! 우리 공은 이 一方에 誕生하시었다. 氣는 寬厚하면서도 莊重하고 德은 渾然하면서도 剛直하였다. 처음부터 學을 알아 몸을 닦고 踐履에 힘을 썼다. 부지런히 充養하여, 잘 自己에게 간직하였다. 집에서는 孝를 다하고, 나라에서는 忠을 다했다. 遠하기도 하고 近하기도 하며 道는 干隆을 兼該하였다. 一時에는 毀譽되었지만 萬世에는 光彩가 있다. 遺書를 搜求하고 官職을 褒贈하며 廟廷에 配享하여 洋洋하였다. 이것이 先王의 뜻인데 우리 임금께서 받드셨다. 無窮한 來世에 刻하매 우리道가 興隆할 것이다.”¹⁶⁾ 물론 이와 다른 評論¹⁷⁾이 全無한 것은 아니지만 名相 西崖는 館學에 보낸 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없는 平地위에 서서 자기생각에 따라 옛 사람의 得失을 點檢해 보기는 매우 쉽지만 일이 실지로 내 손에 당도해왔을 때는 어찌 일찌기 옛 사람의 발꿈치인들 따라가겠는가. 晦齋先生같은 이는 心身의 内外와 表裏가 洞然히 결백하여 光輝가 나고 行止語默을 道理가 아니면 行하지 않았다. 이러함에도 오히려 말을 붙여 보이지 않는 흉터를 찾아내려고 함을 免하지 못한다면 天下에 어찌 존경하고 숭상할만한 賢人君子가 있겠는가.”¹⁸⁾

西涯는 「館學諸生の 疏에 批答한 御札의 뒤에 쓴 恭書에서 “晦齋는 道學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나서 百代의 儒宗이 되었으니 그의 樹立한바가 卓然奇偉함은 姑置不論하고라도 이제 다만 그 立朝한 始終만 가지고 말한다면 옳은 道理를 行하여 行實이 回互없었으니 비록 風波가 蕩激한 가운데에 處하여서도 흔들리고 겁내지않고 始終이 一致했으므로 조금이라도 疑心할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司諫이 되었을 때는 姦臣을 힘껏 막다가 自身이 中傷을 만나서 田野로 물러가 있었는데 8年동안의 오랜 時日이었으며 그 終末에는 權奸에게 困辱을 당하여 老境에 西쪽으로 옮겨가서 邊方에 귀양살면서 萬死의 경우에도 志操를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의 立身한 大節입니다. 世上이 어지러우면

16) 李載浩 譯, 「國譯晦齋全書」 다음 原文은 「晦齋先生文集」에 依함.

帝有顯命昇人以性性之四德實維人秉蔽氣與質性由以失學以反之其性則一性性我生此一方氣寬而莊德渾而剛爰初知學愼修然履聲充養善有諸己入則盡孝出而移忠亦遠亦近道該干隆一時之詔萬世之光搜書褒贈配廷洋洋維先王志惟我后承刻示無窮吾道侯興「文元全晦齋李先生神道碑銘并序」.

17) 張志淵著「朝鮮儒教淵源」에 依하면, 南溟曹植은 “南溟曰當時大小尹之禍朝夕必發愚婦所知猶不早退於官卑之日以至負重而不可解流死異域恐虧明哲之見”이라 하였다. 栗谷은 「石潭日記」에서 曰 李彥迪博學能文事親至孝好玩性理之書手不釋卷持身莊重口無擇言多所著述深處精微者亦以道學推之但無經濟大才及立朝大節乙巳之難欲周旋救士死而不能直言匡救而迫于權奸作推官後稱與權奸立異竟得罪云 李文元則只是孝之人多讀書善於著述觀其居家不能遠不正之色立朝不能行任道之責乙巳之難不能直言抗節乃至屢作推官參錄仍勸雖竟得累擢亦此矣烏可以道學推之耶고 하였다.

18) 柳西崖答館學書曰往時聞李叔獻嘗議晦齋有不滿之意私自歎息以爲今人從平地上點檢昔人得失甚易至於事到手裏何當能及古人一二脚跟如晦齋先生身心内外表裏洞然潔白輝光行止語默非道不行如此而猶未免於泥垢而索齋則天下豈有賢人君子可尊可尚者乎「朝鮮儒教淵源」 및 「恭書御札各館學諸生疏後」 「晦齋先生集附錄」所載.

19) 晦齋以道學名世爲百代儒宗其所樹立卓然奇偉姑置不論但就其立朝始終而言之平生直道而行無所回互雖處風波蕩激之中而不震不悚本末一致無纖毫可疑其爲司諫也力捍姦臣身遭中傷退田野至於八年之久其終也又困於權奸白首西遷賦鰥獨微萬死而不回此其立身之節也世亂則一瓢林泉隱居求古歌詠先王之道若將終身及其遇時一起受知二聖忠言嘉謨朝啓夕沃莫非三代名臣諫諍中語 (恭書御札各館學諸生疏後 柳成杞).

林泉에서 簞食瓢飲을 즐기며 숨어살면서 理想을 求하고 先生의 道를 歌詠하면서 장차 한 平生을 마치려하다가도 때를 만나 한번 일어나매 두임금에게 知遇를 입게되어 忠言 嘉謨로서 朝夕으로 啓沃했으니 이것이 三代名臣들의 訓話속에 있는 말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¹³⁾고 하고 또 “其行止久速與時屈伸이 가히 聖人の 道에 合하는 것으로 倅倅하는 一節의 土와는 다른 것입니다”²⁰⁾고도 하고 “明宗即位初期에 十條의 啓辭는 先生이 草한바이니 거룩한 그 말씀은 비록 伊尹 傳說이 그 임금에게 告했던 말이라도 이보다 낫지는 못할 것입니다”²¹⁾고도 하고 “天下의 大勇”²²⁾이라고도 한다.

「朝鮮儒教淵源」의 著者 韋庵 張 志淵은 晦齋先生을 “사람됨이 安重端詳하고 光明正大하였다. 타고 난 성품이 道理에 가까웠다. 일찌기 爲己之學을 求하며 講論하여 밝히고 묻소 履行하여 先賢의 道를 계승하고 後學을 열어주는 것으로 自身의 責任으로 삼았다. 힘쓰기를 致知誠意하는데 기울이되 담백한 지취를 기르고 오랜 세월을 두고 쌓으며 性理를 연구하여 깊이 마음을 두되 聖賢의 닦아나아가는 方法에 따랐다. 先生의 學問이 傳受하여 받은 곳이 없지만 스스로 斯學에 奮發하여 걸음으로 어두운 듯하되 날로 밝아져 그 德性이 行實에 符合하고 빛나고 밝아 글로 써내자 그 말이 뒷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니 우리 東方에 求하여 보아도 先生과 비길만한 사람은 적다”²³⁾고 하였다.

玄相允著「朝鮮儒學史」는 先生에 관하여 “일찌기 性理의 學에 뜻을 두어 別로 師傅에게 授受한 것이 없으되 能히 自力으로 奮勵하여 一世의 名儒가 되었다. 27세에 長大養心敬身改過篤志等五箴을 짓고 30세에 또 立箴을 지으니 다 操存省察과 懲窒改遷을 힘쓰는 말이었다”²⁴⁾고 하고 있다.

晦齋先生의 行狀에 따라서 先生의 德行과 學問에 관한 論旨를 좀 더 詳細하게 다음에 摘出해 보고자 한다.

先生은 날때부터 資質이 보통사람과 달랐다. 점점 長成함에 學問에 힘쓰고 글을 잘 했으며 또한 科業에 通達하였다²⁵⁾고 하고 中宗은 先生의 忠直함을 생각하여 맨 먼저 復職시켰다.²⁶⁾ 全州府尹이 되었는데 一年內에 갈 다스려져 백성들이 碑를 세워 德을 稱頌하였다고 하고 先生은 비록 어머니가 늙으신 關係로 外職을 원하였지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일을 걱정하는 생각은 일찌기 하루라도 마음속에 잊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災異로 因하여 直言을 求하거늘 先生은 이에 數千言의 疏를 올렸다. 그 疏는 綱領이 하나 곧 一綱인데 “君主의 心術”이라 하였고 條目이 열개 곧 十目인데 “家政을 嚴

20) 其行止久速與時屈伸可謂合於聖人之道與倅倅一節之土異矣(恭書御札答館學諸生疏後 柳成詵).

21) 明廟即位之初十條啓辭先生所草也大故言于雖伊傳告君之辭無以過此(上同).

22) 非天下之大勇能如是乎(上同).

23) 爲人安重端詳光明正大天姿近道早求爲己之學講明體履以繼往開來爲己任用力於致知誠意之地養以冲虛之趣積以歲月之久潛心性理遵聖賢進修之方先生之學無授受之處而自奮於斯學闡然日章而德符於行炳然筆出而言垂於後者求之東方鮮有倫矣(「朝鮮儒教淵源」).

24) 玄相允, 「朝鮮儒學史」, p. 77, 民衆書館, 1960.

25) 生有異質九歲而孤稍長力學能文旁通舉業(晦齋李先生行狀).

26) 丁酉冬安老敗死中廟思先生忠直者首命叙復爲掌樂僉正(晦齋李先生行狀).

格히 할 것”, “國本을 培養할 것”, “朝廷을 바를 것”, “用舍를 慎重히 할 것”, “天道에 順應할 것”, “人心을 바를 것”, “言路를 넓힐 것”, “修政을 경계할 것”, “軍政을 整修할 것”, “幾微를 審察할 것”이라고 하였다. 말한 바가 모두 君心을 바로잡고 時務를 施行하며 謀謨를 啓沃하여 그 忠諫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음으로 中宗大王께서 매우 獎歎하여 “옛날의 眞德秀도 이보다 낫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다.²⁷⁾

또 弘文館에 있으면서 疏를 올려 聖學의 本末과 時政의 得失을 남김없이 陳述하였다.²⁸⁾고 하고 文定王后와 明宗이 함께 忠順堂에 臨御하고 密旨로서 宰官을 引見하였다. 先生이 나아가 하는 말을 들은 者는 목을 움츠렸으나 先生은 두려워하는 氣色이 없었다.²⁹⁾ 靖難衛社功臣이란 稱號를 주거늘 先生은 굳이 사양해 말하기를 “어찌 功이 없으면서도 부당히 功臣稱號를 받아 國典을 紊亂케 하겠음니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³⁰⁾는 것이다.

明宗 元年 봄에 劄子를 올리되 先賢의 말에 君主의 德을 成就시키는 그 眞任이 經筵에 있다하니 臣은 이 職責을 외람히 말았으므로 밤낮으로 責任을 감내하지 못할까 걱정하였읍니다³¹⁾고 하였다고 한다. 대개 先生의 持守한 바는 모두 저들의 두려워한 바이므로 저들이 今에 得志한 것은 실로 先生이 平昔에 君上을 위하여 깊이 걱정하고 힘껏 防止하는 것이었으니 先生이 忠誠으로써 罪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이 怪異하겠으며 先生에게도 또 무엇이 恨이 되리오, 귀양간다는 命을 듣고 온 屢泣하였으나 先生은 飲食·言笑함이 平時와 같았다고 하고 이에 付托하기를 大夫人을 잘 모셔 奉養하여라. 皇天이 굽어보는데 나는 오래 안가서 돌아올 것이라 하였다³²⁾는 것이다.

그는 困境과 憂患에 處하여 스스로 安定함이 있었으므로 學問을 向上시키고 글을 著述하여 그 工夫를 中止하지 않았으며 새벽에 일어나서 終日토록 進德條業을 조심조심하고 저녁에 또 過失이 없지 않는가 두려워 하였다(君子終日乾乾夕惕若)고 하고 그 案上에 스스로 警戒하는 말을 쓰되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세번 살피는데 하늘을 섬김에 未盡한 점이 있는가. 君親을 섬김에 誠實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마음가짐이 마르지 못한 점이 있는가”고 하였다.³³⁾ 어느날 御史 李無疆이 뜻밖에 빨리 달려들어오니 온 府中이 놀라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先生은 얼굴빛을 변하지 않고 衣冠을 바로하

27) 尹全州蒙中府境大合其民立碑以頌德先生雖以親老乞郡其愛君憂國之心未嘗一日而忘于懷會因災異永言乃上疏數千言其疏等綱者一曰人心術爲目者十曰嚴家政曰養國本曰正朝廷曰慎用舍曰順天道曰正人心曰廣言路曰成修政曰修軍政曰審幾微所言無非格君心措時務啓沃謀謨極其忠諫中宗大王深加獎歎曰古之眞德秀無以過也(晦齋李先生行狀).

28) 在館又上疏極陳聖學本末時政得失(晦齋李先生行狀).

29) 兩殿同御忠順堂密旨引見宰臣時天威震赫人莫敢少拂先生進曰人臣之義當專於所事當彼時專心於大行王者豈宜深罪且舉事當顯明不然恐士林多有橫權禍者聞者縮頸而先生無懼色(晦齋李先生行狀).

30) 賜靖難衛社功臣之號先生力辭以爲豈可無功而濫受以系王典乎不聽(晦齋李先生行狀).

31) 丙午春入劄云先賢之言曰君德成就責經筵臣奈是職日衣濯無以稱寒(晦齋李先生行狀).

32) 凡先生所守皆彼之所畏彼輩今日之得志寔先生平昔爲君上深憂而力防之者則先生之以忠獲罪何足怪哉而於先生又何畏聞謫命舉家號泣先生飲食言笑如平時乃屬之曰好侍養大夫人皇天在上吾不久當還矣(晦齋李先生行狀).

33) 其處困行患有以自安進學著書不輟其功未明而起乾乾夕惕其几案上書自戒之辭曰吾日三省吾身事天有未盡歟爲君親有未誠歟持心有未正歟(晦齋李先生行狀).

고 앉아서 글만 보았으니 그는 평은할 때나 險할 때를 한가지로 보고 死生窮厄으로 平素의 志操를 변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³⁴⁾고 한다. 先生은 英悟함이 남보다 뛰어나고 天資는 道에 가까워서 다만 經史에만 通達할 뿐 아니라 時文도 익혀서 힘쓰지 않고도 일찍 成就하였으며 이에 俗學밖에 所謂 爲己之學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求하고자 하였으며 비록 특별히 스승에게 從遊하여 受業하지는 아니하였으나 道는 吾性에 갖추어져 있고 그 學說은 方冊에 갖추어져 있으니 진실로 능히 뜻만 篤實하다면 얻지 못하는 이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體履를 講明하고 致知誠意에 用力하였다³⁵⁾고 하고 있다.

또 사납된 품이 安重 端詳하고 본래 高趣가 있어 어릴적부터 여러 사람과 같이 學業을 익힐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회롱하고 떠들어도 못들은 척하였다. 그 볼 수 있는 行實을 살핀다면 그 父母를 섬김을 愛敬에 敦篤하여 뜻을 받들어 기쁘게 하고 居處를 보살피고 飲食을 만드는 節次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단 하나뿐인 아우 彥適에게도 그를 사랑하여 手足처럼 지내었다³⁶⁾고 한다.

집을 다스림도 法이 있어 집안이 嚴肅하였으니 奴僕들은 공손하고 宗戚 鄉黨에게도 無恤接待함이 모두 道理에 적합하였다고 하며 祖上의 祭禮는 誠敬을 힘써 다했으며 특히 그 關係로 一書를 編輯하여 「奉先雜儀」라 이름하였고 이미 古今의 禮를 參酌하여 禮文을 定하고 또 禮記等書에 記載된 孝子慈孫들의 竭誠齋祭한 글을 收錄하여 觀省하고 奉行하였다³⁷⁾고 한다.

定力이 크게 있어 비록 倉卒한 경우일지라도 조금한 말과 당황한 氣色이 없었으며 靜正한 態度로서 自己몸을 가졌었으며 그가 全州에 있을적에 節日을 맞아 俗戲를 베풀었는데 監司 金公正國은 正인이었음에도 往往히 돌아보고 웃기까지 하였으나 先生은 超然히 못본척 하였다고 하며 그는 玉堂에 入直할 때에 혹시 同僚와 終日토록 相對해 있어도 전인 말이 없었으니 대개 持敬工夫가 깊은 때문이었고 꾸며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³⁸⁾고 한다. 身心性情에 根本하여 家鄉 邦國에 實行하였으니 이른바 “體와 用이 兼備해 있는 學問”으로서 옛것을 이어서 지금일에 推及하고 孝를 옮겨서 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가 朝廷에 있을적엔 進退와 建議함이 그처럼 光明正大하였던 것이며, 말은 입밖에 나오지 않는 듯하고 몸은 우물 이겨내지 못한듯 하여도 그 姦邪함을 물리치고 危疑를 決定하는 경우에도 두려워함이 없었으므로 비록 孟賁 夏育같은 勇

34) - 曰 細史李無疆不意疾馳而入一府驚愕以爲有不善意先生不爲動正衣冠坐而看書其一親夷險不以死生窮厄易素操如此(晦齋李先生行狀).

35) 先生英悟出人天資近道不唯通經史習時文不勞而早成乃於俗學之外知有所謂爲己之學而欲求之雖未見有名門之師從遊而受業然謂道備於吾性而其說具在方冊苟能篤志無不得之理於是講明體履用力於致知誠意之地(晦齋李先生行狀).

36) 兇考其可見之行其事親也篤於愛敬而承順悅豫溫清滌滌靡不曲盡一弟彥適與之友于如手如足(晦齋李先生行狀).

37) 治家有法門庭肅然奴僕謹恭宗戚鄉黨撫待各得其宜祭先之禮務盡誠敬持爲之編輯一書名曰奉先雜儀既參酌古今以定禮文又哀錄禮記等書所載孝子慈孫竭誠齋祭之文以觀省而奉行焉(晦齋李先生行狀).

38) 大有定力雖遇倉卒未嘗有疾言遽色靜正自持其在全州遇節日張俗戲監司金公正國正人也往往猶不免顧笑先生超然如無見也其直玉堂或與同僚終日相待無言蓋持敬功深非矯而爲之(晦齋李先生行狀).

士일지라도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³⁹⁾고 하고 있다. 要컨대 그 言論·風旨는 죽허 勸講에 對備하여 君主의 職을 輔佐할만 했으니 그 마음은 懇懇하여 恒常 내임금을 堯舜 같은 임금으로 만들고 내 백성을 堯舜時代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으로서 自己任務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遷謫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극한 忠誠心을 이기지 못하여 일찍이 易經의 進德修業의 뜻을 敷衍하여 八規를 만들어 마음속으로 忠誠을 바치려고 하였으니 그의 平素에 쌓아두었던 誠心은 더욱 볼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先生은 그 當時에 있어서도 이미 自己才德을 깊이 숨겼던 까닭으로 사람들이 그가 有道한 분인줄을 아는 이가 없었다⁴⁰⁾고 하며 退溪先生도 일찍이 堂上에 올라 先生의 얼굴모습을 바라다 보았지만 또 慘然하여 깨닫지 못했으므로 能히 이로써 깊이 質問하여 啓發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先生의 纂修한 諸書와 詩, 文, 誌, 銘과 官職을 歷任한 始末이며 言行事實 등을 읽고 反覆參究하여 옛날 聖賢의 밑으로써 그 當否를 質正해 보고 이에 비로소 先生이 道學에 있어서 그 求함이 이같이 간절하고 그 行함이 이같이 험차고 그 얼음이 이같이 바르며 모든 先生의 出處大節과 忠孝가 一致함도 모두 根本한 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⁴¹⁾고 하고 있다.

先生은 謫所에서 「大學章句補遺」「續或問」「求仁錄」을 짓고 또 「中庸九經衍義」를 지었으니 九經衍義는 미처 成書치 못하였으나 힘은 더욱 많이 들였다고 하며 이들 書는 可히 先生의 學問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精詣한 見識과 獨得한 妙는 忘機堂曹漢輔와 더불어 無極太極을 辯論한 書 四·五篇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하고 그 書에 있는 말은 儒道의 本原을 闡明하고 異端의 邪說을 辯駁하여 精微를 貫通하고 上下를 洞徹하여 純粹히 한결같이 正道에서 나온 말이었으니 그 뜻을 깊이 玩味하여 보면 宋나라 陷儒의 남긴 말이 아닌 것이 없으며 그 考亭에게 얻은 것이 더욱 많았었다⁴²⁾고 한다. 우리 先生은 授受한 곳도 없이 泯滅상대에 놓여있는 道學에 奮發하여 남모르는 사이에 날로 드러나 德이 行에 符合하였고 환하게 빛으로 적어내어 말이 後世에 傳하게 되었으니 우리 東方에서는 그와 비길 사람은 적을 것이다⁴³⁾고 하고 諡臣이 朝廷에 있음으로 좋은 行

39) 本之於身心性情而行之於家邦國所謂有體有用之學述古而推今移孝以爲忠者也故其立乎本朝也進退建白如彼其光明正大言若不出口體若不勝衣至其斥姦邪定危疑直前無畏雖真有莫之奪也(晦齋李先生行狀).

40) 要之其言論風旨尤足以備勸講而補衰職其心懇懇焉常以堯舜君民之責自任故其在遷謫猶不勝其拳拳之忠嘗取易經進德修業之義衍而爲八規志欲獻忠雖以時之不可而莫之進其素所蓄積益可見矣然而先生當時既深自韜晦故人未有知其爲有道者(晦齋李先生行狀).

41) 泐之不肯固嘗獲登龍門而望芝宇矣亦懵然莫覺不能以是深印而有發焉十數年來病廢林居若有窺規於虛囂問顧無所依歸而考問然後未嘗不慨然想慕乎先生之爲人頃年先生庶子金仁來示先生所纂修諸書近全仁又遺其子浚以其所裒集先生詩文誌銘及歷官首末言行事實重來示泐謹受而伏讀之反覆參質質之以古聖賢之言於是始先生之於道學其求之如此其切也其行之如此其力也其得之如此其正也而凡先生之出處大節忠孝一致皆有所本也(晦齋李先生行狀).

42) 先生在謫所作大學章句補遺續或問求仁錄又修中庸九經衍義未及成書而用力尤深此三書者可以見先生之學而其精詣之見獨行之妙最在於與曹忘機漢輔論無極太極書四五篇也其書之言闡吾道之本原闡異端之邪說貫精微徹上下粹然一出於正深玩其義莫非有未詁儒之緒餘而其得之於考亭者爲尤多也(晦齋李先生行狀).

43) 若吾先生無授受之處而自奮於斯學閤然日章而德符於行歷然筆出而言垂於後者求之東方殆鮮有其倫矣(晦齋李先生行狀).

跡을 겨우 짧은 동안에 誣陷하였지만 善道는 사람마다 行할 수 있으므로 모든 높은 德을 우러러 구름처럼 일어날 것이니 先生의 德業行跡을 어찌 記述하여 세상에 傳하지 않으리오⁴⁴⁾라고 하였다.

先生의 人品과 德行은 以上으로써 더 敷衍할 必要가 없을만큼 잘 드러났으나 다음 그 箴銘의 思想과 그림의 學問과 著述에 依해서 더욱 드러날 것이다.

3. 箴 銘

1) 元朝五箴

先生이 14歲때 “厲志聖賢之學”⁴⁵⁾하고 27歲되는 해 元旦에 聖學을 돈독히 하고 聖賢의 德을 닦고거 하는 높은 뜻을 가지고 實踐窮行할 것을 다짐하는 五箴을 지으니 그 元朝五箴并序에 이르기를 “듣건데 옛 聖賢들은 그 進德함이 날마다 새롭게 아니함이 없고 해마다 化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오직 날로 부기던하여 죽은 뒤에라야 그친다(死而後已) 하였으니 대개 사람되는 道理를 다하여 하늘이 賦與한 바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함이었다. 내가 나서 27년이나 되었다. 行實은 規範에 맞지않고 말(言)은 法度에 어긋남이 많으며 學問은 매우 험써도 道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이는 먹어도 德은 나아가지 않으니 聖賢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마침내 衆人으로 돌아갈 것이 明白하다. 아! 오늘은 元朝이다. 해가 또한 바뀌었는데 나 홀로 옛 그대로 德을 새롭게 하지 않으리오. 五箴을 지어 終身토록 箴을 삼으려 한다”⁴⁶⁾고 하였다.

그 五箴은 畏天箴, 養心箴, 敬身箴, 改過箴, 篤志箴이다.

畏天箴에서 하늘이 우리 人間을 낳으심에 부여한 것이 매우 크고 또 하늘의 명령은 밝고 빛나며 거스르면 凶하고 닦으면 吉하니 敢히 공경하고 두려워 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여 畏天하여야 한다는 箴이다. 하늘은 細微한 것도 살피지 않음이 없고 隱密한 것도 살피지 않음이 없는데 潛心對越하고 一動一靜을 上帝의 法則에 따라 할 것이라 한다. 永言配命하면 俯仰이라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늘을 속이고 오히려 罪를 면할지라도 삶이 부끄럽다. 毫釐의 어긋남이 있어서도 밀곳이 없는 罪를 짓는 것이니 어찌 反省하지 않으리.

克己復禮를 天命을 失墜하지 않았다고 하며 存心養性은 事理에 順從한 것이라. 上帝는 나타나지 않아도 또 굽어 보시니 敢히 속일 수 있으리오. 日乾夕惕하여 이에 自身을 保全할 것이다.

養心箴에서는 다음과 같이警戒하고 있다. 마음의 德은 지극히 虛靈하다. 원래 그 本

44) 青蠅止樊僅能誣芳躅於電往中原采菽將仰高山而雲興則先生之德業行跡胡可無記述以傳于世乎 (晦齋李先生行狀).

45) 晦齋先生年譜, 十七年 甲子條.

46) 元朝五箴并序蓋聞古之聖賢其進德也靡日不新無歲不化惟日孜孜死而後已蓋欲盡爲人之道而無負於天之所與也余生二十有七歲矣行中矩言多違法學苦而道不成年長而德不進其不至於聖賢而卒爲衆人之歸也昭昭矣噫今日又是元朝也歲且除矣我獨依舊而不自新乎作五箴以爲終身之憂云(「晦齋先生文集」, 卷之六).

體는 廣大하고 高明하며 모든 이치를 갖추어서 밖으로 많은 變化에 應하게 된다. 放之하면 上下東西南北六合에 가득차고 거두어 들이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니 이것을 善養無害하던 天地와 같이 廣大高明하게 된다. 修養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경할 뿐이니라(敬而已) 공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渾然한 太極이니 敬으로써 專一하여야만 그 本體가 正直하게 된다. 不偏不倚無貳無適하고 있어 버리지도 말고 助長하지도 말고 從容히 自得하여야만 廓然히 크게 公正無私하이 鳶飛戾天하고 魚躍于淵한다. 重門을 환히 여니 邪曲됨을 볼 수 없다. 天理가 온전함으로서 人欲이 萌動하지 못하며 大本이 이미 세워지매 達道가 이에 行하게 되리니 오직 敬의 妙는 存心하는 더전이다. 오래하면 이미 誠實하여졌어 一理에 純粹하게 되니 大地位焉하고 萬物育焉하는 極功이 실로 이에 根本하게 된다. 人生稟賦는 처음에는 두가지 理致가 없지만 손가락과 어깨와 등이 어느것이 貴하고 어느것이 賤한지도 아는 이가 적다. 小體 곧 身體를 기르기 위하여 大體 곧 마음을 잃으면 禽獸에 가깝게 될 것이니 내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니 敢히 스스로 힘쓰지 않으리요. 造次顛沛에도 이것을 銘心하여 잊지 않을 것이다. 一念이라도 잃지말 것이다. 神明이 곁에 계신다.⁴⁷⁾

敬身箴에서는 내가 내몸을 가진것(我有我身)이 지극히 重하고도 貴한 것이며 父母에게 받아 天地에게 稟受된 것이다. 이어서 天地에 參與하여 三才가 되니 萬物の 으뜸이라.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알진대 敢히 스스로 공경하지 않으리요. 공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몸가지기를 바르게 할 것이다. 容貌는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衣冠은 반드시 단정히 할 것이며 보고 듣는 것도 규칙이 있으며 말과, 행동도 法度가 있을 것이다. 음탕한 音樂과 邪惡한 禮法은 마음에 매지 말며 간사한 소리를 듣지 말고 요란한 빛깔도 보지 말 것이다. 禮法에 어긋난 자리와 不正한 장소에는 敢히 가지도 말며 거처하지도 말 것이요. 進退와 周旋을 반드시 道理에 부합케 하고 出處行藏을 한결같이 義로서 결정할 것이다. 富貴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貧賤에도 志操를 옮기지 않으며 卓然히 中立하여 오직 道에만 依支할 것이다. 이것을 능히 공경한다고 이르나니 不辱不虧하고 나를 낳아 주신데 욕됨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해서 生을 마치게 된다.⁴⁸⁾

오직 저 衆人들은 자기 몸가짐을 알지 못하여 보고 듣는 것을 節制없이 하고 그 四肢를 게을리한다. 하늘이賦與한 나를 慢忽히 하고 父母가 주신 肢體를 게을리한다. 食色에만 매우 분주하여 廉恥가 없으며 名利에만 汲汲하여 命運과 義理도 알지 못한다. 그

47) 其二養心箴惟心之德至虛至靈原其本體廣大高明內具衆理外應萬變放之六合飲之方寸善養無害與天地似養之伊何日敬而已敬之伊何惟主乎一當其不動渾然太極敬以一之其體乃直不偏不倚無貳無適勿忘勿助從容自得廓然大公鳶飛魚躍洞開重門不見邪曲天理以全人欲不萌大本既立達道乃行惟敬之始宅心之地久而既誠純乎一理位育極功實本於此人生稟賦初無二致一指肩背鮮知貴賤養小失大禽獸不遠我既知此取不自勉造次顛沛服膺勿失一念或怠神明在側(「晦齋先生文集」卷之六).

48) 其三敬身箴我有我身至重至貴受之父母命於天地參爲三才匪萬物比既知其然取不自敬敬之伊何持之以正容貌必莊衣冠必整視聽有則言動有法淫樂惡不接心術姦聲亂色不留耳目非禮之地非正之所足不取勝身不敢處進退周旋必於理合出處行藏一以義決富貴不動貧賤不移卓然中立惟道是依是曰能敬不辱不虧無系所生(「晦齋先生文集」卷之六).

自身은 돌보지 않고 다만 私欲에만 汨沒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잘 살펴서 惕然히 自身을 飭勵한다. 성실하고 공손하여 臨深履薄한다. 聖賢의 훈계가 있으니 誠이며 修이다. 敢히 이 말로써 終身之憂를 삼고져 한다.

改過箴은 다음과 같다.

사람마다 上智의 聖人이 아니거던 누구인들 허물이 없으리오. 허물이 있어도 能히 고친다면 그 허물은 적게 된다. 적게된 허물을 또 적게 하면 허물이 없게 된다. 허물이 없는 이를 聖人이라 하고 허물이 많은 이를 愚人이라 하니 聖人되고 愚人된 것은 다만 나에게 있을 뿐이다. 이로써 君子는 반드시 그 뜻을 誠實히 한다.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행동에 잘못된 일이 있으리오. 설혹 잘못이 있다하여도 즉시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허물은 사라지고 善만 온전하여 그 德이 날마다 進就될 것이다. 어찌하여 저 衆人들은 제 허물을 아는 者가 적은가. 알고도 또한 고치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착하게 된다 할 수 있으리오. 잘못을 부끄러워하면 그릇된 것이 만들어지고 허물이 오래되면 惡이 이루어진다. 나는 이것을 잘 살펴서 즉시 改過遷善할 것이다. 一念의 萌動이나 한나디의 發言도 반드시 도리에 맞도록 노력하여 오직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한다. 밤이 되면 허물이 있는가 反省하고 낮에 와서는 이것을 고치게 된다. 衛武公은 스스로 허물을 뉘우쳐 寶箴에서 詩를 지어 경계하였고 遼瑗은 허물을 적게 하고자하여 50에 그릇됨을 알았다. 子路는 자기 허물을 듣기 좋아하고 顏淵은 잘못을 두번 범하지 아니하였다. 聖賢들도 오히려 경계하였으니 하물며 나같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에 있어서랴. 나이 아직 어릴적엔 혹시 알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 장성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規戒하지 않으리오.⁴⁹⁾

篤志箴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가진 그 性品은 天理에 근본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착하지 않음이 없거늘 누구는 어리석고 누구는 슬기로우리오. 이에 聖賢도 나와 同類임을 알겠으니 求하면 얻게 되고 求하지 않으면 잃게된다. 그 기틀은 나에게 있으니 敢히 스스로 힘쓰지 않으리오. 成湯도 日新하고 仲尼도 發憤忘食하였다. 文王도 亶亶하였고 禹임금도 孜孜하였다. 하물며 나같은 後學이야 志大力微하여 한번 떨어지면 아주 멀어져 道에 이르기를 能히 기약할 수 있으랴. 우물을 파서 샘(泉)에 못미치면 아홉 길은 판들 무슨 도움이 있으리오. 學問을 하여 聖人이 되기를 바라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欲罷不能은 顏氏의 竭함이었그 任重道遠은 曾子의 篤工함이었다. 나는 옛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죽은 뒤에야 工夫를 그치겠다. 옛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된다.⁵⁰⁾

49) 李載浩譯, 「國譯 晦齋全書」, p. 6.

50) 其五篤志箴 人有厥性本乎天理初無不善孰愚孰智乃知聖賢與我同類求之則得不求則失其機在我敢不自勵成湯日新仲尼忘食文王亶亶伯禹孜孜矻矻余後學志大力微一墮悠悠進道可期井不及泉九仞奚益學不希望是謂自畫欲罷不能顏氏之竭任任重道遠曾氏之篤我師古人死而後已彼何人裁爲之則是「晦齋先生文集」卷之六).

2) 立 箴

先生은 30歲되는 해 中宗 15年 庚辰(1520年) 12월에 服을 마치고 除夕에 立箴을 지었다. 文箴은 先生이 「論語」爲政篇에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는데 본 뜬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立」의 뜻을 깊게 또 實際에 밝히고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歲에 學問에 뜻을 두었고 30歲에 立한다.” 뜻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서 뒤에 變更하는 것이 아니다. 瞬間이라도 그치고(止) 끊어지지(絶) 아니하는 것을 뜻을 둔다고 한다. 大學의 道에 뜻을 들때는 前念後念 한 마음 不亂하고 大學의 道에 있고 大學의 道를 行하여 不厭하는 것인데 15歲부터 15年間の 修行의 功이 쌓여 30이 되면 道를 열어 自立함이 있어 私意때문에 侵犯되지 않고 外物때문에 어지러워(亂)지지 않고 굳게 지키는(固守) 것이다. 곧 立箴의 序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正德 庚辰年 겨울에 나는 廬次에 除夕을 맞아 歲序의 流易을 느끼고 道德의 不修와 때에 미쳐 有立이 없는 것을 스스로 嘆息하여 이 箴을 지어서 自警한다”고 하였다. 立箴의 內容을 다음에 考察해 본다. 恭聞컨대 仲尼는 15歲때에 學問에 뜻을 두고 30歲에 와서 능히 自立이 있었다. 立이란 어떤 것인가. 마음은 定해지고 道를 얻어서 만이 充實하고 밖은 直方하여 卓然히 中立하여 仁에 居하고 義를 行하여 富貴에 不淫하고 貧賤에 不易하여 天下萬物이 나를 꺾고 굽히지 못한다. 이것을 능히 立이라 이르니 聖人되는 其本에 나아가는 것이다. 繼天・建極은 실로 이에 根本한다. 담담한 나는 後學으로 오직 聖人만을 우러러 받들고 본받고 하건만 學問에 뜻함이 너무 늦었으며 道를 들은 것도 또한 더디었다. 功疎力淺하여 배움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任重而道遠하나 뜻만은 오히려 머리지 아니한다. 聖人을 끌어 견주어 헤아리며 내몸에 들때 잘못을 살핀다. 能히 立하였나 못하였나를 마음에 징험해 보면 舊養은 확충되지 못하고 操存은 견고하지 못하여 天理는 流行하는데 違失을 면치 못하고 人欲은 消去한대도 때로 싹터 일어난다. 能히 立하였나 못하였나를 몸에 징험해 보면 氣習은 조금 변하여도 義理는 아직 微弱하므로 言行이 過誤가 많고 表裏가 一致하기 못하여 事物이 밖에서 흔들게 되면 酬應에 혹시 差誤가 있다.⁵¹⁾ 能히 立하였느냐 못하였느냐를 行實에 징험해 보면 臣下되고 子息된 道理에 그 職分을 다하지 아니할까 禮를 하거나 義를 하거나 썩 다하지 못하여 動靜語默이 節度에 맞지 않음이 많고 進退周旋은 혹시 法則을 상실하게 된다. 歲月은 如流하여 한번 가면 돌아 오지 않으니 내 나이를 헤아리이면 어느 듯 30이 닥쳐 왔다. 이때 未立하면 凡人됨을 어찌 면하리오. 이로써 스스로 反省하려고 밤을 새우며 잠자지 아니하였다. 山寺에 鍾이 울면 또 새해가 닥쳐 오게 된다. 天道가 이미 變했으니 時物도 또한 옮겨

51) 立箴并序 正德庚辰冬余在廬次逢除夕感歲序之流易而自歎道德之不修無以及時而有立因箴以自警云 恭聞仲尼十五志學至于三十乃克有立曰立伊何心定道行充實於內直方於外卓然不倚居廣行丈富貴不淫貧賤不易天下萬物莫我撓屈是謂能立進聖之基繼天建極實本於斯閱余後學惟聖是慕志學苦晚聞道亦暮功疎力淺學未收效任重道遠志猶不舍援聖比度反躬省過驗之於心能立耶否舊養未充操存不固天理流行未晚遺失人欲消去有時萌起驗之行身能立耶未氣習稍化義理猶弱言行多過表裏未一事物外撓酬應或差(『晦齋先生文集』卷之六).

졌다. 나는 하늘을 본받아 그 德을 새롭게 하련다. 舊習은 버리고 聖法만을 一遵하여 輕妄을 바로 잡고 태만을 일깨워 남이 하나로서 되면 나는 百을 해서라도 진실을 쫓고 노력을 오래하여 기어이 聖人의 경지에 들어 갈 것이다. 이제 부터 앞으로는 40, 50도 또 얼마 안가서 돌연 탁쳐 올 것이다. 그때 가서도 들임(聞)이 없으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로써 걱정이라 箴을 기어 스스로 바로 잡고 뜻에 포지하고 마음에 맹세하여 終身事로 삼으려 한다. 上帝께서 실로 굽어 보시니 내 마음이 敢히 하나가 되지 않으리요.⁵²⁾ 先生 58歲되던 해 明宗 3年 戊申(1548年) 元日に 謫所에서 지은 自新箴이 있다. 學問은 道에 나아가기를 求했으며 뜻은 體仁하는데 두었지만 행실이 神그리운 하늘(神天)을 저버리게 되면 荊難이 그 몸에 미쳤다. 忠誠은 報國하는데 이즈러지고 孝道는 어버이에 어긋짐으로써 결함이 된다. 내몸에 돌이켜 허물을 살펴 古人을 배우고자 한다. 天道는 循環하여 먼 변경에도 봄이 왔구나. 밤중에 發憤하여 나도 德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밝게 굽어 보시니 潛心하여 上帝를 대하게 되고 그옥한 방안에 숙연하게 된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 털끝만한 작은 것도 속이지 않는다. 一念으로 정성을 생각해야 모든 일에 職分을 다 할 수 있다. 克己復禮하면 우러러 믿고 굽어봐 부끄러움이 없다. 箴으로써 스스로 일깨워 銘心하여 잊어버리지 않으려 한다.

3) 知耻銘

이밖에 先生의 文集에 남아 있는 銘은 定靜銘, 無絃琴銘, 知耻銘 등이 있다. 知耻銘을 考察하면 “君子の 道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貴重하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內省해서 不疚하면 뜻(志)에 부끄러움이 없다.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謹獨하면 우러러 그리고 굽어 부끄러움이 없다. 卓然히 中立하여 오직 道만을 依持할 것이다. 不幸히 허물이 있어 隱微한 곳에 있어도 비록 累될 것이 없을 듯하지만 마음의 부끄러움은 시장바닥에서 매맞는 것과 같을 것이며 혹시 天妄으로 몸이 횡액을 만났다면 변방의 귀양살이와 刑場에서의 죽음이라도 甘受하여 부끄러움 없이 浩氣가 天地間에 가득할 것이다 世上은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나를 아는 이 오직 하늘 뿐이다.

安土樂天하면 마음은 泰然할 것이다. 小人의 心事는 이와는 一切 반대인지라 不仁함을 不耻하고 不泰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오직 利益만을 다투게 되며 오직 惡만을 퍼뜨린다. 羞惡之心은 天性에 근본하였으니 마음을 한번 갖고 한번 잃은데서 狂人과 聖人이 판가름난다. 그 기틀이 이와 같으니 敢히 自省하지 않을까. 조금의 틀림이 天地처럼 어긋난다(相違).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 하면 큰 허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⁵³⁾ 先生은 27歲에 五箴을 짓고 30歲에 또 立箴을 기었으니 그 말은 모두 옛 聖賢이 몸소

52) 驗之於行立耶未耶爲臣爲子不盡其職爲禮爲義不用其極動靜語默多不中節進退周旋或失其則歲月如流一往不復究我年數奄迫三旬及此未立寧色衆人是用自省竟夕不眠鍾鳴山寺又是新年天道既變時物亦遷我其法天思新厥德蘇去舊習一遵聖法矯矯警僣人一已百實積力久期入聖域自今以往四五十又無幾何轉瞬忽及到此無聞已矣可追是用耿耿箴以自規標志奮心爲終身事上帝實臨我心取貳 (『晦齋先生文集』卷之六).

53) 『晦齋先生文集』卷之六.

實行하고 마음으로自得한 切要한 뜻이라 하겠다. 그 日用動靜에 操存省察하고 隱居待時하는 즈음에 懲忿窒欲하고 遷善改過한 것은 진실로 이미 實踐한 바이며 空言이 아니다.⁵⁴⁾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慶州西北紫玉山中에 살 곳을 가려 정하였는데 그곳의 珍奇한 巖壑과 潔淸한 溪潭을 사랑하여 집을 지어 居處하면서 그 堂의 名稱을 獨樂堂이라 하고 松竹과 花草를 더 심고 날마다 그 사이에서 散策吟詠하여 세상일을 謝絶하고 一室에 端座하여 圖書속에서 精畧히 研究하고 고요한 가운데 깊이 생각하여 工夫가 그전보다 더욱 깊고 또 專一하여졌으며 그런 뒤에야 그 前에 듣기만 하고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것도 이제야 마음속으로 세밀히 이해되고 親切히 微驗한듯 하였다고 한다. 冲恬의 志趣로써 涵養하고 오랜 歲月을 쌓았으므로 性理學에 潛心하여 聖賢의 進德修業하는 方法을 遵行하고 高明한 理致를 探究하여 鳶飛魚躍하는 流行의 妙를 즐겼다.⁵⁵⁾

위에서도 본바와 같이 先生은 困境과 憂患에 處하여 스스로 安定함이 있었으므로 學問을 向上시키고 글을 著述하여 그 工夫를 中止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終日도록 조심조심 進德修業하고 저녁에 또 過失이 없지 않는가 두려워 하였다⁵⁶⁾(終日乾乾夕惕若) 고도하고 또 평온할 때나 險할 때를 한가지로 보고 死生窮厄으로 平素의 志操를 변하지 않았다⁵⁷⁾고도 하고 先生은 爲己之學을 求하였다⁵⁸⁾고 하는데 그는 定力이 크게 있어 어떤 경우에도 조급한 말과 당황한 氣色이 없었다고도 한다. 持敬工夫가 깊이 同僚의 終日도록 相對해 있어도 전인 말이 없었다고도 한다. 그는 體用을 兼備해 있는 學問으로써 옛것을 이어서 이제에 잇 이어 孝를 옮겨서 忠을 한다고도 한다. 이 모두가 先生이 일찍부터 聖賢이 되고 聖學을 배우고져 箴銘을 지어 聖賢의 道德修業하는 方法을 遵行한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4. 「大學章句補遺」

先生의 述作中에는 「大學章句補遺」, 「續大學或問」, 「中庸九經衍義」 등이 보인 있다. 「大學章句補遺」는 朱子가 編次한 「大學章句」를 先生이 謫居한 때에⁵⁹⁾ 고쳐 編次한 것이고 「續大學或問」은 그 고쳐 編次한 理由를 敷衍한 것이다. 朱子の 「大學章句」에는 「聽訟章」이 「傳」의 四章으로 되어 있는데 先生의 「大學章句補遺」에는 「經」一章끝에 올려

54) 爲人安重端計雅有向趣自少早居肄業或有嬉戲適似於其側若無聞焉二十七而作五歲畏天也養心也敬身也改過也篤志也二十而又作立歲其言皆古聖賢躬行心得切要之旨其操存省察於日用動靜之間密窒遷改於遷善時晦之際固已實有所事而非空言也(晦齋李先生行狀).

55) 其龍歸也卜地於州西北紫玉山中愛其巖壑環奇溪潭潔淸築室而居之名其堂曰獨樂益樹以松竹花卉日嘯咏釣遊於其間謝絕世故端坐一室左右圖書研精畧思靜中下功夫比之前時尤深且專一然後向來有聞而未甚契者始若心融而神會親切而有驗焉矣以冲恬之趣積以歲月之久潛神性理遵聖賢進修之方玩心高明承鳶飛魚流行之妙(晦齋李先生行狀).

56) (晦齋李先生行狀).

57) 上同.

58) 上同.

59) 趙綱·大學章句補遺跋文.

놓았다.

또 朱子の 「大學章句」에는 第五章을 缺文으로 간주하여 朱子가 「補亡章」을 插入하였는데 先生의 「大學章句補遺」에는 「經」一章의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安而後能慮慮而后得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를 다음과 같은 차례로 바꾸어 「傳」四章에 옮겨 格物致知를 해석하고 있다.

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
知止而后有定定而后能靜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慮而后能得

위의 경위에 대해서, 先生은 大學章句補遺序에서, 秦의 焚書한 뒤 聖人의 年代는 멀어지고 聖人의 말은 湮滅된지 千餘年이 되었다. 다행히 하늘이 斯文을 멸망시키지 않았으므로 程子, 朱子 數君子가 大學을 表章하였다. 다시 錯誤를 定하고 微蘊을 發揮하였으므로 一篇가운데 綱領과 條目이 完하게 밝아졌다. 이에 學問하는 이는 힘쓸바를 알게 되고 政治하는 이는 根本할 바를 알게 되었으니 斯道에 功이 컸다. 다만 恨이 되는 것은 聖經賢傳의 글이 斷篇缺字가 능히 없을 수 없으며 文辭의 意義도 完全하지 못하여 學者가 完全한 글을 얻어 볼 수 없으니 千古의 遺憾인 것이다. 朱子가 程子의 意思를 따라 格致의 뜻을 해석하는데 補充하였으니 그 처음 배우는 窮理의 要領을 發明한 것은 또한 매우 明白히 具備되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大學을 읽다가 이 후에 이르러 每양 本文을 얻어 볼 수 없는 것을 恨數하였다.

이에 敢히 나의 臆見으로써 經文中의 二節을 取하여 格物 致知章의 글로 만들었다⁶⁰⁾고 하고 「續大學或問」에서는 或人이 묻기를 “大學一篇은 程子가 처음으로 傳信하고 表章하였으며 또 簡編을 序次하고 그 歸趣를 發明하였다. 朱子는 章句를 著述하매 비록 程子의 뜻을 근본하였으나 다시 錯誤된 簡編을 訂定함에 있어서는 程子의 見解에 다름이 있으니 어떠한 이유인가”하거늘 先生은 대답하기를 “天下의 이치는 무궁하니 비록 聖人이다 하더라도 能히 다 窮先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前代의 聖人이 發明하지 못한 바를 後世의 聖人이 發明한 것이 있고 前代의 賢人이 말하지 못한 바를 後賢이 말한 것이 있으니 程朱의 學問에 진실로 淺深高下를 말할 수 없으나 所曰에 있어서는 詳略異同이 能히 없을 수 없다”⁶¹⁾고 하고 先生이 지은 「大學章句補遺」의 編次의 理由를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또 「中庸九經衍義」는 中庸의 九經을 先聖의 經傳

60) 宋火之餘聖遺言湮千有餘載幸而天未喪斯文程朱數君子出而乃始表章此篇更定錯誤發揮微蘊一篇之中綱條粲然於是爲學者知所務而爲治者知所本其有功於斯道也大矣獨恨聖經賢傳之文不能無斷缺辭義未完學者不得見全書此真千古遺憾朱子得其結語一句知其爲釋格物致之義而未得其文遂取程子之意以補之其所以發明始學窮理之要亦甚明備然愚嘗讀至於此每歎本文之未得見乃取以臆見取經文中二節以爲格物致知章之文 晦齋先生이 지은 「大學章句補遺序」.

61) 或問大學一篇程子始傳信而表章之又爲之次其簡編發其歸趣及朱子著章句雖本程子之意而至於更定錯簡則有異於程子之見何也曰天下之理無窮雖聖人有不能盡者故有前聖之所未發而後聖發之者有前賢之所未言而後賢言之者程朱之學固無淺深高下之可言而所見不能無詳略異同 [續大學或問].

을 根本으로 삼아 諸子의 論說은 參照하여 先生이 지은 述作이라.

위에서 「大學章句補遺」를 述作한 경위와 그 編次의 理由를 考察하였거니와 그 聖經賢傳에 관련된 述作의 典範이라 할 생각이 表明되어 있다고 하겠다.

孔子는 述而不作이라 하였다. 述은 옛 것을 傳하여 記錄할 따름이요 作은 처음으로 創造하여 짓는다는 뜻이다. 孔子께서 詩傳과 書傳을 刪削하고 禮와 風流를 定하시며 周易을 贊하고 春秋를 닦아서 옛 것을 傳할 따름이요 처음 기으심은 잊지 아니하다⁶²⁾고 한다.

述而不作은 著述의 典範이 되어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晦齋先生이 말한 바와 같이 天下의 理致는 무궁하니 비록 聖人이라 하더라도 能히 다 窮究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前聖이 發明하지 못한 것을 後聖이 發明한 것이 있고 前賢이 말하지 못한 것을 後賢이 말한 것이 있으므로 述而不作을 遵行하고 그 精神에 違背되지 않고 創作하지 않을 수 없는 바 述作의 典範이 되는 思想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生生의 이 獨自인 述作이 單純히 經傳解釋에만 그치지 않고 政治思想에 깊은 關係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것 같다.⁶³⁾

Ⅲ. 無極太極辯·「一綱十目疏」·「弘門館上疏」·「進修八規」

1. 無極太極辯과 答忘機堂書

1) 「書無極太極說後」

忘機堂 曹漢輔는 慶州사람인데 晦齋先生의 外叔 忘齋孫叔暉과의 사이에 周濂溪의 太極圖說의 첫머리에 나오는 “無極而太極”에 관하여 書信往來가 있었던 것을 晦齋가 그것을 얻어보고 「書忘齋忘機堂 無極太極說後」를 지어 두 사람의 說은 評하였다. 이 일은 先生 27歲되는 中宗 12年 丁丑(1517年)의 일이다.

이 「書忘齋忘機堂 無極太極說後」를 忘機堂 曹漢輔가 얻어보고 그것에 答辯하는 文句를 晦齋에게 보냈다. 이로부터 두사람 사이에 往復論難하는 글이 四次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學術인 論爭이 벌어졌다. 이에 관한 忘齋나 忘機堂의 글은 傳해지지 않고 晦齋의 글만 「晦齋先生文集」에 실려있다. 勿論 晦齋의 글에 引用된 그들의 짧은 文句를 통해서 이렇듯이 推測할 수 있다.

忘機堂 曹漢輔는 老莊學徒같이 보인다⁶⁴⁾고 하며 晦齋의 글 內容으로 보면 忘機堂은 禪과 儒를 綜合하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禪側에 가까웠던 것 같고 晦齋는 純正한 朱子學的 理論을 展開하였다⁶⁵⁾고도 한다.

62) 儒教經典諺, 譯叢書, 「論語」述而第七.

63) 「國譯晦齋全書」, 李載浩教授解題.

64) 李相殷, “晦齋先生의 哲學思想” 「國譯晦齋全書」, 1974.

65) 上同.

先生은 “대저 所謂 無極而太極이라 하는 것은 이 道가 처음부터 物體가 있는 것이 아니면서 實은 萬物의 根抵가 된다는 것을 形容한 말이다”⁶⁶⁾고 한다.

“無極而太極”이라고 한 말은 宋明道學의 始祖라고 불리는 周濂溪의 太極說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인데 그 “無極” 두 字에 관해서 朱子 當時에 朱子의 陸象山 사이에 論爭이 있었고 그뒤로 많은 學者들이 이 “無極”에 疑義를 가져왔다.

朱子는 無極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太極이 하나의 물건과 같아서 萬化의 뿌리(根)가 되기에 不足하고 太極이라 말하지 않으면 無極이 空寂에 빠져 萬化의 뿌리(根)가 될 수 없음⁶⁷⁾으로 無極而太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周先生이 學者들이 太極을 別個의 한 물건으로 잘못 인식할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無極二字를 드러내어 밝힌 것이라 한다. “無極”은 즉 “無形”이요 “太極”이 즉 “有理”⁶⁸⁾함이 明白하다고 한다.

無極二字는 加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象山の 說에 대하여 朱子는 다음과 같이 答한 다음 伏羲가 易을 짓고 文王이 演易하였으나 다 太極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孔子는 말하였고 孔子가 易을 贊하여 太極을 말하였으나 無極을 말하지 않았는데 周子가 말하였다.

대저 先聖과 後聖이 어찌 같은 한 줄거리로 이어온 것이 아닌가. 太極의 眞體를 뚜렷이 실제로 보았다면 말을 안하는 것이 적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不爲少) 말하는 것이 많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닌것을 안다.⁶⁹⁾ 그런데 一陰一陽은 비록 形器에 屈하지만 一陰一陽하는 所以는 道體의 所爲이다. 그런 故로 道體의 至極함을 말해서 太極이라 하고 太極의 流行을 道라고 이른다. 비록 두 이름이 있지만 두 體가 있는 것이 아니다. 周子가 無極을 이룬 까닭은(所以謂之) 바로 그것이 方所도 없고 形狀도 없으면서 物이 있기 전에 있게 되고 物이 있는 後에도 存立해 있지 않음이 없다해서 그런 것이며 陰陽의 外에 있으면서 또 陰陽속에 行하지 않음이 없다해서 그런 것이며 全體를 貫通하여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면서 또 처음부터 無聲無臭와 그림자와 데아리를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다⁷⁰⁾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象山은 다음과 같이 反駁한다. 中庸에 “中也者是 人下之大本也 和也者是 天下之達道也라. 致中和면 天地 位焉하며 萬物이 育焉이니라” 하였으니 이 理致는 지극한 것이다. 이 밖에 어찌 또 太極이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66) 夫所謂無極而太極云者所以形容此道之未始有物而實爲萬物之根抵也(晁公武《讀書後志》卷之三十六) 無極太極說(後)

67) 不言無極則太極同於一物而不是爲萬化之根不言太極則無極論於空寂而不能爲萬化之根 (『朱子大全』, 卷之三十六, 答陸子壽).

68) 太極之說蓋謂周先生之意恐學者錯認太極別爲一物故著無極二字以明之此是推 若果無形而但有理則無極即是無形太極即是有理明矣 (『朱子大全』, 卷之三十六).

69) 伏羲作易自一畫以下文王演易自乾元以下皆未嘗言太極也而孔子言之孔子贊易自太極以下未嘗言無極也周子言之夫先聖後聖豈不同條而其貫哉若於此有以不然實見太極之眞體則知不言者不言者不爲少而而言之者不爲多矣 (『朱子大全』, 卷之三十六).

70) 大傳既曰形而上者謂之道矣而又曰一陰一陽之謂道此言眞以陰陽爲形而者故正可以見一陰一陽雖屬形器然其所以一陰而一陽者是乃道體之所爲也故謂道體之至極則謂之太極語太極之流行則謂之道雖有二名初無兩體周子所以謂之無極止以其無方所無形狀以爲在無物之前而未嘗不立於有物之後以爲在陰陽之外而未嘗不行乎陰陽之中以爲通貫全體無乎不在則又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 (『朱子大全』, 卷之三十六).

朱子は 다음과 같이 答辯한다. 老氏가 말하는 有無는 有와 無 둘로 하는 것이며 周子가 말하는 有無는 有와 無를 하나로 하는 것이다. 中也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는 것은 喜怒哀樂의 未發에서 이 理가 渾然하여 偏倚함이 없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太極을 진실로 偏倚함이 없이 萬化의 根本이 된다. 그러나 그 이름을 얻은 것은 스스로 至極한 極이며 또 兼하여 標準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中”이라하여 그 이름을 얻은 것은 아니다. …무릇 形이 있고 象이 있는 것은 다 器다. 그 器가 된 所以의 理가 즉 道이다.⁷¹⁾ …所謂 始終, 晦明, 奇偶와 같은 것은 다 陰陽이 만들어낸 器다. 다만 그 器가 되는 所以의 理는 눈의 明, 귀의 聰, 父의 慈, 子의 孝와 같은 것이니 이것이 道이다.⁷²⁾ 以上은 曹忘機堂과의 無極太極辯을 理解하기 위하여 朱子와 陸象山兄弟의 論辯을 考察하여 보았다.

晦齋先生은 이르기를 無極而太極이라고 한 것은 周子가 道體를 완히 들여다 보고 常情을 넘어 勇敢히 나아가 前人이 敢히 달하지 못한 道理를 말하여 後來하는 學者를 하여금 太極의 妙가 有와 無어디에도 屬하지 않고 方體에 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한 것이니 이는 진실로 千聖以來의 不傳의 秘를 얻은 것이다⁷³⁾고 하였다.

忘機堂의 이른바 “太極即無極”이라 한 것은 옳지만 어찌 有를 論하고 無를 論하며 안과 밖을 나누고 名數의 末에 拘碍해서 되겠는가고 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⁷⁴⁾ 그 大本을 얻으면 人倫日用에 酬酢萬變하더라도 일마다 다 達道가 아님이 없다고 한 것은 옳지만 大本과 達道가 渾然히 하나인데 어디서 다시 無極과 太極, 有中과 無中の 區別을 論할 곳이 있는가 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忘機堂은 太虛의 體는 本來 寂滅하다고 하였다. 滅字로써 太虛의 體를 說明하는 것은 당연히 吾儒의 學說은 아니라⁷⁵⁾고 批判한다.

要컨대 晦齋는 이 글에 있어서 忘機堂이 太極위에 따로 無極의 眞을 세워놓고 그것의 靈妙한 體를 體認하는데만 힘쓰고 形而下的 世界의 일인 人倫日用의 修養工夫를 等閑히 하며 至高至遠한 것에만 太極의 理를 求하고 至近至實한 곳에서는 그것을 求할 줄을 모르며 大本과 達道가 一致되는 것만 強調하고 그것이 體와 用, 動과 靜, 先과 後, 本과 末이 混同할 수 없는 區別이 있음을 無視한다⁷⁶⁾고 한 것이다.

2) 答忘機堂 第一書

上述한 晦齋의 「書無極太極說後」에서 評한데 대하여 答辯이 있있는 것 같다. 거기에

71) 李相殷, “晦齋先生の 哲學思想” 『國譯晦齋全書』, pp. 875—886

72) 老氏之言有無以有無爲二周子之言有無以有無爲一 中者天下之大本乃以喜怒哀樂之未發此理渾然無所偏倚而言太極固無偏倚而爲萬化之本然其得名自爲至極之極而兼有標準之義初不以中而得名也…凡有形有象者皆器也其所以爲是器之理者則道也如是則來書所謂始終晦明奇偶之屬皆陰陽所爲之器獨其所以爲是器之理如目之明耳之聰父之慈子之孝乃爲道耳. (『朱子大全』卷之三十六).

73)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

74) 上同.

75) 其曰太虛之體本來寂滅以滅字說太虛體是斷非吾儒之說矣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

76) 李相殷, “晦齋先生の 哲學思想”.

대해서 다시 글이 있는데 그것이 答忘機堂 第一書이다. 여기서 忘機堂의 “寂滅 存養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來敎의 이른바 寂滅 存養論의 道에 未洽한 듯 한 것이 있다”고 한다. 대저 이른바 太極이라는 것은 斯道の 本體요 萬化의 領要이니 子思子의 所謂 天命之性이라는 것이다. 대개 그 沖漠無朕한 가운데 萬象이 森然히 갖추어 있으니 하늘이 덮고 땅이 실는 所以(天之所以覆地之所以), 日月이 비치고 鬼神이 그윽하고 風雷가 變하고 江河가 흐르는 所以, 性命이 바로 되고 倫理가 드러나는 所以가 다 本末上下가 한 이치로 貫通되어 실체가 그러하니 어느 것이나 바꿀 수 없다.”⁷⁷⁾

周子가 無極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方所도 없고 形狀도 없어서 物이 생기기 前에 있으면서 物이 생긴 後에도 들어가지 않는데가 없고 陰陽밖에 있으면서도 陰陽속에서 流行하지 않음이 없으며 全體에 貫通해 있지 않은데가 없으면서 또 처음부터 소리도, 냄새도 그림자도, 메아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無極이라 했던 것이고 老氏와 같이 無에서 나와서 有에로 들어간다, 釋氏와 같이 空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또 至無한 가운데 至有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無極而太極”이라고 하는 것이며 理가 있는 다음에 氣가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太極生兩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理는 비록 氣를 떠나지 못하지만 實은 氣에 섞이지 않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靈源의 獨立을 본 뒤에 비로소 이 理의 無아임을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무엇인가고 한다.

鳶飛魚躍하여 上下에 밝게 나타나 옛적이나 지금이나 宇宙에 가득차서 틈끝만한 빈틈도 없고 숨 한번 쉴 間斷도 없으니 어찌 萬化의 소멸하는 것(蕪盡)만 보고 마침내 이 極의 體를 가리켜 寂滅이라고 할 수 있는가.

天地에 앞서 있으면서도 그 始初를 볼 수 없고 天地의 뒤에 있으면서도 그 끝을 볼 수 없으니 이 理가 實然하여 虛空이 아닌 것이다. 사람이나 萬物이 그 사이에서 生하여 永久히 存在하지 못하고 마침내 蕪盡해 버리는 것은 대개 사람과 物은 形이 있고 質이 있기 때문이고 이 理는 形이 없고 質이 없다. 有形, 有質한 것은 生死, 始終이 없을 수 없지만은 生死와 始終을 하게 하는 것은 실로 이 無形無質한 것이다. 형상도 없고 質도 없는 것이 어찌 쉬고 滅하는 때가 있겠는가. 子思는 말하기를 오직 하늘의 명이 深遠하여 쉬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物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天道는 誠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物을 生함이 많다(不息而生物之多). 그러므로 物을 生함을 헤아릴 수 없다(其爲物不貳其生物不悞)⁷⁸⁾고 하였으니 “不己” “不貳”라는 것은 과연 어떤 물건인가

77) 夫所謂太極者乃斯道之本體萬化之領要而子思所謂天命之性者也蓋其沖漠無朕之中萬象森然已具天之所以覆地之所以載日月之所以照鬼神之所以幽風雷之所以變江河之所以流性命之所以正倫理之所以著本末上下貫乎一理無非實然而不可易者也(答忘機堂第一書).

78) 中庸二十六章에 “天地之道는 可一言盡也니 其爲物이 不貳라 則其生物이 不悞이니라”하였다. 朱子의 註에는 “天地之道는 誠一不貳故誠而不悞而生物之多有莫知其所以然”이라 하였다. 또는 天地之道는 “誠一不貳”라고도 했다.

이것을 寂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⁷⁹⁾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晦齋는 無極太極을 論하고 極의 體를 가리켜 寂滅이라고 하는 것이 不當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道學에 있어서의 實學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道라는 것은 사람의 일(人事)의 理致이다. 사람의 일(人事)을 떠나서 道를 求하던 空虛한 境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吾儒의 實學이 아니다. 詩에 이르기를 “하늘이 못 백성을 낳으시니 物이 있으면 法則이 있다”고 하였다. “物”이란 사람의 일(人事)이요 “則”이란 天理이다. 가량이 入地間에 있음에 人事를 어기고 獨立할 수 없으니 어찌 먼저 下學의 實에 힘쓰지 않고 空蕩한 곳에 정신을 달려서 上근을 求할 수 있으랴. 天理는 人事에서 떠나지 않는다. 人事를 다하여 實踐과 理論(足目)이 갖추어 이르러 貫通의 極致에 까지 이르면 내마음에 있는 天理가 여기에서 渾全하게 되어 酬酢萬變이 左右로 本原과 부합되어 어느 것이나 나의 實用이 되지 않는 것이 없게된다. 그러므로 明道先生이 말하기를 道밖에 物이 없고 物밖에 道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아래로 人事를 배우는 것이 곧 위로 天理에 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⁸⁰⁾

李相殷 教授는 이것이 晦齋가 體得한 道學의 實用性이라고 지적한다. 그 實用이란 “戒慎恐懼”하는 心性의 修養으로 부터 夫婦, 兄弟, 父母, 等人 倫日用的 일과 齊家治國 平天下하는 事業에 이르기까지 이런 具體的인 일을 通하여 이 理를 具現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개 天下에는 性밖에 物이 없다. 사람과 物이 각각 物의 自然에 따르던 그 日用事物의 사이에 각각 當行之路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이 當行之路를 찾아서 그것을 들림없이 實踐하는 것이 道學이요 그것이 즉 實學이라고 하고 있다.⁸¹⁾

그리고 存養工夫에 대하여도 晦齋는 忘機堂이 “敬以直內로써 未發之前에 存養하고 無極之眞에 遊心하여 虛靈한 本體로 하여금 吾心の 主로 삼아야 한다”는 說을 批判하고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近思의 學을 하지 않고 空妙한데로 마음을 달리게 하는 것이니 그 害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⁸²⁾

79) 子思子曰惟天之命於穆不已又曰其爲物不貳其生物不測其所以不已不貳者果何物耶而是可謂之寂滅乎 (答忘機堂第一書).

80) 夫道只是人事之理耳離人事而求道未有不蹈於空虛之境而非吾儒之實學矣詩曰天生蒸民有物有則物皆人事也則者天理也人在天地之間不能違物而獨安得不先於下學之實務而馳神空蕩之地可以爲上達乎天理不離於人事人事之盡而足目俱到以臻於貫通之極則天理之在吾心者至此而渾全酬酢萬變左右逢原無非爲我之實用矣故明道先生曰道之外無物物之外無道又曰下學人事便是上達天理詎不信歟 (答忘機堂第一書).

81) 李相殷, “晦齋先生的 哲學思想”.

82) 李相殷教授는 第一書를 結論의으로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第一書에서 晦齋는 本體論과 修養論(存養)에 대하여 論辯하였다. 本體論에 있어서 漢輔는 太極을 “靈源의 獨立”으로보고 “無極”을 寂滅로 看做하고 無極而太極을 靈源의 終歸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晦齋가 이것은 “氣化”로써 理의 有無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것은 가장 適切한 評이다. 宋代理學이 나오기 前에는 漢代以後로 미개 太極을 氣로 보아왔던 만큼 漢輔도 그러한 從來의 見解를 踏襲하여 그것을 宋儒에서 말하는 “心”의 虛靈과 關聯시켜서 드디어 “靈源”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모양이나 이러한 “靈源”은 道教系統의 一般俗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思想이다. 대개 宗教信仰者

3) 答忘機堂第二書

위의 第一書에 대한 忘機堂의 答辭을 받고 晦齋는 이 第二書를 보냈다. 이 第二書에依하면 忘機堂은 晦齋의 論旨에 따라 無極위의 遊心이라는 二字를 버리고 “其體至寂”이란 말 밑에 “滅字”를 떼 내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多少의 字句의 修正은 하였으나 老釋의 色彩는 아직 남아 있다고 晦齋는 이 第二書에서 그런 點을 지적하고 있다.

忘機堂이 “虛，靈無極之眞”을 들어 虛無가 即寂滅이요 寂滅이 即虛無라고 하였는데 晦齋는 이것을 儒者의 말을 빌어서 異端의 說을 文飾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先儒는 이 녀字에 대하여 일찍 分析하여 말하기를 이쪽의 虛는 虛이면서 有(虛而有)이고 저쪽의 虛(老氏의 虛)는 虛이면서 無이다. 또 이쪽의 寂은 寂이면서 感하지만 저쪽의 寂釋氏의 寂은 寂이면서 滅이다. 그러면 彼此의 虛寂은 같지만 그 歸結은 絶異하여 眞實로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無極이라고 말한 것은 다만 이 理致의 妙한 것이 그림자도 베아리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을 形容한 것이고 저쪽에서 말하는 無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朱子는 이르기를 老子가 有無를 말한 것은 有無로써 둘로 하지만 周子가 有無를 말한 것은 有無로써 하나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忘機堂이 敬을 주장하고 마음을 保存하여 天理에 上達한다고 한것을 晦齋는 이말은 眞實로 좋지만 上達天理위에 下學人事의 四字가 빠졌으니 聖門의 敎와 다르다. 天理는 人事에서 떠나지 않으니 아래로 人事를 배우면 自然히 天理에 上達하는 것이다. 만약 下學의 工夫를 하지 않고 곧 上達하려고 하면 이것은 釋氏의 覺之說(頓悟한다는 說)이니 어찌 숨길 수 있으랴. 대개 人事는 形而下的 것이요 其事之理는 하늘의 이치(天之理)이니 形而上의 것이다. 이일(是事)을 배워서 그 理를 通하면 形而下的 것에 即하여 形而上의 것을 얻는 것이 되니 이것이 곧 上達의 境界이다. 이에 從事하여 오래 工夫를 쌓아서 貫通하게 되면 渾然의 極致에 도달할 수 있으며 窮神知化之妙도 또 이것에 即하여 馴致하는데 不過한 것이다.

孔子는 生而知之하는 聖人이지만 역시 下學에 말미암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道는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다. 사람이 道를 한다면 사람에서 먼 것을 찾는다면 道를 할 수 없게 된다(道不遠人人之爲道而遠人不可以爲道)고 말하였던 것이다. 하물며 孔子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랴. 지금 世上에 道를 하는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고 虛妙하여 가히 알 수 없는 領域에 빨리 나아갈려 하니 또한 그 迷惑함을 알겠다. 매저 窮理는 한갓 아

들의 本體論은 이러한 靈의 存在를 宇宙의 最終根源으로 삼으려고 한다. 漢輔도 그러한 例에 不外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런 靈의 存在라는 것은 氣에 不過한 것이요, 그 氣를 氣로서 存在하게 하는 所以의 理가 있어야 氣가 氣로서 存在하는 것이니 이 理가 即太極이라고 程朱哲學에서 말한다. 晦齋가 靈源을 氣라고 하고 靈源의 終歸蕪盡(마침내 사라져 없어짐)을 無極而太極으로 풀이하는 것을 가리켜 氣化로써 理의 有無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理와 氣의 混同을指摘한 것은 程朱哲學의 正統的 見解를 代表한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晦齋는 우리 나라 性理學發展에 있어서 큰 役割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指摘이 바로 漢代以來의 “氣”論의 本體觀으로 바뀌는 轉換點이 되기 때문이다.

는 것이 貴한 것이 아니라 이 이치 알고 또 모름지기 몸에 體驗하여 그 實을 밟아 德을 나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만약 알아내기만 하고 能히 위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窮理가 貴하다 할 것이 무엇이며 그 아는 바도 마침내 얻어 가지지 못하게 된다. 孔子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나는 안다하기만 中庸을 擇하여 한달도 지키기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君子는 日用事物사이에서 存省體驗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行을 돌아보고 行할 때는 반드시 말을 돌아 보아 敢히 한부로 大言壯談을 못하는 것이다.⁸³⁾

위와 같이 晦齋는 下學人事하여 上達天理하는 것이 聖門의 敎라는 것, 만일 下學工夫를 하지 않고 上達天理 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釋氏의 覺之說이 된다는 것, 窮理는 다만 아는 것만이 貴한 것이 아니라 理致를 알고 모름지기 몸에 體驗하여 그 實踐하여 進德하여 일한다고 하여 道學의 實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上達만 置重하고 下學을 輕視하는 態度가 옳지 못하며 儒家의 虛寂과 老佛의 虛寂이 달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는 것이다.

4) 答忘機堂第三書

晦齋의 第二書에 대하여 忘機堂은 또 答辯하였던 것 같은데 다시 이 第三書를 보냈다가 이 第三書에서 晦齋는 “來喻에 깃들된 바를 살피건데 비록 寂威의 說은 벗어난지 여러 해(有年)가 된다고 하였으나 寂威의 習은 依舊히 除去되지 아니하여 그 論說이 道理의 幽妙한 極致에 浮誇한 뿐 自身에 反省하여 道를 본뜨는 要諦에는 미치지 못하여 歸結은 曠蕩空虛한데로 돌아감을 쫓지 못한다”⁸⁴⁾ 하였다. 이를 研究한 바 있는 李相殷教授는 前引한 論文에서 “이 第三書에서 (晦齋가) 매우 重要的 見解를 말하였는데 그 말이 모두 自己의 말로서 自己의 體驗으로 깨달은 것을 말한 것이요 반드시 朱子의 說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고 “內容은 三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첫째는 道의 體(大體)와 道의 用(達道)의 「相須」를 말하여 動靜兩面에 있어서의 敬工夫를 말한 것이요. 둘째는 釋氏의 「幻妄」說에 대한 攻駁이요. 세째는 下學上達論에 대한 再強調”라고 하고 차례로 紹介하고 있는데⁸⁵⁾ 第一段에서는 “自得의 實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83) 孔子曰人皆曰予知譯乎中庸而不能菴月守然則非知之難此君子所以存省體驗於日用事物之際而言心願行行必願言不取容易大言者也(答忘機堂第二書).

84) 伏都來喻所陳雖云不帶寂威之說有年而寂威之習似依舊未除是其論浮於理幽妙之致而末及反躬體道之要不免爲曠蕩空虛之歸而(答忘機堂第三書).

85) 大本과 達道의 辨 一은 자오니 朱子가 이르기를 「道란 것은 日用事物의 當行之理로서 다 性의 德이요 心에 갖추어 있는 것이니 어느 物이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고 어느때 그렇지 아니한 때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古今の 道體를 論함이 이에 이르러 餘蘊이 없이 되었읍니다. 제가 이에 因하여 좀더 펴서 論해 보겠습니다. 대개 道의 大原은 天에서 나와 三極(天·地·人)사이 에 흠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릇 天地안에서는 어디를 가나 이 道의 流行이 아닌것이 없으며 어느 物이나 이 道의 體하는 바가 아닌것이 없읍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게로는 君臣, 父子, 夫婦, 長幼의 倫으로 부터 각계로는 動靜食息, 進退, 升降의 節과 一言, 一默, 一嘯, 一笑의 際에 이르기까지 각각 當然한 바가 있어서 잠기도 떠나지 못하며 毫釐도 差錯에 있어서 안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이 理의 妙기 아님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子思는 말하기를 「이 道는 크기로 말하면 天下가 실을 수 없고 작기로 말하면 天下에서 깨뜨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生民日用之常, 事物常行之理」란 것이 아니겠읍니까? 대개 그 用의 衆然한 것으로 因하여 보면 잘다 잘게 갈라지고 뜨게져서 그 要領을 얻기 어려운 것 같고 千差萬別이 되어 순해

고 하고 있다.

둘째는 釋氏의 幻妄에의 辯이다. 忘機堂은 또 “世人이 幻形을 잡고 堅實한 것으로 생각는 迷妄을 깨뜨리기 爲하여 寂滅을 말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晦齋는 이말을 批判한다.⁸⁶⁾

李杞殷 教授는 「晦齋先生の 哲學思想」 研究에서, “이것은 佛教의 萬法惟心の 主觀論

서 만들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所以然의 本體는 모두 天命의 渾然한 것으로서 나의 性이 되어 마음속에 갖추어 있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喜怒哀樂이 發하기 前에 있어서 이 마음의 眞은 寂然不動하니 이것이 곧 無極의 妙한 것이며 天下의 大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存養의 功을 加하여 大本을 세워 酬酌萬變의 主體가 되도록 해야 發함이 節에 申하여 「時措의 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처음 動할 때 그 幾微의 사이에 있어서 天理와 人欲이 毫忽之間에 서로 싸워 千里의 먼 距里로 틀려지게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더욱 敬慎을 加하기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君子는 항상 不睹不聞의 곳에서 戒懼하여 그 本然의 天을 保存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언제나 그러한 體를 온전하게 하고 또 幽獨한 속 幾微의 움직임에 더욱 省察의 功을 加하여 應事接物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差謬가 없이 어대어나 그러하게 함으로써 무슨 物에나 있지 않음이 없는 그 妙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張南軒의 이른바 「靜할 때 保存하여 動할 때의 근본할 바를 涵養하고 動할 때 살피서 靜할 때 保存할 바를 알아보아야 세어나갈 틈이 없이 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에 從事하여 조금도 間斷이 없으면 이 마음이 항상 밝아서 物欲의 가리움이 되지 아니하며 大本의 確立이 날로 더욱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幾微・酬應하는 사이에 一毫도 人欲의 섞임이 없이 純粹한 義理의 發로 되어 그 一心・一身으로 부터 萬事萬物에 이르기까지 處理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없고 行함이 언제나 어긋남이 없으면 達道의 行이 여기서 넓어지게 되고 下學의 功이 盡善盡美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大本達道」는 서로 기대어 떠나지 못하는 것이니 道를 體하는 工夫는 이에서 더 切實한 것이 없으므로 어느하나도 빼 수 없는 것입니다. 來教에 말씀하시기를 「敬함으로써 內를 굳게 하고 天의 明命을 돌보면 나의 마음이 堅定하여 변동이 없다고 하시니 이것은 勿論 存養을 말하는 것으로서 靜할 때의 工夫는 됩니다. 그러나 만약 下學의 힘씀을 除去하고 조금도 體驗 省察하는 일이 없다면 動할 때의 工夫는 夫及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道를 求하는 工夫에 있어서 疏濶不實하여 冥端空寂의 說로 홀려들어감을免치 못하는 것입니다. 업드려 살펴보면(尊伯께서) 日用酬酌의 사이에 人欲의 累가 없지 않았고 或喜怒哀樂의 際에 잘못하여 그 虛靈한 本體를 온전히 못한 點도 있는듯 하온데 이것이 「敬以直內」의 工夫는 약간 갖추었지만 「義以方外」의 工夫가 없었기 때문에 그 道를 體得함이 靜密치 못하여 或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옛적에 顏淵이 克己復禮의 條目을 물었을때 孔子께서 「非禮勿視・勿聽・勿言・勿動」하라고 하셨고 程子是 이어서 말하기를 「中으로부터 外에 應하고 外에서 制하여 그 中을 養하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聖門의 工夫가 비록 靜에 主하여 그 本을 세운다하나 또한 반드시 그 動處에서 깊이 省察을 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克己復禮를 하여 또 그 中心의 所在를 確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制하는 것은 그 中을 養하는 所以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밖에서 制하지 않고 그 中을 편안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前者에 말한 日用事物의 사이에 存省體驗하여 「말(言)이 行을 돌보고 行이 말을 돌보고」고 한것은 이것을 이른 것입니다. 中庸에 이르기를 「誠한 者는 힘쓰지 않아도 心에 들어맞고 생각지 않아도 얻어서 조용히 道에 들어맞으니 聖人이요 誠하려는 者는 善을 擇하여 固執하는 者이다」고 하였읍니다. 대개 地位가 이미 聖人에 이르렀으면 이러한 工夫는 다 不必要한 것이 되겠지만 「從容中道」의 境地에 이르지 못하면서 擇善・省察의 工夫를 모두 던지고 虛靈한 「誠」만 붙잡고 修爲를 加하지 않는다면 克己復禮를 어떻게 하며 酬酌萬變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工夫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譬해 말하자면 門에 나가지도 않고 千里를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발도 움직이지 않고 泰山을 오르겠다는 것과 같으니 그 不可能한 것은 必然한 것입니다.

- 86) “이 말은 매우 理에 害가 됩니다. 대개 사람이 이 形體를 가지는 것은 어느것이냐 天의 賦與가 아님이 없고 形이 賦與되던 거기에 理가 붙어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聖門의 가르침은 대양 容貌形色에 工夫를 加하여 天이 나에게 준 法則을 다하고 그 虛靈한 明德의 本體를 保守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人心惟危」의 境地에 흐른다고 하겠습니까? 孟子는 「形色을 天性이라 오직 聖人이라야 形을 踐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어찌 이것(形色)으로써 幻妄이라 하여 반드시 外相을 斷除하고 虛靈한 體를 지켜야 道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道는 形器에 머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形이 있으면 사람된 所以의 理가 있고 物이 形이 있으면 物이된 所以의 理가 있고 天地의 形이 있으면 天地가 된 所以의 理가 있고 日月의 形이 있으면 日月이 된 所以의 理가 있고 山川의 形이 있으면 山川이 된 所以의 理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形만 있고 그 道를 다하지 못하면 이것은 헛되이 形만 갖추고 그 形을 얻은 理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形器를 버리고 그 道를 求해서 무슨 道란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寂滅의 敎가 空虛・誕謾한 境地에 빠져 工夫를 어기고 理를 滅한 罪를 범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생각하옵건대 尊伯께서는 이 異說에 대하여 그 虛誕(거짓)함을 이미 알고 계신듯 하온데 아직도 舊習을 다 버리고 正道로 돌아오지 못하여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의 思想에 대한 儒學의 實在論의 思想 및 그 「主客並立・體用一元・道器不離・本末並學」 思想으로서의 抗辯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이런 點에 있어서 晦齋는 어디까지나 常識의 世界, 經驗的 世界를 尊重하는 原始儒敎의인 色彩를 新儒學인 道學속에 살리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理論이 매우 條理整然하고 이런 見解는 다음 下學上達論에서 더욱 드러난다”고 하고 있다.

세째는 下學上達의 辯이다.

忘機堂이 “下學上達은 童蒙初學의 士를 指示하는 말이지 豪傑之士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는데 대해서 晦齋는 “生民以來로 生而知之하는 聖人으로서 孔子에서 더 나은 사람이 없지마는 孔子도 下學에 힘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 말쑤에 “나는 열 다섯에 學에 뜻을 두었고 50에 天命을 알았다”하졌고 또 “나처럼 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졌으니 “그러면 孔子는 豪傑之士가 못되고 그 한일을 본받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냐고 한다. 만약 孔子의 말쑤는 學者를 勸免하기 爲한 것이요 그 自身은 반드시 그렇게 않았다고 한다면 孔子가 親히 한 일은 孔子가 老聊에게 禮를 물었고 郊子에게 官을 물었고 太廟에 들어가 每事를 물었으니 이것이 下學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은 孔子가 童蒙이 아닐때 일이다. 매저 生來의 聖人으로서 年齡도 童蒙이 아닌데도 오히려 下學을 아니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孔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문득 下學을 頓除하고 힘쓰지 않아가지고 天理를 上達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는 分明히 釋氏의 頓悟의 가르침이니 어찌 그것을 그대로 충상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李相殷 教授는 위의 下學上達의 辯論은 朱子當時의 陸象山과 朱子와의 尊德性・道問學의 論辯을 彷彿케 한다고 하고 그때 陸象山은 “先立乎其大者”를 重要視하여 大本을 세우는데 힘쓰기 때문에 中庸에서 말하는 “尊德性”面을 매우 強調하면서 朱子와 그 門人들의 格物・窮理라는 致知의 일—즉 中庸에 말하는 “道問學”面을 “支離事業”이라 하여 낮추어 評價하는 態度를 보였다는 것이다. 朱子は 그것을 가리켜 어려운 것은 避하고 쉬운것을 글라서 利得을 보며 自己滿足에 빠기는 學問이라 하고 “本”만 理會하고 末을 理會하기 아니하여 時變에 應할 수 없는 無用之物이 되는 學問이라고 評하였다고 하고 이제 晦齋의 評도 이러한 精神에서 上達만 힘쓰고 下學을 輕視하는 態度를 非難한 것이라고 한다.

5) 答忘機堂 第四書

위의 晦齋 第三書에 대하여 忘機堂은 答辯을 보내왔다. 그 答辯에서 寂滅二字를 버리고 下學人事의 工夫를 받아들인 것 같다. 따라서 忘機堂은 自己의 本來主張을 修正했던 것 같다. 그러나 晦齋는 아직도 “그 辭意之間에 조금 病痛이 있다”고 보고 또 忘機堂이 答書에서 새로提起한 “物我無間”이라 한 말에 對하여 “依然히 虛空의 敎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 第四書를 보낸 것이다.

忘機堂 衣網之說 곧 “옷은 반드시 깃(領)이 있어야 여러자락(裔)이 거기에 쫓고 그물(網)은 반드시 버리(綱)가 있어야 萬目이 펼쳐진다”는 말은 옳지만 깃만 있고 자락이 없거나 버리만 있고 눈이 없어서는 옷이 되고 그물이 될 수 없으며 버리라 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天下의 理는 體와 用이 서로 기다리고(相須) 動과 靜이 서로 養(交養)하고 안(內)에만 오로지(專)하고 밖에서 緝察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聖門의 教는 主敬하여 그 本을 세우고 窮行하게 되는데 敬이란 세가기에 貫通하여 그 것으로써 成始 成終하는 것이다. 때문에 主敬은 안을 專一하게 하여 써 그밖을 制御하고 그밖을 가지런히(齊)하여 써 그 안을 養한다. 안으로는 둘로 함이 없고(一) 오로지(專)하여(無適) 寂然不動하여 酬酢萬變의 主體가 되고 밖으로는 儼然·肅然하고 深省·密察하여 中心의 存한 바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래되면 靜虛·動直하고 中一·外融하여 不勉而中·不思而得 從容中道하는 極致에 까지 馴致하게 되니 이 두가지 工夫는 어느 하나도 偏廢할 수 없는 것이 明白하다. 程子 이르기를 “中으로 말미암아 밖을 應하고 밖에서 制裁함은 써 그 中을 養하는 所以요 顏淵이 孔子의 四物을 듣고 이 말에 따라 하겠다고 한 것은 聖에 나아가는 所以이다. 뒤에 聖人을 배우는 者로서 마땅히 服膺하여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本體工夫는 勿論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지만 省察工夫도 또 道를 體得하는데 절실히 요구된다.

사람의 形體는 물론 먼저 뼈대가 있고 뒤에 살과 피부가 있어서 기름을 채운다. 그러나 만약 뼈대만 얻고 피부를 배겨 버린다면 어찌 사람의 몸등이가 되겠느냐고 하여 本體의 靜養工夫와 應用的 動察工夫를 어느 하나도 偏廢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忘機堂은 “먼저 그 體를 세우고 다음에 아래로 人事를 배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晦齋는 下學人事할 때는 마땅히 항상 主敬存心하여야 하는데 어찌 人事를 斷除하고 그 마음(心)만 홀로 지켜서 반드시 그 體를 세운 다음에야 下學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⁸⁷⁾ 忘機堂이 “그 體가 서면 用萬變이 純粹하게 一理의 正으로 되어 縱橫으로 自得하게 된다”고 한 것은 진실로 聖經賢傳의 趣旨에 어긋남이 없지만 그 이른바 “純粹히 一理의 正으로 되어 縱橫으로 自得한다”는 것은 聖人의 從客中道の 極致이니 이것은 體가 세워진 뒤에도 많은 工夫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갑자기 여기에 이르는 쉽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人事를 떠나서 마음(心)만 붙잡고 體를 세운다는 것은 올바른 下學人事의 工夫가 못되는 것이며 설령 觀念적으로 “純乎一理하여 縱橫自得”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從容中道하는 聖人이 된 다음의 일이지 聖人也 되기 前에 下學의 工夫도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忘機堂이 萬物一體說 곧 “仁者는 天理의 公에 純粹하여 人欲의 私가 없으므로 天

87) 來教又曰先立其體然後下學人事此語亦似未當下學人事時固當常常主敬存心安有斷除人事獨守其心必立其體然後始可事於下學乎(答忘機堂第四書).

地萬物を一體로 삼는다”를 말하였던 것 같다. 이에 晦齋는 “그러나一體속에는 親疏・遠近・是非・好惡의 分이 있어서 어지럽힐 수 없다. 때문에 孔子는 「仁者는 人也라」하였고⁸⁸⁾ 孟子는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였다. 孔子家語에는 오직 仁人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할 줄 난다고 하였다고 하고 “어로 `늘하던 仁者는 비록 萬物を一體로 감지한 그 是非・好惡의 公도 또한 그 가운데서 行하여 없을 수 없는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舜은 大聖人이라 진실로 사이(間)를 두고 行狀에 拘牽하는 者가 아니지만, , 그러나 사람에서 取하여 善을 하고 自己主見을 버리고 念을 따랐으니 舜도 取舍의 別이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찌 마음의 틈새(無間)가 없다고 한 然히 物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다시 彼此・取舍・好惡・是非를 다 떨어버려야만 一相同仁이라 할 수 있는나”고 하였다.

이 萬物一體說은 李相殷 教授에 依하던 程明道나 朱子가 다하는 말이며 陸象山・王陽明에 이르러 더욱 즐겨 말하는 바이며 晦齋는 이 點에 있어서도 一偏에 치우치는 것을 警戒하고 “理一”과 同時에 “分殊”의 面을 等間히 해서 안된다고 한 것이다.

退溪는 「晦齋李先生行狀」에서 이 無極太極辯이 “儒道의 本源을 밝히고 異端의 邪說을 물리치고 精微에 貫徹하고 上下를 洞徹하여 粹然히 한결같이 正道의 소리로서 그 뜻을 玩味해 보면 宋代諸儒의 緒餘도 더욱 考亭에서 얻은 바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李教授는 結語에서 晦齋는 朱子學의 正脈을 繼承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 그 正脈이란 理氣二元論의인 宇宙觀・人生觀에 根據하여 道義의 主體인 人間의 自我認識(盡心知性)을 道의 體得과 實踐을 통해서 해야하며 道의 體得을 爲해서는 居敬과 窮理兩面の 並行的인 工夫가 必要하다는 思想이다.

그런데 晦齋는 道의 體得에 있어서 먼저 올바른 宇宙觀・人生觀을 가져야하고 올바른 宇宙觀・人生觀을 가지려면 우선 周濂溪의 太極圖說에서 말한 無極而太極의 理論을 올바르게 理解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道의 大原은 天에서 나온 것이고 道의 大原으로서의 天은 곧 無極而太極이라고 晦齋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晦齋와 忘機堂과의 辯論을 朱子의 象山과의 辯論에 比하여 內容이 훨씬 달라졌다. 여기서는 有・無의 問題 形上・形下의 問題 理氣의 問題나 極至・標準의 問題같은 것은 言及은 되었지만 論辯의 中心點은 아니었다. 여기서 中心이 된것은 主로 道體의 認識 體得을 어떻게 道의 實踐을 어떻게 해야 마르 하는 것이냐 하는 問題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 體得의 方法・實踐의 方法인 仁・義의 問題, 下學・上進의 問題까지 論及되었다.⁸⁹⁾

88) 仁者純乎天理之公而無一毫人欲之私故能以天地萬物爲一體然一體之中親疏遠近是非好惡之分自不可亂故孔子曰仁者人也(答呂伯恭第四書).

89) 道體의 認識이 있어서 忘機堂은 無極之眞을 吾心의 主로 삼아 그것을 存養하는 것이 즉 道體를 確立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無極之眞은 終歸斯盡하는 靈源이라고 하여 그것은 寂滅의 性格을 띠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見解는 結局老莊의 虛無나 佛教의 空寂에 가까운 見解가 되기 때문에 晦齋는 儒敎의 道學의 立場에서 이를 否定하였다. 그 否定의 論理는 理

이와 같은 哲學思想은 宇宙觀과 人生觀을 規定하고 修齋治平의 道學乃至聖學政治思想을 構成케 하는 것이다.

2. 一綱十目疏

政治의 要諦는 知仁知人이라 하거니와 先生은 安老의 사람님을 옮겨 알았고⁹⁰⁾ 또 처음에 先生이 慶尙道에 있을때 都事 李天啓가 持平벼슬로서 大闕에 불리어 갈 적에 先生에게 請하기를 “듣자오니 지금 政丞을 뽑는데 衆人의 評判이 모두 李芑에게 돌아간단하니 어떻습니까”하거늘 先生은 “그 사람은 마음이 陰險하니 政丞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하였다. 조금 있다가 李芑는 과연 政丞이 되었으나 兩司에서 그를 論劾하여 벼슬을 그만두게 하여 李芑는 그 이유를 듣고 깊은 憾情을 품었다고 한다.⁹¹⁾

先生은 政治가 어떤 것이며 政治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聖經賢傳을 통해서 知悉하였을 뿐만아니라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폭넓고 두루 上下의 官職을 歷任하여 政治의 實際와 實際에 있어서 政治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知悉하였다고 하겠다.⁹²⁾

氣를 區別하는 理優位の 理論이다. 즉 理는 氣를 生하게 하는 根源으로서 그것은 氣속에 內在해 있으면서 또 氣를 超越한다고 보는것이 理優位の 理論이다. 이 理論에 根據하여 晦齋는 忘機堂이 말하는 無極之眞이니 靈源이니 하는 것은 氣라고 보고 終歸盡盡이니 寂滅이니 하는 것은 氣化의 現象을 말한 것에 不過하다고 본다. 그러나 氣는 形而下的 것이다. 그 氣가 氣되게 하는 所以 氣化의 現象이 생기게 하는 所以는 따로 있으니 이것이 즉 理요 理는 形而上的 것이니 氣는 盡盡·寂滅이 있지만 理는 永遠히 常存한다. 여기서 虛無·寂滅이 否定되는 것이라고 晦齋는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無에서 有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즉 道體——理體——를 有無·兩面으로 形容하는 말에 不過하다. 理體의 無形·無象한 것으로 말해서 無極이라 하고 理體가 萬化의 根源이요 樞紐이 된다고 하여 太極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形而上的 理는 氣를 超越해서 永遠히 常存하는 同時에 또한 氣속에 內存하여 氣와 함께 있으면서 이 現象 世界——形而下的 世界——의 森羅萬象, 千變萬化를 일으킨다. 이것을 天理의 流行이라 한다. 이 流行에서 人物은 氣以成形하고 理亦賦畀하면서 태어나서 各自自己의 性을 가거니 이것이 所謂 有物有則의 則이요 「民之秉彝」의 秉彝이다. 이 人·物의 性으로서 주어진 理——즉 氣속에 內在해 있는 理를 分殊의 理라 하고 氣를 超越하여 永遠 常存하는 理를 「理一」의 理라 한다. 이 分殊의 理가 個個의 事物에 있어서 그것의 所以 然之則과 所當然之理가 된다. 所以 然之則은 自然 世界의 物理的 法則이 되고 所當然之理는 人文世界의 道德的 當爲가 된다. 人間이 人間된 所以를 自覺하면 이 所當然之理를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實踐해야 할 義務를 느낀다. 여기서 이 所當然之理는 人間에 있어서 當行之路가 된다. 中庸에 말한 率性之謂道라 한 道는 이 事物當行之路를 말하는 것이다. 이 事物當行之路로서의 道와 道之大原出於天하는 그 大原으로서의 道도亦是分殊의 道와 「理一」道의 關係에 不過한 것이다. 道學에 있어서 道의 體得이란 것은 이 分殊의 道를 하나하나 眞知實踐함으로써 理一의 道——즉 道의 大原의 體認에까지 이르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면 分殊의 道를 통해서 大原의 道를 體得할 수 있다는 그 理論의 根據는 무엇인가. 그것은 分殊의 道는 나의 性에서 부터 나온것이요, 나의 性은 天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窮理盡性以至於命이라 하고 盡其心者·知其性·知其性則知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分殊의 道를 體得하는 것을 下學人事라 한다면 大原의 道를 體得하는 것을 上達天理라고 할 수 있다. 上達天理하면 그것이 즉 知天命이다. 學問의 最高目標은 知天知命에 있다. 이제 晦齋와 忘機堂의 爭點은 이 知天知命의 目標에 到達하는 方法上 差異에 있다. 忘機堂에 있어서는 存心·養性하는 存養方法으로 極以直內的工夫를 통해서 直接上達天理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晦齋에 있어서는 存養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存養과 同時에 隨事省察하는 省察의 方法을 兼해야 하고 敬以直內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義以方外的工夫까지 兼해야 한다하며 안으로 直接天理를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虛誕·曠蕩에 빠지기 쉬우니 반드시 밖으로 下學人事에 힘써 個個의 事物 속에 들어 있는 具體的인 天理를 窮究하여 오랜 體驗을 통해 融會貫通하게 된 때 비로소 大原의 道體를 體得할 수 있고 비로소 참다운 知天·知命이 된다는 것이다. (李相殿, 晦齋先生의 哲學思想)

90) 晦齋李先生行狀 參照.

91) 初先生在慶尙日都事李天啓以持平召赴闕請於先生曰聞今當卜相物論皆歸於李芑何如先生曰其人陰險不可以置相位已而李果相而兩司劾罷之李聞其故深仰之(晦齋李先生行狀).

92) 李載浩教授는 「晦齋先生文集」 「大學章句補遺」 「續大學或問」 「中庸九經衍義」 중에서 특히 先生의 哲學面과 經世面에 關係되는 學問思想의 重要한 部分을 自身이 뽑아 번역한 「國譯晦齋全

一綱十目疏는 先生이 49歲되는 中宗 34年 己亥(1539年) 應旨上疏하였는데 中宗은 “옛날의 眞德秀도 이에 능가하기 못할 것이다”고 讚嘆하고 表裏衣一襲을 下賜하여 嘉善大夫에 特附을 命하고 敎諭를 내더 褒彰하였다고 한다.

先生은 여기서 “歷史를 상고하건대 예로부터 帝王들이 근심하고 부기된하여 글다스려 지기를 원하는 이는 많았으나 能히 終始토록 德을 온건히 하여 간 다스려진 效果를 거둔이는 대개 적었다”고 하고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갈 다스려지기를 願하면서 갈 다스리는 其要를 알지 못한데 있었다”고 한다. 갈 다스림을 願하여 그 要만 얻는다면 勞心焦思하여 밤낮으로 근심하여도 마침내 無益할 것이다. 黃帝堯舜의 垂衣裳而天下治는 또한 다스리는 뜻을 얻었을 뿐이며 後世人主가 或 程書傳餐이 부기된하고 수고롭기 아닌 것이 아니지만 마침내 能히 善治를 이르기 國祚를 延長하기 못한 것은 爲治之要를 얻지 못하고 한갓 細務에만 精力을 소비한 까닭이라고 한다.

대개 帝王의 爲治之道는 至簡하여 번거롭기 아니하고 지극히 쉬워서 어려운 것이 없으니 天下가 비록 크더라도 다스림은 마음에 있으니 至簡이 아닌가. 四海가 비록 멀지 마는 다스림은 道에 있으니 지극히 쉬운 것이 아닌가.

대개 마음이란 몸에 主가 되어 萬化가 달미암아 出하는 바이며 道란 마음에 根本하여 天下古今의 모두가 달미암는 것이니 진실로 能히 이 마음을 밝혀서 萬化의 根原을 밝게 하고 이 道를 體得하여 萬民의 飢飢를 세운다면 能히 參天地贊化育하는 功을 이루어 天地가 스스로 位焉하고 萬物이 스스로 育焉하여 기운을 和하지 않음이 없고 瑞慶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고 易에 이르기를 “易簡而天下之理得矣”이라 하였으니 天下之理를 얻어서 天位와 地位의 가운데 人의 位를 이룬다”⁹³⁾는 것은 이를 이룬 것이라는 것이다.

대개 爲治之要是 그 버리(綱)가 하나이고 그 目이 열 개 있다. 버리(綱)란 體이니 政治의 근본이 나오고 目은 用이니 政治의 法을 말한다. 一綱이란 君主의 心術이다. 庶政의 繁雜과 萬民의 衆의 治亂休戚의 기틀은 人主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人主의 마음이 나쁘면 萬事가 다스려지고 人心이 順하여 和氣가 이르게 되고 人主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萬事가 背戾되고 人心이 順하지 못하여 戾氣가 올 것이니 이것은 理致의 必然이다.

옛적 聖人이 在位하였을 때에 하늘을 본받아 政治를 하게 되니 마음이 正大光明하여 天理의 公에 순수하고 人欲의 累가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隱微한데서 부터 顯著한 데로 이르게 되고 안에서 밖으로 미치게 되어 맑고 환하여 私欲邪心의 가림이 없었으므로

書에서 “先王의 基本思想은 哲學面보다 經世面에 置重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고 하였다. 「國譯晦齋全書」解題, 李佑成教授는 “李晦齋先生의 歷史的 位置와 그 經世思想”의 結言에서 “先王의 經世思想이 國家社會의 基本問題를 提示하면서 同胞의 慘淡한 現狀과 祖國의 不安한 將來에 關하여 얼마나 眞切하게 그 解決策 對策을 講究하고 또 主張해 왔던가에 對해서는 지극히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기 못한것 같다”고 하고 있다. 「國譯晦齋全書」揭載研究論文.

93) 蓋帝爲治之道至簡而不煩至易而不難天下雖大治之在心非至簡乎四海雖遠治之在道非至易乎, 夫王者主於身而萬化之所由出也, 道者本於心而天下古今之所共由也誠能明此心而清萬化之源體此道而立萬民之極則可以成參贊之功而天地自位萬物自育氣無不和而瑞慶至矣易曰易簡而天下之理得. (「一綱十目疏」)

紀綱이 위에서 서고 敎化가 아래에서 밝아졌다. 法이 서서 侵撓의 근심이 없고 令이 내릴 때 阿私의 실수가 없고 賢人을 登用하고 邪人을 退黜하는 것이 진실로 衆人의 心情에 滿足되고 賞善罪惡도 한결같이 公議에 따라 하게 되어 敢히 조그마한 私意도 介入시키지 않았으며 다만 虛明한 心地가 廓然히 大公하고 儼然히 至正하여 泰然히 그 無事한 마를 실행하므로써 쉽게 百官衆庶의 成功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니 내가 달한 바 “易簡의 道”라고 하는 것 이와 같다. 만약 혹서 이와 反對로 人欲私意의 侵亂한 바 되어 公平大한 體를 잃게되면 政治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다음 몇가지를 들고 있다.

① 偏黨지고 反側, 곧 두 마음(二心)을 가지고 正道를 따르기 않게 된다.

② 臆闇 猜嫌이 진실로 날마다 마음에 擾擾하고

③ 奸僞, 讒惡, 叢脞, 眩瞶가 또 장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人君의 心術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心術을 바로잡는 要는 : ① 반드시 學問을 通하여 얻게 된다.

대개 本心의 善은 그 體가 매우 微弱한데 物欲의 攻擊은 끝이 없으므로 舜임금은 “人心惟危道心惟微”라는 警戒가 있었고 孔子는 “克己復禮”라는 敎訓이 있었다. 人主가 崇高한 位에 處하여 窮理의 學力과 存養省察의 功이 한번이라도 間斷이 있으면 그 心術을 바로 잡고 萬事의 綱領을 세울 수 없다.⁹⁴⁾

先儒는 말하기를 ㉞ “오직 學問만이 이 마음을 기를 수 있고 ㉟ 敬만이 이 마음을 存心할 수 있고 ㊱ 君子를 親近히 하는 것만이 이 마음을 維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개 義理와 物欲은 서로 消長한다. 學問에 뜻이篤實하면 날로 聖賢과 더불어 徒弟가 되어 自得의 樂이 있고 敬으로써 持身하면 凜然히 神明이 在上하는 것같이 非違邪僻의 侵擾가 없을 것이고 賢人君子를 親近하는 때가 많으면 警戒하는 말을 날마다 듣게 되므로써 諂邪하는 말이 능히 들어오기 못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그 힘을 이룬다면 君主의 마음이 湛然히 맑은 햇빛과 맑은 거울처럼 되어 義理가 주가 되고 物欲이 能히 侵奪하기 못할 것이다.

대개 經筵은 君主의 講學하는 곳이며 賢士大夫를 接하는 곳이며 敬은 또 動靜을 貫通하고 内外를 融合하여 天德에 上達하는 것이다.

그런데 學問을 통하여 心術을 바로잡는 要를 얻게된다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性格의 學問일까.

堯舜의 道에 뜻을 두고 三代以上の 聖經賢傳을 根本으로 삼고 末世에 와서 編輯된 卷帙이 繁雜하여 쉽사리 다 읽을 수 없는 書籍은 制度事物의 繁細한 데는 상세하지만 聖人의 明誠의 本旨와 精一의 要訣에 이르러서는 未備하니 左右에 두고 清閑할 때에 閱覽하여 古今의 制依規模의 得失을 考究하는 것이 좋고 經筵에서 精神을 반드시 專一하여

94) 正心術之要又必由學而得矣蓋本心之善其體甚微而物欲之攻不勝其衆故大舜有危微之戒孔子有克復之訓人主處崇高之位窮理之力存省之功一有間斷則又何以正其心術而立萬事之綱乎(「一綱十目疏」).

講究할 必要가 없다고 한다. 唐虞三代는 어찌 이전 書籍이 있었겠느냐 心學뿐이었다. 한 가지 理로서 萬事를 貫通할 수 있고 一心으로서 萬化를 統領할 수 있는 것이니 帝王의 學은 窮理正心할 뿐이다.⁹⁵⁾ 窮理正心하던 질로 修身正家되고 治國平天下에 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末流에 涉獵하고 本原의 功力에만 專心하고 帝王의 學에 潛心하고 精一の 功에 加意하여 날마다 儒臣을 접촉하여 精微한 部分을 講明究하되 반드시 敬으로써 主로 하고 怠忽間斷의 弊를 없애면 全體가 이에 서게 되고 大用이 이에 行하게 된다.

또이런 聖學의 始初와 終末을 이룬다. 易에 달하기를 “天行이 健하니 君子 以하야 自彊不息하나라”고 하였고 또 달하기를 “君子 終日乾乾하야 夕惕若하면 厲하나 无咎 ㄹ리라”하였으니 所謂 日乾夕惕이라는 것은 항상 敬畏하는 마음을 가지고 自彊不息하는 것이다. 自彊不息하여 嫌이 없는(無息)데에 이르면 하늘에 合하는 것이니 人主의 德이 하늘과 合하고 마음이 하늘과 하나가 되면 天心이 不豫하여 災變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이치는 없다. 그러므로 程子는 敬의 功效를 달하기를 “聰明睿智”가 모두 여기서 나오므로 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上帝를 제사지낸다”⁹⁶⁾고 하였다.

이와 같이 政治의 要는 綱이 하나 있고 그 目이 열 개 있는데 綱은 體이니 出治之本이며 目은 用이니 制治之法이다. 綱은 君主의 心術이니 心之德이 出治之本이 된다. 天德과 合하여야 한다. 易乾卦 象辭에 달하기를 “天行이 健하니 君子以하야 自彊不息하나라”고 하였고 또 “君子 終日乾乾하야 夕惕若하면 厲하나 无咎 ㄹ리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敬工夫를 쉬임없이하야 항상 敬畏하는 마음을 가지고 自彊不息하는 것이다. 自彊不息하여 嫌이없는데에 이르면 하늘과 合한 것이다. 易乾卦五爻文言에 與天地合其德한다고 하고 있다.

열 가지 條目도 心術의 緒餘이며 爲治의 切務가 아닌 것이 없다. 其一은 嚴家政이다. 易에 이르기를 “王格有家勿恤吉”이 하고 또 “有孚威如終吉”하리라 하였는데 이를 註釋하기를 “王者의 道는 修身으로써 齊家하여 집이 바르면 天下가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옛부터 聖王은 自己 몸을 공경하여 집을 바로 잡는 것을 根本을 삼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家道가 이미 지극하면 근심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天下는 다스려졌던 것이다. 매저 正家하는 道는 内外의 限定을 엄격히 하고 尊卑의 名分을 定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없다. 男子는 밖에서 定位하고 女子는 안에서 定位하여 妻는 위에서 體貌를 整齊하고 妾은 아래서 뜻을 받들어서 夫婦의 別이 엄격하고 嫡庶의 分이 定한 것은 家の 整齊된 것이며 有德한 말을 採用하고 聲色을 경계하며 彫管으로 女史가 記事하고 晏朝에 規箴이 있으며 밖의 말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의 말이 밖에 나오지 않으며

95) 唐虞三代之世豈有此書心學而已矣一理可以貫萬事一心可以統萬化帝王之學窮理正心而已矣 (「一綱十目疏」).

96) 自彊不息而至於無息則合乎天矣, 人主德合於天心一於天而天心之不豫災變之不消無是理也故程子論敬之功效曰聰明睿智皆由是出以此事天享帝 (一綱十目疏).

賂物이 이르지 못하고 請托이 행하지 않는 것은 집의 整齊된 것이다.

대개 閨門內에는 慈愛가 지나치면 엄격하지 못하고 恩惠가 지나치면 義理를 가리게 되는 까닭에 집의 근심은 항상 禮法이 서지 않고 慢瀆이 발생하는데 있다. 진실로 마음에 孚信이 없고 外貌에 威嚴이 없으면 혹시 情愛의 私에 빠져 能히 스스로 克己하기 아니하면 어찌 宮壺를 바로잡고 請托을 杜絶하고 姻戚을 檢制하여 禍亂의 싹을 막을 수 있으랴.

대저 孚信이라는 것은 人心을 感動시키는 것이고 威嚴이라는 것은 人心을 肅勵하게 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가 並行하므로서 家道가 바르게 된다. 그러나 所謂 威嚴이란 것도 또한 그 自身을 먼저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一動一靜을 敢히 구차스럽게 하지 않고 一嘖, 一笑를 敢히 輕忽히 하지 않으면 人心이 敬畏하고 家道가 自肅되어 嘻嘻하여 家節을 잃지 않는다. 上下가 질서가 있고 内外가 區別이 截然할 것이니 어찌 一人이 私私를 믿고 典常을 錯亂시키며 賄賂를 收納하여 朝政을 紊亂시키는 자가 있으랴. 그러므로 威嚴을 가지면 吉하다는 말은 自身을 反省하는 것을 이룬 것이고 自身을 反省하지 않고 能히 그 집을 바로 잡을 수 없다⁹⁷⁾고 하여 易의 家人卦의 理致를 衍義한 思想임을 알 수 있다. 其二是 “養國本” 곧 世子를 輔養하는 것이다. 輔養하는 道는 書史를 涉獵하고 古書를 談論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要는 涵養薰陶의 얻음이 그 道에 있다. 옛날 明王은 太子를 教養함에,

- ① 敦良方正하고 學術德行이 있는 선비를 가려서 輔導를 맡기고,
- ② 宮人, 內臣까지도 아울러 重厚小心한 사람을 選擇하여 保護토록 하고,
- ③ 그 左右前後에 正人아닌 사람이 없게 하고 ④ 出入起居를 正道아님이 없게 하며 ⑤ 淺俗한 말을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⑥ 侈靡한 物件을 눈에 띄지 못하게 하였으니 德性을 輔養하고 身體를 保護하는 것이 이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대저 學問하는 道는 스스로 本末이 있으니 그 本을 먼저하고 그 末을 뒤에 하는 것이 進德의 規이라. 帝王의 心法과 聖賢의 謨訓이 經傳에 있어 해와 별(日星)처럼 환하게 밝으니 마땅히 潛心熟講하고 優潛玩味하여 다만 그 文辭만 誦讀할 뿐이 아니라 그 理致를 반드시 解得하여야 하고 한갓 理致를 알 뿐만 아니라 그 實踐이 있어야 한다. 人倫을 살피고 事物에 밝아서 極其所止하고 盡心知性하여 天理에 通達하는 것이 學問의 本이며 書史를 널리 涉獵하여 古書를 通達하고 世變을 상고하는 것은 特히 窮理의 一端이며 學問의 本務는 아니다. 대개 마음이 道에 通한 然後에 歷史를 보아야 古人의 是非得失을 한번 보고도 눈속에 환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道에 通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史籍을 遍閱코저 하면 한갓 汗漫하여 功이 없고 혹시 是非邪正의 歸結에 眩惑되어 그 取舍할 마를 알지 못할까 두렵다.

人主의 學問은 마땅히 二帝三王으로써 法을 삼을 것이니 三代 以上에는 어느 歷史를

97) 威如之吉反身之謂不能反身而能正其家者未之有也 「一綱十目疏」 其一條.

임었으랴. 다만 心學을 공부하였을 뿐이다. 後世에 와서는 비록 歷史보는 것을 廢止할 수는 없지마는 그 本末先後의 차례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其三은 正朝廷이라.

王者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朝廷을 바르게 하고 朝廷을 바르게 하여 百官을 바르게 하고 百官을 바르게 하여 萬民을 바르게 하고 萬民을 바르게 해서 四方을 바르게 한다.⁹⁸⁾

대저 朝廷이라는 것은 四方의 本原이요 王化의 始發하는 곳이니 本原이 淸明하면 비록 末流가 混濁되고지 하여도 될 수 없다.

朝廷을 바르게 하는 그 要가 둘 있다.

① 먼기 紀綱이 있어서 가지런하고,

② 또 風節이 있어서 떨친 然後에 能히 上下를 베풀어 다스리고 人道를 整齊하여 頽墮 委靡한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

대저 風節이라는 것은 公道가 달미암아 행하는 바이며 直道가 달미암아 伸張하는 바이다. 公道가 行하지 않고 直道가 伸張하지 않으면 紀綱이 설 수 없으며 紀綱이 서지 못하면 朝廷이 어찌 바르게 될 수 있으랴. 그러나 紀綱과 風節이 서는 것은 人主의 心術에 달려 있다. 三公이 道를 의논하고 六卿은 職을 分掌하며 侍從과 臺諫이 그 사이에서 論思糾察하게 되었으니 人主는 大公至正한 마음으로 위에서 攄攝하여 그是非를 分辨하여 裁斷하고 그 賢邪를 살펴서 進退시키되 先入觀을 主로 하여 偏聽獨任하는 失策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嬖幸에 親昵하여 兼臨博愛하는 公正을 잃어서는 안된다.⁹⁹⁾ 오직 正道에 있는데는 疑心없이 決斷하여 奸臣이 能히 蠱惑하지 못하게 하고 佞人이 能히 마음을 移易하지 못하게 하여 黜陟 刑賞을 한결 같이 公議있는 바에 따라 處理하여 偏私의 蔽가 없어야 公道가 行하고 直道가 伸張되어 紀綱이 서 朝廷이 바르게 되고 内外遠近이 敢히 正道에 整一된다. 人主의 마음이 惑 能히 公平正大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偏黨의 私心이 있으면 奸邪, 諂佞, 姻婭, 嬖幸이 地位를 엿보고 權勢에 攀緣하지 않는 者가 없으므로 恩寵을 希望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 위로는 人主의 聰明을 眩惑시키고 아래로는 人主의 威福을 竊弄할 것이니 비록 忠正한 言論이 있더라도 위에 納得되지 않음으로 士君子의 氣節이 沮喪된다.

其四是 慎用舍

人材를 쓰고 버리는 것을 慎重히 해야한다. 伊尹은 말하기를 “任官은 오직 賢材로 左右는 오직 其人으로 하고 臣은 德으로 임금을 輔弼하고 백성을 平安하게 하는 것이니 人材 任用을 어렵게 여기고 삼가하여 오직 和하고 如一해야 한다”고 하였다.

孟子는 “左右 모두가 賢하다 하여도 안되며 諸大夫가 모두 賢하다 하여도 그말을 믿어서는 안되며 國人이 모두 賢하다고 말한 然後에 살펴서 賢한 것을 본 뒤에야 쓴다”고

98) 王者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正萬民以正四方 (「一綱十目疏」, 其三).

99) 三公論道六卿分職而侍從臺諫思糾察於其間人主以大公至正之心攄攝於上辨其是非而裁斷芻察其賢邪而進退之母主先入而有偏聽獨任之失母昵嬖幸而失兼臨博愛之公 (其三曰正朝廷).

하였으며 “左右 모두가 안된다고 하여도 듣지 말며 諸大夫가 안된다하여도 그 말을 듣지 말며 國人 모두가 안된다고 한 然後에 살펴서 안된 것을 본 然後에 버린다”고 하였다.

대개 人材를 쓰고 버리는 것의 成功과 失敗는 國家의 安危가 달려 있으니 옛 明王은 이것을 慎重히 하고 敢히 輕率히 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어렵게 여기고 敢히 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반드시 衆論에 參酌하고 홀로 있을때 살펴서 그 賢能한가 奸邪한가의 실상을 환하게 본 뒤에 그것에 따라 昇進시키기도 하고 退黜시키기도 하였다. 賢者는 깊이 알고 독실히 믿어서 疑心치 아니하였으며 不賢者는 그 사람을 밝게 살피고 決然히 버려서 다시 留滯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대개 三代 聖王이 任賢去邪의 要法이다.

後世 人主는 이 뜻에 밝지 못하여 舉措에 경솔한 때문에 賢者를 任用하고도 能히 끝내 信任하지 못했으며 邪人을 黜出하여도 能히 決然히 黜出하지 못하였다. 或은 한 사람의 稱譽로써 나서기도 하고 或은 한 사람의 毀謗으로써 退斥하기도 하고 甚至於는 前日に 賢人이라 하여 任用한 사람도 後日에는 邪人이라 하여 誅戮하기도 하고 前日に 奸臣이라 하여 물리친 사람도 後日에 와서는 忠臣이라 하여 寵愛하기도 하였다. 用舍가 한번 錯亂되면 治亂이 드디어 나누어지니 이것은 能히 일찍 分別하고 처음에 살피지 아니한데 말미암는다.¹⁰⁰⁾

其五 順天道 곧 天道에 順應하는 것.

天道는 好生이며 無私하고 聖人의 마음도 또한 好生이며 無私하다. 堯임금의 “昊天에 공경히 순응하여 공경하여 人時(백성의 농사하는 때)를 주고 여러 功績이 넓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을 본받아 생을 좋아하는 政治이다.

舜임금의 “簡易로써 아랫사람을 접하며 너그러움으로서 民衆을 다스리며 罪가 의심나면 輕한쪽으로 罰을 주고 功이 의심나면 重한쪽으로 賞을 주며 刑罰주는 것은 刑罰이 없게 되기를 期必하고 공경하고 근심하는 것”은 또한 하늘을 본받아 好生의 政治이다. 人情이 오래 살고지 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三王은 民衆을 살리고 傷害하지 않았으며 人情이 富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三王은 民衆을 厚하게 하고 困窮하게 하지 않았으며 人情이 安定하고지 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三王은 民衆을 붙들어 주고 危殆하게 하지 않았으며 人情이 편안하고지 하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三王은 民衆의 努力을 節約하여 다 쓰지 않았으니 이것도 또한 天道에 順應하여 仁을 베푸는 政治가 아닌 것이었다.

三代以下에 와서는 能히 이 道를 다한 이는 漢나라 文帝와 宋나라 仁宗일 뿐이다. 이 때에 天文이 자주 變하고 日月이 吉凶하여 災異가 매우 많았으나 두 임금은 能히 修省하여 道理를 다하고 天心을 잘 받들어 災異를 구슬려 祥瑞로 하고 禍를 變하여 福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政事를 닦아 格天하는 道가 또한 好生無私한 데 있다. 근심은 자기의 근심으로써 근심을 삼지 않고 天下의 근심으로써 근심을 삼았으며 즐거움은 自己의 즐

100) 用舍一錯治亂遽分由不能辨之於早而審之於始也(其四).

거음으로써 하지 않고 天下의 즐거움으로써 즐거움을 삼았던 것이다. 時物의 敷榮한 것을 보고 困窮한 백성을 賑恤하였으며 纒縶의 上書에 感動되어 肉刑의 慘酷을 除去하였으며 大辟의 疑獄을 審理하여 數千의 人命을 救活하였으며 一夕의 飢餓을 참고 無窮한 誅殺을 면치었으니 그 사람을 사랑하고 萬物에 恩澤을 끼침이 至誠 懇惻에서 우러나왔으므로 그들이 人心을 얻고 和氣가 感應한 것이 당연하였던 것이다.¹⁰¹⁾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順人道」의 思想은 民本主義 政治思想의 深源한 것이다. 政治의 體와 用이 一綱十目으로 論述되고 있는데 政治의 體로서 綱은 君主의 心術로서 天德에 合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用으로서 “順天道” 思想은 書傳의 堯舜의 政治思想을 끌어와서 敷衍하고 있는데 깊은 民本主義 政治思想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其六은 正人心이다.

人心이란 天下安危의 根本이다. 人心이 바르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되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 되어 公論이 위에서 行하고 風俗이 아래에서 아름다우며 人心이 바르지 못하면 옳은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하여 公論이 위에서 行해지지 않고 風俗이 아래에서 頹敗될 것이니 國家의 治亂興衰의 根源이 이에 發端되지 않는 것이 없다.

人心과 風俗은 國家의 元氣이니 元氣가 消耗되면 命脈이 能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으랴.

其九은 修軍政이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대는 군사가 가장 急務가 된다. 근심이 없는 세상에 더욱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옛 聖王은 세상이 다스려서도 어지러워질 것을 잊지 않으며 편안하여도 위태로울 것을 잊기 않아서 閑暇한 時期에 能히 경계하고 緩急의 지음에 세력을 펴 왕성하게 하니(張皇) 이것이 所謂 有備而無患이라는 것이다.¹⁰²⁾

대개 軍政의 業務는 ① 將帥를 選任하고 ② 士卒를 訓練하고, ③ 儲蓄을 풍부히 하고 ④ 兵器를 銳利하게 하고 ⑤ 城堡를 修築하는 다섯가지 일에 있을 뿐이며 軍政의 根本은 또한 人心의 和合과 信賴에 있다. 人心이 和合하지 못하면 衆志를 믿지 못하니 비록 군사 百萬이 쓰임에 무슨 도움이 있으랴. 孟子는 이르기를 “天時가 地利만 같지 못하고 地利가 人和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고 孔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군사와 먹을 것을 버리더라도 信은 있어야만 된다”고 하였으며 또 “사람이 信이 없고는 立身揚名할수 없다” 하였으며 吳子は “나라가 不和하면 能히 軍을 動員할 수 없으며 軍이 不和하면 能히 決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尉繚子는 “위에서 疑令이 없으면 兵士들이 두가지로 듣지 아

101) 二君能修省盡道克承天心轉災爲祥變禍爲福求其所以修政格天之道亦在好生無私而已其憂也，不以己之憂爲憂而以天下之憂爲憂其樂也不以己之樂爲樂而以天下之樂爲樂見時物之敷榮而賑窮悴之民感纒縶之上書而除肉刑之慘酷大辟之疑而活數千之命忍一夕之飢而止無窮之殺其愛人澤物發於至誠懇惻宜其人心得而和氣應也(其五).

102) 衛國安民兵爲最急無虞之世尤不可緩古之聖王治不忘亂安不忘危克諒於閑暇之日張皇於緩急之際此所謂有備無患者也(其九).

니하며 위에서 疑事가 없으면 兵士들이 두가지로 마음먹지 않을 것이니 그 마음을 믿지 않고 能히 그 힘을 얻을자도 있지 않으며 그 힘을 얻지 않고 能히 그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는 者도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그러한즉 옛 聖賢과 良將들도 또한 和와 信으로써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군사를 쓰는 根本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나 人心을 收拾하여 和하게 하고 衆志를 統一하여 信賴케 하는 것은 또한 才能과 勇力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니 要是 先王의 政治를 行하여 撫育의 道를 다하는데 있으며 또한 반드시 孝弟로서 가르치고 禮義로서 익힌다면 백성들이 父母를 섬기고 妻子를 기르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므로서 사람마다 모두 윗사람을 親愛하고 長上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을 것이니 和와 信은 그 가운데 있다.

其十은 審幾微 곧 幾微를 살피는 것이다.

書經에는 “하루, 이틀에도 幾微는 萬이나 된다”고 하였으며 易에는 “오직 幾微인 故로 能히 天下의 業務를 이룬다”고 하였다. 대개 幾微라는 것은 움직임(動)의 隱微한 것이니 吉凶이 먼저 나타난다.¹⁰³⁾ 天下國家의 治亂興衰의 端緒는 모두 芒忽毫釐로 부터 출발하여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시냇물을 막지 않으면 혹시 滔天의 洪水까지 이르게 된다. 작은 불길도 끄지 않으면 혹시 燎原의 큰 불까지 이르게 되며 草木의 싹을 꺾으면 百尋의 나무도 能히 이룰 수 없으며 개미굴을 소홀히 여긴다면 千丈의 둑(堤)도 能히 튼튼치 못할 것이니 幾微를 能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 이와 같다.

옛적 大道의 세상에는 政治를 어지럽지 않을것에 다스렸으며 나라가 위태롭지 않을것에 保全하였으니 어지럽지 않는데도 어지러운 漸이 있고 위태롭지 않는데도 위태로울 징조가 있는것이 이것이 이른바 幾微이다. 옛부터 어지러운 것은 어지러운 그 때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항상 다스려지는 그 時期에 발생한 것이며 위태로운 것은 위태로운 그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항상 편안한 그 時期에 일어난 것이다. 幾微가 벌써 감추어져 있는데도 君主는 安富에 습관이 되어 이것을 살피지 않으며 幾微가 벌써 나타났는데도 廷臣은 祿을 保存하고 몸을 아껴서 감히 말하지 않는다.¹⁰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安逸을 꾀하여 舊習을 버리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지내어 빠르게 亂亡의 지경으로 들어가면 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古今의 通患이다. 지금 國家의 형세는 비록 目前의 근심은 없을지라도 禍亂의 幾微는 염려되는 바가 많으니 그 큰것만 말한다. 옛부터 邪正의 消長으로서 國家의 興亡이 判定되고 人心의 離合으로서 天命의 去留가 말미암게 된다. 正道가 일어나고 邪道가 줄어들면 天下가 泰平하여 백성이 그 惠澤을 입게 되고 正道가 움츠러지고 邪道가 일어나면 天下가 否塞하여 백성이 그 禍害를 입게 되니 이것은 人心이 離合하는 緣由이며 天命의 去就도 또한 이것에 의해서 決定된다.

103) 書曰一日二日萬幾易曰惟幾也故能成天下之務蓋幾者動之微吉凶之先見者也(其十).

104) 自古亂不生於亂而常生於治之日危不起於危而常起於安之日幾之已藏人君狃於安富而莫之察幾之已著廷臣持祿愛身而不取言上下偷安因循苟且髣髴然入於亂亡之域而不悟比古今之通患也(其十).

吉凶 消長の 理致를 밝히고 否泰往來의 幾微를 살피서 漸移할 적에 경계하고 隱微할 적에 防遏하여 이르지 않는에서 먼저 알아내고 보이지 않는에 먼저 알아서 미리 도모한 다던 근심이 萌動하지 않을적에 거의 사라지고 禍가 形成되기 前에 그쳐서 國家가 기리 다스려지고 오래 平安한 福이 있고 지나간 失敗를 거듭하지 않을 것이다. 매개 吉凶否泰의 幾微는 비록 事物에 나타나지만 實은 君主의 마음에 根源하였으니 一念이 바르면 吉의 道이며 泰의 始初가 말미안한다. 一念이 바르지 못하면 凶의 道이며 否塞이 말미안한다. 임금이 진실로 能히 深思 遠覽하고 자신에 反省靜觀하며 念慮의 隱微에 대양 삼가하고 萌動할 처음에 天理와 人欲의 나뉘를 살피서 天理를 擴充하고 人欲을 渴絶하는 공부를 이룬다면 마음속에 陽明이 일어나고 陰濁은 줄어든 것이다. 本體가 清明하면 志氣가 通達되어 天下의 事幾를 細微하고 숨은 것을 확하게 비추어 내지 않는것이 없으니 陰邪가 걸러질 수 없으니 禍亂이 무엇에 말미안아 일어날 것인가.

마음이 清明純一하여 一念의 差誤와 一息의 틈도 없어서 위로는 天命을 받들고 아래로는 國家를 바르게 한다면 十條目이 施行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治道도 完了될 것이니 이것이 쉬워서 어렵지 않고 簡略하여 번거롭지 않는 것이다. 乾以易知오 坤以簡能이니 天地의 理가 易簡일 뿐이다. 聖人은 一心의 易簡으로써 天地의 易簡에 합하게 됨으로 自身에서 家, 國, 天下에 이르기까지 모든 修爲와 舉措가 있을적에 明白坦易하여 알기 쉽고 따르기 쉬운 일과 能히 長久하고 能히 廣大한 業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 能히 이 道를 인지 못하고 智術에만 規規하고 細務에만 자세히 살피서 政治를 하고자 한다면 마음만 더욱 괴롭고 일은 더욱 어긋날 것이니 綱領을 벌써 잃게 되고 條目도 벌써 紊亂된 것이다.

不息의 마음을 가지고 易簡의 道를 다하여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여 마음에 게으름이 없고 政事에 荒廢함이 없게 하여 悠久한데 이르게 되면 穆淸위에서 冕服만 입고 心力을 쓰지 않아도 萬化가 그 軌範을 따르게 되고 萬物이 그곳을 얻게 되어 堯舜泰平의 政治를 다시 今일에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政治의 體와 用을 一綱十目으로, 論한 이 著述은 政治의 體를 論한 綱은 곧 君主의 心術이 이른바 心之德이 天과의 合德을 主張함으로써 先生의 深邃한 民本主義 政治思想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天地大德回生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政治의 用인 目에 있어서 好生을 實踐하는 思想을 書傳의 堯舜의 政治에 敷衍하고 있는 바 이를테면 「其五目」의 政治思想이 獨特하고도 깊은 先生의 民本主義 政治思想이 천명되었다.

其七은 廣言路이다.

옛적 天下를 다스릴 때는 朝廷에는 進善旋과 謗誹木이 있었다니 이것은 治道를 通하게 하고 直諫하는 사람을 오게 한 것이다. 孔子는 舜임금의 大智를 稱道하사 “남에게

105) 始以不息二字爲殿下勉繼以易簡二字爲殿下獻殿下誠能持不息之心而盡易簡之道兢兢業業怠荒以至於悠久則可以端冕凝旒於穆淸之上不勞心力而萬化循其軌萬物得其所垂衣熙皞之治復見於今日矣(「晦齋先生文集」-綱十目疏其十).

물기를 좋아하면서도 淺近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고 나쁜 것은 숨겨주고 좋은 것은 들추어서 그 좋은 점 중에서도 또한 그 兩端을 잡아 비교하여 그 中을 써 백성에서 施行한다”고 하였다.

대개 天下의 이치는 無窮하며 사람의 所見 또한 같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비록 聖賢의 君主라도 또한 衆論을 널리 맞아들이고 群言을 널리 採擇하여 同異를 참작하고 可否를 살피서 그 中을 가려서 施行하였으니 옛 聖帝, 明王의 政治가 正大 光明하여 青天白日 처럼 조금의 瑕疵와 陰翳가 없었던 것은 이 道를 썼기 때문이다.

易에 “君子라야만 能히 天下의 意思를 通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옛 부터 아래 사람의 意思를 通하지 않고 能히 그 政治를 잘하는 者は 있지 아니하였다.

대개 良藥은 반드시 甘, 辛, 寒, 熱 등의 藥性을 습하여 하나로 뭉친 까닭으로 서로 補助하고 서로 制御하여 能히 병을 고치게 되고 좋은 맛(美味)은 반드시 酸鹹, 甘, 苦 등을 합하여 하나로 뭉친 까닭으로 이에 調和되고 平淡하여 能히 입에 맞있게 된다. 만약에 반드시 그 같은것만 取하고 그 다른 것을 버린다면 물에 물탄것에 비유될 것 같으니 그 것을 어디에 쓰랴.¹⁰⁶⁾

中和의 표준을 세우고 偏黨의 氣習을 없애고 人材를 쓸때는 親近 疎遠을 分別할 것 없이 다만 그 사람의 邪曲, 正直을 볼 것이며, 말을 들을 적에는 自己의사와 같고, 다르고 하는 것은 介意할 것 없이 다만 그 말의 옳고 그른 것만 살펴야 한다. 曰可曰否하여 可否가 서로 도와 이치에 합하기를 힘쓰고 曰是曰非하여 是非가 서로 참작하여 中에 歸正하기를 求하던 嘉言이 潛伏되지 않고 公道가 서게 되며 壅蔽의 근심이 생기지 않아 蕩蕩平平의 政治를 다시 볼 수 있다.

其八은 戒侈欲, 곧 侈欲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다.

恭儉이라는 것은 壽福의 本原이요 侈欲이라는 것은 危亡의 根本이라 한다. 옛부터 帝王이 德을 쌓고 仁을 쌓아서 後孫에게 넘겨함을 끼치는 恭儉에 其囚하지 않음이 없으며 그 後孫이 能히 이것을 持守하지 못하고 亡身滅宗하는데 이른자도 또한 奢侈放縱에 연유되지 않은 것이 없다.¹⁰⁷⁾ 대개는 人主는 淸心하고 恭敬하여 儉約을 힘쓰면 嗜欲은 없어지고 心慮는 安靜되어 마음속에는 淸純한 樂이 있고 밖으로는 戕賤의 累가 없음으로 가히 養性하고 가히 德을 涵養하게 되어 길로 恩澤이 萬物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이것은 壽命의 根原이며 福祿의 基本이다.

만약 能히 그렇지 못하고 逸欲이 한번 萌動하여 이것을 能히 制御하지 못하게 되면 다만 財用을 浪費損傷하여 백성에게 害가 미칠뿐만 아니라 心志가 放蕩해지고 嗜欲이 節制가 없게 되어 戕生戕性하고 亂政敗度하여 마침내 國家를 상실하는데 이를 것은 甚

106) 蓋良藥必合甘辛寒熱而一之故相助相制而能已疾美味必合酸鹹甘苦而一之故乃和乃平而能悅口若必取其同而去其異者則比如以水和水將焉用之(其七)

107) 恭儉者壽福之源侈欲者危亡之本自古帝王積德累仁垂裕後昆者未有不始於恭儉而其後嗣之不能持守以至亡身滅宗者亦未有不由於奢縱矣(其八).

인의 일이다.

옛부터 君主가 처음 갈한 이는 많아도 끝까지 갈한 이는 적었다. 대개 崇禎한 地位에 處하여 富貴의 生活을 다하니 스스로 誠意正心の 工夫와 修身齊家の 行실이 있지 않으면 奢侈放縱한 生活에 흐르지 않는 이가 없다. 侈欲의 發端은 細微한 일에서 시작되더라도 그 마지막에 가서는 막기 어렵다. 그러므로 舜임금이 漆器를 만들때 諫하는 이가 十人이나 되고 紂王이 象箸를 만들때 箕子가 근심하였으니 대개 細微한 일에서부터 侈欲을 防止하고자 하였다. 舜임금은 能히 諫言을 받아들여 中止하였으니 이것이 聖人된 所以이고 紂王은 能히 諫言을 받아들이지 않고 欲心을 放縱하였으니 이것이 亡의 所以였는데 이것이 萬世의 鑑戒가 아니다.

3. 「弘文館上疏」

先生은 51歲되는 中宗 36年 辛丑(1541年) 弘文館副提學이 除授되었다. 여기서 上疏하여 聖學本末과 時政得失을 極陳하였다.¹⁰⁸⁾

天人の 즈음에는 一理가 貫通되어 위와 아래가 사이가 없어서 하늘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사람은 하늘에 應하는 실상이 있다. 그러므로 誠을 쌓아 하늘을 感動시키고 德을 닦아 災殃을 이기면 비록 감동시키기 어려운 하늘이지만 비로소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요, 비록 그치게 하기 어려운 재앙이지만 비로소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人君이 아득하게 天地中에 處해 있으면서 높이 위에 있는 하늘을 感動시키고 恐懼修省하는 힘으로써 赫然히 震動하는 警戒를 돌이키려면 예사로운 舉措로써는 몇 달 동안에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겨울에 우뢰소리가 나고 地震이 있으며 눈(雪)도 내리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으며 겨울날씨가 봄날끼처럼 따스하고 봄날을 겨울처럼 추워서 陰陽이 순서가 뒤바뀌고 大氣가 어그러지고 어긋나서 鬱熱한 것은 가뭄이 되어 水澤이 고갈하고 蕪蒸한 것은 癘疫이 되어 사람과 가축이 거의 다 죽었으며 赤子は 서로 베고 죽었으며 牛羊도 죽어 쓰러졌으니 國醫가 能히 그 技術을 쓸 수 없으며 임금의 제사에도 犧牲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迫切한 재앙이 장차 皮膚까지도 벗기게 되오니...이것은 하늘이 君主를 크게 警動시켜 保護하고 安全케 하려는 것이니 君主가 정성(誠)을 쌓아 하늘을 感動시키고 德을 닦아 재앙을 이기려는 實相을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弘文館上疏도 그 때를 넘긴 임금이 마땅히 힘써야 할 열가지 일(十事)에 대해서 올린 글이다. 十事라는 것은 그 비리(綱)가 하나이고 目이 아홉이다.

무엇이 一綱이나하면 中和를 이루는 것(致中和)이다. 子思는 이르기를 喜怒哀樂의 未發을 謂之中이오. 發而皆中節을 謂之和이니 中也者는 天下之大本也이오.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이니라. 致中和이면 天地의 位焉하며 萬物이 育焉이니라”고 하였다.

108) 晦齋先生年譜, 二十年辛丑條.

대거 道의 大原은 하늘에서 나와서 人心에 갖추어서 萬事に 散在하였으니 天地를 通하여 한 이치(一理)고 萬物을 다하여 一體이니 發하기 前에 지극히 高요하고 지극히 正直하여 치우치고 기대는 바가 없는 것은 中의 體이요 이미 發한 경우에 品節이 어긋나지 않아서 乖戾없는 것은 和의 用이니 이룬다(致)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미루어 그 지극함을 다한 것이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 存天理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에 人欲을 막으면 大本이 서서 達道가 行하고 體와 用이 합하여 物我が 하나가 된다. 이에 薰蒸透徹하고 洋洋하게 流通하여 自身으로 부터 집(家)으로 나라(國)로 天下에로 이르러 天地의 天地된 所以와 萬物이 萬物이 되는 所以가 그 곳(所)을 편안히 하지 않음이 없고 그 생을 이루지 않음이 없어진다.¹⁰⁹⁾

이것이 堯·舜·禹·湯·文·武와 같은 임금들의 天地人三才에 參與하여 化育을 協贊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나 세상을 굽어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麒麟이 그 숲(藪)에 놀고 鳳凰이 산등성이(岡)에 읊으므로 妖孽과 災變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대저 殿下의 밤으심으로서도 오히려 지금의 걱정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요 聖學의 功(聖學의 공부)의 未盡함이 있고 中和의 이룩이 다하지 못함이 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進言者가 이르기를 “聖學이 이미 高明하여 다시 問學에 뜻을 쓰지 않아도 可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이 말을 하는 者는 오직 經史를 섭렵하는 공부를 익히어 殿下의 學問을 도울줄 만 알 뿐이고 堯舜三王의 道로 殿下에 期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聖帝明王은 道에 일정한 時期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一時라도 배우지 않는 때가 없었고 道에 일정한 對象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도 배우지 않는 대상이 없어서 盤과 밥 그릇에도 銘이 있고 책상(几)과 지팡이(杖)에도 戒가 있으며 近侍의 箴과 贊史의 諷諫까지 무릇 이 마음을 操存하고 德性을 배양하는 것이 그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다.¹¹⁰⁾

기금은 이런 몇 가지 일이 없고 오직 어진 士大夫가 淸光을 가까이 하여 講論規戒하는 것이 經筵에서의 몇 時刻 이외에는 들어보지 못하고 進講하는 글도 二帝三王의 주고 받은 心法의 要旨과 孔程朱가 傳道講學한 要旨가 아니니 聖學의 經筵에서 얻은 것이 날로 高明한 경지에 向上되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밖에도 깊이 九重안에 居하여 한가한 때에 左右에서 모시는 것이 오직 宦官宮妾의 무리뿐이므로 芝蘭이 함께 醇化하는 도움은 없고 一曝十寒하는 두려움만 있어오니 이 때에 있어서 聖學이 어떻게 學習되는지 알 수 없다.

大闢의 길고 넓은 가운데에서 마음이 事物에 酬應하는 마당에서 存養省察하는 工夫가

109) 夫道之大原出於天而具於心散於萬事通天地而一理盡萬物而體未發之前至靜至正而無所偏倚者中之體也已發之際品節不差而無所乖戾者和之用也致之云者推之以極其至也存天理於不觀不聞之頃遏人欲於莫見莫聞之際大本立而達道行體用合而物我一由是薰蒸透徹洋溢流通由身而家而國而天下而天地之所以爲天地萬物之所以爲萬物無不安其所而遂其生(「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文館上疏).

110) 惟古之聖帝明王知道之無時不然故無一時而非學知道之無物不有故無一事而非學以至盤盂有銘几杖有戒管御之箴贊史之諷凡所以操存此心培養德性者無所不用其至矣(「弘門館上疏」).

지극하지 못함이 있고 大本을 세운 것이 堅固하고 確固하지 못하므로 達道의 行하는 것이 막힘이 많았다. 이로 因하여 宮禁이 防閑이 없어 嚴하지 못하고 紀綱이 험입어 서지 못하고 人材의 分辨은 혹시 混同되는데 이르고 祭祀의 謹愼은 혹시 冒瀆하는데 이르며 백성의 고통을 구휼되지 않고 教化를 밝히려하나 밝아지지 아니하고 名目上으로는 刑罰을 愼重히 한다하나 冤獄이 오히려 많으며 名目上으로 奢侈를 禁한다 하면서 弊習은 그대로 있으며 名目上으로는 諫言을 받아들인다 하나 끝은 날을 하는 者가 쓰지 않아서 末端에서 근본을 求하고 下流에서 本源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이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마음을 돌려 道에 嚮하지 않으랴.

聖學이 지극하지 못함을 알아서 精一의 眞功을 다하시어 남을 꾸짖지 말고 自己를 꾸짖고 밖에서 求하지 말고 안 곧 마음(心)에서 求하며 戒愼恐懼하여 스스로 속임이 없고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實功에 항상 從事한다면 日用動靜語默의 사이에 萬事萬物의 紛綸한 酬應도 어디가던지 聖學의 用功에 基因하지 않음이 없으며 中和의 極功도 能히 踐점 이루어질 것이다.

九目は 다음과 같다.

대개 宮禁은 嚴하지 않을 수 없다. 傳에 이르기를 “집이 가지런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하면서 能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者는 없으므로 王化의 根本은 宮禁에 있고¹¹¹⁾, 宮禁이 嚴하지 못하면 邪徑이 内外에 通하고 바른 길은 朝廷에서 막히며 公論은 阻礙되어 行해지지 않고 邪僻이 眩惑되어 奸邪한 것이 쓰이므로서 亂亡이 이 지경이 되면 救濟할 수 없다.

대개 君臣上下의 즈음과 親戚内外 사이에 그 情意의 往來流通은 血氣가 一身上下속에 升降流行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理의 自然이므로 그 中間에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氣血의 流行이 그 길을 따라 行하면 和暢安順하여 四體가 康寧하게 되고 그 길을 잃고 行하면 乖舛瘀滯되어 百病이 잇달아 發生될 것이다. 上下内外의 情意의 流通이 正路를 따라 行하면 光明正大하여 朝廷이 和泰할 것이고 邪徑을 따라 行하면 暗昧回譎하여 矯僞作孽이 될 것이니 國家의 安危가 여기서 決判이 날 것이다.

理勢의 必然的인 것은 이미 쉽게 알 수 있으며 지나간 일의 이미 그러한 것도 또한 明驗이 많은데 當時의 君主들은 거개 外廷의 相與者는 소의하여 慣例에 따라 서로 接할 뿐이고 宮闕内に 인줄이 있는 者는 親하고 믿어서 의지하여 일을 맡기고 말을 들어 좃т 이 이것은 어떤 心思이라.

外廷의 臣이 能히 誠信으로써 君主를 감동시키지 못하여 막힘을 가져온 것은 진실로 그들의 죄이나 인줄의 무리가 또한 어찌 誠心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者이라.

이들은 은총을 빙자하여 그 私欲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다만 그 私

111) 蓋宮禁不可不嚴也傳曰家齊而國治其家不可齊而能治其國者無之故王化之本在於宮禁 (『弘門館上疏』).

欲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뿐이요 반드시 미리 나라를 어지럽힐 謀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利害가 엄한즈음에 事勢가 急迫하여지면 무슨일을 차마 하지 못하랴.¹¹²⁾

紀綱을 바꾸지 않아서는 안된다. 옛 爲政者는 그 體要를 반드시 먼저 바로잡은 이 紀綱이 이것이다.

書經에 이르기를 “그물이 버리(綱)가 있어야만 條目이 엉크러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대체로 四海의 넓음과 兆民의 많음으로써 嗜欲이 없지 않으며 智力이 없지 않으니 진실로 摠攝하여 統一함이 없다면 서로 흠치고 서로 빼앗아서 昏亂하여 禍亂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農·工·商賈·府史·胥徒의 賤人에서부터 그 위는 士이고 또 그 위는 丈夫이고 또 그 위는 卿이고 공이며 뒤에 一人이 더 있어 上下가 서로 維持되고 遺賤이 서로 連續되었는데 또 禮를 만들어 그 先後를 節次하고 政治를 하여 권태한 것을 통솔하고 法을 만들어서 그 制度를 지키게 하는 것이 모두 紀綱을 夾輔하는 道具이다.

그러나 비록 紀綱은 能히 獨自의으로 서지는 못하고 반드시 賢者를 기다려 서게 되며 紀綱은 能히 獨自의으로 行해지지는 못하고 반드시 公道를 기다려 行하게 된다. 대저 賢者의 存在는 隱然히 虎豹가 山中에 있는 形勢이며 公道의 揭示는 赫然히 日月이 中天에 있는 밝음과 같으니 狐狸가 낮이 빠져 달아나 숨고 陰醫가 광채에 비쳐서 홀어질 것이다. 이것은 宰相 臺諫의 責任인데 그 기들은 君主의 一心에 있는 것이다. 詩經에 “四方을 能히 綱紀하여 편안함이 여러 臣下에게 미치면 諸侯와 卿士는 天子에게 親順하고 그 職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여 백성이 安息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紀綱의 責任이 大臣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며 또 말하기를 “부지런한 우리 임금이 四方을 紀綱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紀綱의 責任이 君主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君主가 臣下의 職務를 侵害말아야 한다. 人材는 分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書經에 이르기를 “오직 治亂은 庶官에 있으니 官을 사사로히 가까운 사람에게 局限시키지 말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맡기며 賢은 악덕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직 能한 사람에게 지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人材를 分辨함은 나라의 先務이다.¹¹³⁾

그러나 君子는 진실로 자기를 君子라고 하고 小人을 小人으로 여기지마는 小人也 또한 자기를 君子라고 하고 君子를 小人으로 여기어 각각 스스로 옳다하여 서로 배척하면 人君된 이도 그 邪正을 分辨할 수 없다. 옛적에 京房과 元帝의 問答이 있다.

京房이 元帝에게 묻기를 :

“幽王·厲王이 어찌하여 위태하였습니까?”

“任用된 者가 교묘하고 간사하였기 때문이다.”

“교묘하고 간사한 것을 알고 썼습니까?”

112) 是欲憑籍思寵求濟其私耳且其初心只欲求濟其私耳非必預畜亂國之謀也利害之際事勢急迫盛則何事不可忍爲(『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門館上疏).

113) 人材不可不辨也書曰惟治亂在庶官官不及私昵惟其賢罔罔及惡德惟其能是故人材之辨有國之先務也(『弘門館上疏』).

“賢人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그 賢하지 못함을 압니까?”

“時代가 어지러워지고 임금의 위태해졌으므로 안다.”

“어기 사람을 任用하면 나라가 반드시 다슬리고 不肖한 者를 任用하면 나라가 반드시 어지러워지는 것은 必然의 理致인데 幽王・厲王이 어째서 깨달아 다시 어진 이를 求하지 않았으며 어째서 끝내 不肖한 者에게 맡기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亂世를 處한 임금들은 各各 그 臣下를 어질게 여겼던 것이다.”

또 李德裕가 文宗에게 말하기를 “다스려지게 하는 要法은 群臣의 邪와 正을 分辨하는데 있으니 邪와 正 二者는 형세가 서로 容納하지 못합니다. 正人은 邪人을 가리켜 邪라 하고 邪人은 正人을 가리켜 邪라 하니 君主가 이것을 分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成敗의 자취는 옛적에 이미 경험되었으니 비록 어리석은 사나이로 하더라도 모두 그 善하고 惡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心術의 用은 오늘날도 나타나지 않으니 비록 智者라도 能히 그 邪와 正을 分辨하지 못한다. 하물며 權力의 所在와 勢力이 돌아가는 바에는 사람들이 비록 알더라도 敢히 말을 못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人心을 속이기 어려우며 公論은 막기 어려우니 허위를 꾸미는 자취가 或한 사람의 마음을 가릴 수는 있겠지마는 肺肝(眞心)의 드러남은 스스로 열 눈이 보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孟子가 말하기를 “左右가 모두 입을 열어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믿어서는 안되며 여러 大夫가 모두 어질다 하여도 可하게 여기지 말고 國人이 다 어질다고 하여야만 그 사람을 任用할 것이며 左右의 近臣이 다 옳지 않다 하여도 듣지 말며 國人이 다 옳지 않다하여야만 그 사람을 버릴 것이다”¹¹⁴⁾고 하였다.

옛적 齊威王은 阿大夫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阿라는 땅을 지킬 때부터 칭찬하는 말이 날로 이르니 이것은 그대가 내 左右의 近臣을 잘 섬긴 까닭이라”하고 即墨大夫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即墨에 있을 때부터 비방하는 말이 날로 이르니 이것은 그대가 내 左右의 近臣을 잘 섬기지 못한 까닭이라”하였다.

宋仁宗이 王素에게 宰相될 만한 사람을 물으니 素가 대답하기를 “환관과 宮妾이 그의 姓名을 알지 못하는 者라야 그 선발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左右 가 가까운 臣下의 말도 믿을 것이 아니요 반드시 여러 大夫가 말한 然後에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멀리 前代에 證據할 것이 아니라 다만 耳目의 經驗한 일로 말하면 20年來로 朝廷의 士林들이 매양 朋黨을 나누어 權力에 따르서 서로 이기고 지고 하였는데 이긴 者는 君子가 되고 진 者는 小人이 되며 自己에 붙는 者는 옳게 여기고 自己와 다른 者

114) 孟子曰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用之左右皆曰不可勿聽諸大夫皆曰不可勿聽國人皆曰不可然後去之 (「弘明館上疏」).

는 그르게 여기어 이미 君子라고 하면 여러 大夫가 한가지로 옳게 여기고 이미 小人이라고 하면 여러 大夫가 함께 그르게 여겼는 바 이것이 어찌 다 昏愚하여 分辨하지 못한 것이라. 대개는 다禍를 두려워하여 勢力에 阿附한 것이다. 論執하는 바가 있으면 大臣은 六曹를 거느리고 言官은 兩司가 습하니 이때를 當하여 殿下가 어찌 物情이 이렇다고 하지 않겠읍니까. 여러 大夫의 말이 혹 믿지 못할 것이 있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나라 사람이 모두 그렇다고 한 然後에 그 議論이 公正한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謀議를 衆人에 따른다면 天心에 습한다” 하였으니 人君된 이는 마땅히 크게 言路를 여러 國人에게 大小貴賤의 區分이 없이 그 말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비록 忌諱에 거슬리더라도 罪를 주지 않는다면 公論을 비로소 들을 것이며 物情을 비로소 알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孟子는 반드시 “國人이 모두 어질다 하더라도 살피어서 어진 것을 본 然後에 쓰고 國人이 모두 不可하다 하고 그것을 살펴서 不可한 것을 본 뒤에야만 버린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自身이 살펴서 親히 그 賢하고 賢하지 못한 실상을 알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쓰고 버리는 것을 결정한다면 어진 者에게는 알기를 깊이 하고 任用하기를 重히 할 것이며 不才者에게는 요령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書經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으면 깊이 생각한 뒤에 行하라”고 하였으며 孔子는 “衆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衆人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피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반드시 學問이 高明하고 心德昭朗하여 거울처럼 깨끗하고 물처럼 맑아야만 人心의 邪正曲直이 털끝만치라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내게 있는 것이 昭明澄澈하지 못하고 갑자기 衆人의 말 밖에서 살피려고 하면 혹 편견의 잘못을 저지를 것이니 오히려 衆論을 따르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自身을 경밀히 살피고 혹은 남에게 널리 採納하므로써 内外 곧 自己와 남이 서로 맞고 權과 衡이 마땅함을 얻어야만 거의 그 실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¹¹⁵⁾

사람 마음의 잡(操)고 놓(舍)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세상길의 번복이 無窮하니 여기에서 더욱 살피고 窮理하여 偏黨의 私를 끊고 進退의 公正을 지키면 中和를 이루어 天인이 다 기뻐하여 災變이 災變이 되지 못할 것이다.

祭祀는 삼가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祭祀不可不謹也)易의 華卦에 이르기를 “王이 宗廟에 이른다(王이 宗廟에 이른다는 것은 孝誠이 지극한 祭祀를 올린다는 것이다. 王假有廟는 致孝享也 | 오)”고 하였다.

祭祀의 값음(報)은 사람의 마음에 根本한 것인바 聖人이 禮를 만들어 그 德을 이룬 것이다. 群生은 매우 많으나 歸仰을 統一할 수 있고 人心은 그 定處를 알지 못하나 能

115) 孔子曰衆好之必察焉衆惡之必察焉然則必學問高明必德昭朗如鑑之空如永之澄然後人心之邪正曲直莫得以遁其毫髮矣若在我者不能昭明澄澈而遽欲察之於庶言之外則或不免偏見之失當反不如衆論之多中矣故或精鑑於己或博采於人内外交證權衡得宜然後庶幾不失其實矣 (『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門館上疏).

히 그 誠敬을 이루어야하며 鬼神은 헤아릴 수 없으나 能히 와서 흠향하게 하여야 한다. 人心을 萃습하고 衆志를 總攝하는 道가 하나만이 아니나 그 지극히 큰 것은 宗廟에게 나는 것이 없으니 죽음을 섬기기를 삶을 섬기는 것같이 하고 亡을 섬기기를 存을 섬기는 것같이 하는 것이 孝道의 지극한 것이다.

社稷에 祭祀를 올리는 것은 萬物이 흠에 살고 곡식을 먹고사는 까닭이며 釋奠禮와 釋菜禮를 올리는 것은 先聖・先師가 백성을 위하여 가르침을 세웠기 때문이요 山川群神에게 祭祀를 올리는 것은 災患을 막아 백성에게 功이 있는 때문이며 城隍壇과 厲鬼壇을 두는 것은 致發告하고 祀典에 記載되지 않는 것도 차례로 祭祀올리는 것이다. 때문에 나라의 大事는 祭祀에 있으며 神을 祭祀올리는 道는 또 誠敬에 있다.

우리 나라의 祭祀올리는 典禮가 갖추어져 있고 殿下의 孝誠이 지극하지만 齊室이 퇴락한 것과 祭服이 깨끗지 못한 것이 이때보다 甚한 때가 없어서 몸을 깨끗이 하고 精神을 맑게 하고 敬虔을 表示하여 恭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서울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窮僻한 縣邑이야 어떻겠습니까.

神을 만홀히 하는 것이 심하다. 그러나 이것은 有司된 者의 罪이다. 孔子가 이르기를 “내가 祭祀에 親히 參與하지 않으면 祭祀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대개 그 精誠이 있으면 그 鬼神이 있고 그 精誠이 없으면 그 鬼神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옛날 성인이 祭祀지낼 때에는 반드시 祭祀에 참여하여 마치 神이 있는 것과 같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近來에는 宗廟大享에도 의례히 代行시키며 그 代行도 또한 大臣으로써 하지않으니 奉先敬神의 道가 未盡할까 염려된다.¹¹⁶⁾

禮記에 “郊社의 禮와 禘嘗의 義에 밝으면 나라 다스리기는 손바닥을 보는 것 같이 쉽다”고 하니 이것은 仁孝誠敬이 지극하고 體信達順이 극진하여 하늘과 사람이 서로 믿게 되고 鬼神이 福을 내리시어 災變이 災變되지 않는다. 백성의 고통은 救濟하지 않을 수 없는 것(民隱不可不恤也).¹¹⁷⁾

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根本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만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하였으며 傳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니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 나라를 保全한 이는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先王은 백성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식같이 保護하여 백성의 痒癢疾病을 다 내 몸에 當한 것처럼 하고 鰥寡孤獨을 반드시 먼저 撫養하며 그 田里를 마련하여 뽕나무 심는 것과 家畜 기르기를 가르쳐서 백성에게 父母를 섬기고 妻子를 기르게 하여 豊年에

116) 其爲慢神極矣然此則有司者之罪也孔子曰吾不與祭如不祭蓋有其誠則有其神無其誠則無其神此古之聖人所以祭必與祭而致其如在之誠也近來宗廟大享例爲攝行其攝也亦不以大臣奉先敬神之道恐有所未盡也(『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門館上疏).

117) 記曰明乎郊社之禮禘嘗之義治國其如視諸掌乎此乃仁孝誠敬之至體信達順之極天人交孚鬼神降福而災不爲災矣民隱不可不恤也(『弘門館上疏』).

는 한 평생 배부르게 하고 凶年에는 死亡을 뚫아져 하니 이것이 王政의 근본이다.

옛적 漢宣帝가 이르기를 “백성들이 그 田里에 편안히 살면서 歎息愁恨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政事가 公平하고 訟事가 다스려진 까닭이니 나와 더불어 이 일을 같이 처리한 사람은 그 오직 어진 太守뿐이다”고 하였다.

대저 백성과 親하는 官員은 守令보다 더 重한 것이 없는 바 그 선택을 重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人君이 백성의 父母라는 마음을 가지고 赤子의 생명을 들어서 인자하고 착한 官吏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호랑이 입에 맡기는 것을 어찌 차마할 것인가.

教化는 밝히지 않을 수 없다(教化不可不明也). 나라를 다스리는 道는 두가지가 있으니 刑政과 教化뿐이다. 刑政은 밖으로 制御하는 것이고 教化는 마음을 感化시키는 것이다. 刑政으로 制御하면 백성이 刑罰을 뚫아져게 되다 부끄러워 하는 것이 없고 教化로 感化시키면 부끄러움이 있고 또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대저 教化시키는 道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行하는 것이 아니라 秉彝의 德은 사람마다 각기 具足하고 있는 까닭으로 그 사람의 固有한 것으로써 引導하는 것이다. 그러나 能히 躬行率先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興起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近年以來로 教化가 밝지 못하고 士習이 바르지 못하므로 節義廉耻가 전혀 없어졌다. 人心이 날로 偷薄한 데로 쏠리면서 名節과 行檢이 소중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다만 阿諛, 軟弱, 奔競, 附會만을 힘쓰게 돼 權力있는 곳에는 뽐문만 듣고도 쏠리게 되며 權力있는 곳에는 幾微만 보고도 먼저 물리게 되니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에게 붙으려는 風習이 일어나고 公益을 저버리고 私利를 도모하는 폐단이 생겼다.¹¹⁸⁾

선비 習慣이 이미 잃으면 風俗이 뒤따라 무너지고 三綱이 땅에 떨어져서 人倫의 變이 서로 잇달아 일어났었다. 子息이 아비를 죽이고 종이 主人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게 되어 그 變이 天地의 災變보다도 더 甚하여졌다. 여기에 이르러 天理가 滅하고 人道가 없어졌으니 장차 어찌 나라를 다스릴까.

대개 人心이 바르지 못한 것은 教化의 밝지 못함때 基因되고 教化의 밝지 못한 것은 指導가 그 道를 잃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다.

三代之 學은 다 人倫을 밝힌 것이었으니 人倫이 위에서 밝아지면 小民은 아래에서 親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임금의 몸소 실행하고 마음에 自得한 바에 근본한 것이요 밖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지금도 學校의 政策은 人倫에 根本하지 않고 勸勵하는 方法이 다만 記誦詞章의 末節에만 있으니 記誦詞章은 비록 폐지할 수는 없지마는 化民成俗의 근본은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自己 몸에 돌이켜 그 근원을 궁구하고 人倫의 道를 다하여 教化의 근본을 세우면 感化의 速함이 바람에 불이 나부끼는 것

118) 近年以來教化不明士習不正節義廉耻掃地盡矣人心日趨於偷薄不知名節行檢之可貴唯阿諛軟熟奔競附會之爲務權之所在望風而靡然勢之所歸見幾而先趨罔上附下之風興背公謀利之弊作頃者之事(『晦齋先生文集』卷十二, 弘門館上疏).

과 같이 되어 선비의 風習이 절로 바르게 되고 德이 절로 厚하게 될 것이니 和氣를 이루고 災變을 그치게 하는 方法은 이보다 나은 것이 있으랴.

刑獄을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刑獄不可不慎也)

하늘이 만물을 비와 이슬로 살리고 서리와 눈으로 죽이는 것이 仁 아님이 없고 聖人의 萬民에게 德과 禮로 기르고 刑罰로써 겁내게 하는 것이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¹¹⁹⁾

어리석은 백성이 或은 利欲에 움직이고 或은 過誤에 빠지고 或은 誣罔에 들어가고 或은 연루에 얽혀 事狀이 전가지로 變하고 眞정과 허위가 萬端이나 되어서 기극히 밝은 이가 아니면 그 정상을 알아낼 수가 없고 지극히 公正한 이가 아니면 그 마음을 感服하지 못할 것이다. 죽은 者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으니 그 경솔히 하지 못할 것이 이와 같다. (임금이) 天地의 仁을 몸에 받고 萬物을 살리는 마음을 미루어 죄없는 백성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獄事를 친히 보아 죽을 죄수를 세 번 覆審하니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이 지극하나 訟事를 들어서 결단하는 판리가 或은 私情을 가져서 公平하지 못하고 或은 재주가 어두워 밝지 못하여 백성의 살을 깎고 백성의 生命을 죽이게 된다. 事理가 옳은 者도 그 實情을 드러내지 못하고 情狀이 輕한 者도 重罪에 들어가게 되어 원통함을 품고 아픔을 안으니 어찌 차마 말하랴.

詔獄을 베풀어 놓은 것은 親間과 다름이 없어서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심리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詔獄에 들어간 者가 스스로 곧게 할 計策이 없으면 의례히 먼저 自服함으로써 임금의 特赦를 회당하게 되니 진실로 불쌍한 일이다.

數十年來로 士林의 禍가 되풀이되어 일어나매 士大夫의 刑戮에 죽은 者가 몇 사람이나 되는 지도 알 수 없다. 만약 그 지은 罪가 重罪이고 情狀이 明白하여 國法에 容恕할 수 없는 것은 그만이었지마는 그동안 그 罪가 아닌 데도 重刑을 당하여 地下에서 깊은 冤恨을 품고 있는 者가 어찌 없으랴. 원통한 기운이 맺혀서 풀어지지 않는 것이 많으면 和를 傷하여 災變을 부르는 것이다.

帝王의 仁恤한 法은 진실로 죽은 者와 산 사람에게 間隔이 없는 것이니 獄事를 廉察하고 幽冤을 伸雪하는 것이 또한 災變을 그치게 하는 한 方途인 것이다.¹²⁰⁾

奢侈는 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奢侈不可不禁也)

奢侈는 크게 害가 된다. 하늘이 百物을 낳으니 사람이 取하여 쓰니 사람이란 것은 百物의 主人이다. 사람은 耳・目・口・鼻의 欲心이 있는데 그 欲心은 한이 없으며 物質은 山林, 川澤에서 生産되지만 그 生産은 限定이 있고 欲心은 限이 없으므로 天下의 物質로서 한사람을 받들어도 넉넉지 못하고 生産은 限度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天下 물건을 다 써도 부족하여 天物을 없애매 하늘이 怒하고 백성의 膏血을 닦으니 백성이 원망하여 원망이 쌓이고 노여움이 쌓이어서 그칠 줄을 모르면 爭奪이 일어나고 亂亡이 뒤

119) 天之於萬物雨露以生之霜雪以殺之無非仁也聖人之於萬民德禮以養之刑罰以威之無非教也(「弘門館上疏」).

120) 帝王仁恤之典固宜無間於死生平反犴獄伸雪幽冤是亦弭災之一道也(「弘門館上疏」).

따르게 된다.¹²¹⁾

近來에 王子, 王女의 第宅은 극도로 宏大함을 힘쓰게 되고 華麗奢侈함을 다루어 崇尚하여 民家를 毀撤하고 閭閻에 橫亘하여 높은 기둥과 층층의 들보는 宮闕과 비슷하게 되었으며 婚姻의 禮節과 車服什器의 具까지도 그 화려함과 奢侈함을 극도로 하지 않음이 없다. 士大夫의 집도 이것을 본받아 家屋의 큰 것과 婚禮의 奢侈한 것으로서 財物을 損傷시키고 本分에 참람한 것이 한도가 없어서 戒단이 점차 규제하기 어렵다.

임금은 생각하기를 “士大夫들은 처음에 布衣로써 草第에서 出身하였으니 高祖曾祖의 積累한 世業이 없었을 때도 오히려 家屋을 크게 짓고 婚禮를 극진히 갖추는데 하물며 堂堂한 한 나라의 君主로서 子女들에게 能히 室屋을 宏大히 하고 婚禮를 갖추지 아니하겠느냐”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그 罪가 士大夫에 있는 것이지마는 君主가 스스로 닦는 道理로 말한다면 마땅히 源流가 위에서 맑아야만 아랫사람에게 模範이 될 것이다. 또 一說에는 “奢侈로써 그 子女를 떠받드는 것은 그 子女를 사랑하는 所以라”하니 그러나 그 子女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 子女를 害치는 것이다. 대저 儉約함으로써 福을 얻게 되고 奢侈가 損을 招來하는 것은 하늘의 理致(天之理)이다.

현재 눈에 떠는 例를 들면 큰 집을 겨우 이루게 되자 拘忌가 문득 생겨서 궁벽한 마을에 避하여 살고 朱間을 잠그게 되었으며 겨우 一世만 지나다면 문득 廢宅이 되어 子孫이 이것을 保有한 者가 거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限이 있는 財物을 허비하여 無益한 집을 경영한 때문이다. 지난 날에 宗室孝寧大君은 性格이 겸손하고 겸소하여 화려한 집에 居處하기를 싫어하고 일찍이 草家를 지어서 항상 그 속에 살고 있었으므로 能히 壽가 九十歲나 되고 子孫도 번성했으니 이것은 가까운 일의 밝은 징험이다. 지금의 奢侈한 習俗은 진실로 百弊의 根源이온대 그 根源은 官禁에 있다. 백성이 병드는 것과 府庫가 탕진되는 것도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고 또한 족히 원망을 일으키고 災變을 이루게 될 것이다.

諫諍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諫諍不可不納也).

人主가 能히 스스로 聰하지 못하며 반드시 衆聽을 습하여 聰하게 되고 能히 스스로 밝지 못하며 반드시 못사람이 보는 것을 습하여 밝게 되는 것이다.

옛 聖王은 그 聰明思慮가 진실로 凡人으로서는 그 一端을 도울 바가 아니지마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諫言을 즐겨이 받아들이는 것은 善을 좋아하기가 한이 없었던 까닭이다.¹²²⁾ ……지난해부터는 諫言을 듣고 좇는 좋은 점이 점차 처음과 같지 못하여 自己滿足의 氣色이 혹시 外貌에 나타나기도 하여 進言할 즈음에는 다만 寬宥함만 보일 뿐이고 採用하

121) 殄天物而天怒剝民膏而民怨積怒而不知己則爭奪起而亂亡隨之矣 (『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門館上疏).

122) 人主不能自聰必合衆聽而爲聰不能自明必合衆視而爲明古之聖王其聰明思慮固非庸衆人所能助其一端而猶且樂受人之諫者嗜美無窮也 (『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門館上疏).

는 실상은 없으며 災變을 만나 몸을 賁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虛文만 일삼을 뿐이고 直言을 求하는 教旨는 없으니 이것은 直言을 듣기 싫어하고 改過하기에 인색한 뜻이 아니라. 이것 뿐 아니라 臺諫이 단일 論執하기를 조금 굳게 하여 임금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문득 特命을 내려 갑자기 다른 직책으로 옮기니 비록 形迹上으로는 가려서 論할 것은 없으나 물리와 疑心이 없지 않는 것이다. 지난 번에 直言을 求한 뒤에 글을 올린 者가 우연히 忌諱에 저촉되었는데 갑자기 죄를 加하고 저하여 三省에 명하여 推鞠하기까지 하였고 언젠가는 賤한 者로서 일을 말함에 朝廷을 어지럽히고자 하는 者라고 下敎하였으니 이것은 말을 求하는 것으로 나라 안에 陷穽을 과 놓은 것이다.

各己 所喪를 달하여 或 不當한 말이 있더라도 人君은 다만 마땅히 그 善한 것을 가려서 쓸 뿐이니 어찌 망령되게 말한 者에게 怒어움을 加할 수 있으랴.

諫하는 것은 人臣의 利益이 아니라 나라의 福이다. 만일 말로 罪를 당하면 누가 雷霆의 위엄을 犯하여 無益한 進言을 할 것인가.¹²³⁾ 지난 날에 나라의 權柄이 奸臣의 손에 떨어져서 위태하고 亡하는 것이 朝夕間에 있을 때 사람들이 敢히 한 말을 進言하여 觸犯하는 이가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때를 당하여 能히 情狀을 指斥하여 말한자가 있었다면 다만 奸凶의 칼날에 부딪힐 뿐 아니라 임금의 노여움을 살 것이니 몸둥이가 가루가 되고 뼈가 싸라기가 될 것은 의심없는 일이다.

위와 같이 考察하였거니와 退溪는 「晦齋李先生行狀」에서 “聖學의 本末과 時政의 得失을 남김없이 陳述하였다”고 하였다.

4. 「進修八規」

進修八規는 先生이 60歲되는 明宗 5年 庚戌(1550年)에 仁界謫所에서 完成한 것이다. 進修八規는 君主의 進德修業에 관한 八規로 易 乾卦九三爻 文言의 “進德修業의 뜻을 取하고 이것을 敷衍하여 八規를 지어 聖學의 一助를 삼고자한 것인데 깊이 玩味하고 힘써 행하면 帝上의 存心出治의 要와 繼天立極의 道가 갖춰있다”고 先生은 말하고 있다.¹²⁴⁾

孔子는 乾卦三爻를 贊易하여 學問하는 道를 發明하여 가로래 “君子 | 進德修業하느니 忠信이 所以進德也 | 오 修辭立其誠이 所以居業也 | 라” 하였다. 대저 德은 道를 마음에 얻은 것이고 業은 功의 일에 나타난 것이니 大學의 誠意 正心修身은 德이고 齊家 治國 平天下는 業이다. 君子는 學에 뜻하고 日乾夕惕하여 間斷할 때가 없음으로 德이 나아가는 것이 날로 더 높아지고 業의 닦아짐이 날로 더 넓어진다.

進修八規의 其一은 明道理이다.¹²⁵⁾ 道라는 것은 日用事物當行 之理이니 다 性의 德으로서 다음에 갖추어 있어 어떤 事物에나 있지 않는 데가 없으며 어느 時期에라도 그렇

123) 各陳所懷客有不當之論人君但當擇其善而用之而已豈宜加怒於妄言之人乎諫者非人臣之利乃國家之福也苟以言被罪則誰肯犯雷霆之威進無益之言乎 (『晦齋先生文集』卷之十二, 弘門館上疏).

124) 不佞又取進德修業之義衍爲八規以爲聖學之助清閑之燕僊賜省覽深味而力行之則帝王存心出治之要繼天立極之道具於此矣 (『晦齋先生文集』卷之八, 進修八規).

125) 李植譯, 「晦齋集」, 『韓國의 大思想全集』, 同和出版社, 1972.

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른바 잠깐 동안이라도 離脫할 수 없는 것이다. 日用의 가장 가까운 것을 말하면 君臣이 된 者는 君臣의 道理가 있고 父子가 된 자는 父子의 道理가 있고, 夫婦 長幼 朋友가 되고 出入 起居 應事 接物하는 즈음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각 道理가 없는 것이 없다. 대저 사람은 天賦의 性을 稟受하여 萬物이 모두 一身에 갖추어져 있으니 그 道理를 밝혀서 그 天性을 다 한다면 다 堯舜이 되어 天地에 參與하여 天地人 三才가 되고 化育의 功을 도우게 된다. 대저 帝王이 修齊治平의 要와 古今의 治亂 興亡의 變遷과 人材道術의 邪正是非의 分辨과 天命人心의 去就離合의 幾微같은 것은 모두 지극히 드러나고 지극히 隱微한 이치가 있어 經訓史策 속에 갖추어 記錄되었으니 진실로 이것을 講明하지 않고 眩惑됨이 있다면 어찌 大道를 밝혀서 取捨를 決定하며 백성에게 中道를 세울 수 있으랴. 이러므로 帝王學은 이치를 窮究하는 것보다 알치는 것이 없다. 理致를 窮究하면 天下의 事物에 있어서 그 所以然과 그 所當然을 알게 되고 조그마한 의심도 없을 것이다. 대개 窮理의 要¹²⁶⁾는 반드시 讀書에 있으며 讀書의 方法은 또 한 차례를 따라 精密하게 하는데 있고 精密하게 하는 根本은 마음에 있는데 맘의 물건됨은 지극히 虛靈하고 神妙不測하여 항상 一身의 主宰가 되어 萬事의 網(綱)를 드는 것이니 잠깐이라도 存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孟子가 이르기를 “學問의 道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放心을 찾을 뿐이다”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실로 能히 엄숙히 공경하여 항상 存心하고 종일토록 儼然하여 明鏡止水처럼 되어 物欲의 侵亂한 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써 讀書 窮理하매 장차 간 곳마다 통하기 없음이 없을 것이오 그것으로써 應事接物이 장차 事物마다 마땅하게 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居敬이라는 것은 聖學의 始終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날로 賢德한 선비를 親하고 道義의 근원을 講磨하되 반드시 敬으로써 主로 살아야하니 敬이란 것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을 이름이라 聰明睿智도 모두 敬에서 나오고 聖人의 窮理盡性하는 工夫도 이에 있다.¹²⁷⁾

其二是 立大本이다. 先儒 朱子是 君主의 마음으로써 天下의 大本을 삼았던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天下의 일이 千變萬化하여 그 끝이 無窮하며 하나도 임금의 마음에 근본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天下의 일이 바르지 아니함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天下의 일이 비틀어지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自然의 理致”라고 하였다. 옛 舜임금은 禹임금에게 告하기를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 하고 宋太祖는 이르기를 “重門을 활짝 열어 제치니 바로 내 마음과 같다. 조금이라도 邪曲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보게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千古聖人의 心法의 要端이 여기 있다. 堯舜三王의 治는 다 마음에 근본

126) 李植譯, 上揭書.

127) 日親賢德之士講刺道義之源而必以敬爲主敬者主一無適之謂也聰明睿智皆由此出聖人窮理盡性之功在於是矣惟(「晦齋先生文集」卷之八, 進修八規 其一).

하였으니 一心이 바름으로써 萬化가 行하여 졌던 것이다. 漢唐以來의 明君賢相들은 治道를 講求함이 오로지 法度와 刑政의 細細한 사무에만 있고 本源의 있는 바를 알지 못하였음으로 비록 한 시대의 小康은 대략 이룩하였으나 마침내 古代의 지극한 政治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其三是 體天德 곧 天德을 본받는다. 易에 이르기를 “天行이 健하니 君子ㅣ以하여 自彊不息하느니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君子ㅣ終日乾乾하야 夕惕若하면 厲하나 无咎ㅣ리라”고 하였다. 대개 天德은 剛健하고 쉬임이 없(無息)을 뿐이다. 君子는 이것을 법하여 進德修業하는데 힘써서 날로 부지런하고 조금도 태만치 않는다.¹²⁸⁾ 日乾夕惕이라는 것은 自彊不息하는 일이다. 옛 人君은 해가 뜨면 朝會에 나와서 群臣을 보고 朝會에서 물러 나오면 路腹에서 政務를 보고 그 萬幾의 여가와 燕閑한 때에는 聖賢의 遺訓을 講習하고 治亂의 사적을 찾아 그 善한 것은 본받고 그 惡한 것은 경계하였다. 講讀이 끝나고 事物가 접촉하지 않는 心體가 고요할 때에 더욱 마음을 맑게하고 다스리는 工夫를 더하여 不覩不聞할 적에 戒懼하고 無思無爲할 적에 涵養하여 반드시 이 마음으로 하여금 虛明公正하게 하고 한 쪽에 치우침이 없게하여 萬變을 酬應하는 主體로 삼았던 것이다. 생각이 발동하였을 적에는 또 反省하고 살피는 공부를 더하고 天理人欲의 기를 살피서 그것이 과연 天理라면 敬으로서 이것을 擴充하여 조금이라도 막힘이 있지 않게 하고, 과연 人欲이라면 敬으로서 극복하여 조금도 남아 있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한번 畧斷도 없고 一念의 差謬도 없게되어 大本이 서고 達道가 행하여 能히 大德에 통달하여 中和를 이루었던 것이다. 대저 所謂天德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서 두 가지로 뉘어 없고 순수하여 雜됨이 없는 것이니 숨쳐서 말하면 誠인 것이다. 動靜이 어긋남이 없고 表裏가 함께 다 바르고 終始가 한결같은 然後에야 거의 天德에 통달할 수 있다. 만약 길으로는 警戒하는 말을 하여도 속으로는 怠荒의 漸이 있고 길으로는 敬賢하는 모양은 있어도 속으로는 親賢하는 마음이 없으며 大庭 여러사람 가운데서는 自身을 恭敬하면서도 深宮에 한가히 있을 때에는 뜻을 함부로 하고 經筵에서 講論할 적에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윽한 구석진 자리에서는 뜻이 바뀌어 진다면 이것은 誠이 아니다. 程子が 이르기를 “天德이 있어야만 能히 王道를 말할 수 있는데 그 要는 다만 혼자있을때 謹愼함에 있다”¹²⁹⁾고 하였다.

其四是 法往聖 곧 과거의 聖人을 法받는 것

帝王의 學問은 마땅히 과거의 聖人을 계승하려는 뜻을 가진다. 聖人의 道는 매우 높고 넓어서 따라가 미칠 수 없을 것 같으나 그 心法을 求한다면 精一뿐이며 그 德行을 求한다면 仁孝일 뿐이다. 이것이 지극히 簡略하여 번거롭지 않고 지극히 가까워서 멀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8) 其三曰體天德易曰天行健君子以自彊不息又曰君子終日乾乾夕惕若勵无咎蓋天之德剛健無息而已矣君子法之勉彊於進德修業惟日孜孜無少怠慢。

129) 程子曰有天德便可語王道其要只在慎獨惟(「晦齋先生文集」卷之八, 進修八規, 其三)。

後世의 人主들은 모두 聖王의 道를 高遠하다. 생각하고 지극히 간략하고 지극히 가까운데서 찾을 줄을 모르는 까닭으로 數千年以來로 堯舜의 政治를 다시 보지 못하였으니 탄식할 일이다.

聖人의 道는 仁에 근본하였고 仁을 하는데는 반드시 孝에 비롯하나니 孝는 百行의 근본이요 萬가지 敎化의 근원이다. 대개 天에는 四德이 있는데 元이 그 長이 되니 사람이 그 理를 稟受하였으니 이를 本心의 全德이라 이른다. 사람마다 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 마음을 保全하는 사람은 적다. 오직 聖人은 그 本心을 能히 온전히 하여 仁孝의 道를 다하여 愛親之心을 미루어 백성에게 미치게 하고, 仁政을 행하여 백성을 어루만져 기루고 鰥寡孤獨으로 하여금 각기 生活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미루어 物에 미치게 하여 孟春에는 伐木을 禁止시키고 날짐승의 집을 없지르지 말게 하고 어린벌레를 죽이지 말게 하였다. 鰌祭魚되에 澤梁에 들고 草木의 잎이 떨어진 뒤에 山林에 들어가고 昆蟲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火田을 하지 않나니 이것이 鳥獸와 魚鼈이 다 잘 살고 山川鬼神도 또한 편안하지 않음이 없으며 和氣가 충만하여 瑞慶이 이르게 된다. 무릇 이것이 仁의 일이며 孝의 미루어짐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孔子는 “나무 한 그루를 자르고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때를 맞추어 하지 않으면 孝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惻隱한 마음을 해치는 때문이다.

이 마음이 流通하고 두루하여 萬物에 입혀지지 아니함이 없게 되어야 自己의 性을 다 하고 남과 物의 性도 다할 것이니 聖人의 天地에 參與하여 化育의 功을 贊하는 것이 다 至誠仁愛한 마음에서 근본한 것이다.

대개 帝王의 道는 體가 있고 用이 있으니 精一에 마음을 두는 것은 體가 서는 所以요 仁孝에 道를 다하는 것은 用의 행하는 所以이다. 대저 이와같이 하면 體와 用이 完全하고 王道도 完成될 것이다. 孟子가 이르기를 “나는 堯舜의 道가 아닌 것을 敢히 임금앞에 진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의 陳述한 바도 堯舜의 道아닌 것이 없다.¹³⁰⁾

其五是 廣聰明 곧 聰明을 넓힐 것.

爲治之道는 聰明을 넓히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人君이 작은 한 몸으로 天人사이에 位置하여 庶政의 잘못됨과 人材의 良否와 天意의 譴告와 民情의 愁怨에 聰明이 미치지 못함이 있어 혹시 가리워지는 바가 있으면 어찌 그 幾微를 살펴서 그윽하고 먼데까지 밝게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모두 道理에 합할 수 있으랴.

經史를 상고하여 보건대 政治를 잘하는 임금은 言路를 열고 聰明을 넓히는 것으로써 急務를 삼기 않는 이가 없었다. 舜임금은 물기를 좋아하며 邇言을 살피기를 좋아하였으니 堯임금의 禪位를 받은 처음에 다른 政務를 볼 겨를이 없이 四方의 視聽을 넓히는데 汲汲하였으며 禹王은 善言을 들으면 절을 하고 鍾·鼓·磬·鐸을 달아놓고 四方의

130) 蓋帝王之道有體有用存心於精一者體之所以立也盡道於仁孝者用之所以行也夫如是則體用全而王道畢矣孟子言我非堯舜之道不取以陳於王前臣之所陳無非堯舜之道也…(『壽齋先生文集』卷之八, 進修八規, 其四).

선비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寡人에게 道로써 가르치려는 사람은 鼓를 두드리고 義로써 開諭하려는 사람은 鍾을 치고, 일로써 告하려는 사람은 鐸을 흔들고, 걱정스러운 것을 말하여 줄 사람은 鏡을 치고 獄訟이 있는 者는 鞫를 흔들어야” 하였다. 한번 목욕할 동안에 세번이나 씻던 頭髮을 움켜쥐고 나온 것은 모두 그 祝聽을 넓혀서 天下의 壅蔽를 除去하기 위한 것이다.

聖人の 마음은 青天白日과 같아서 조그마한 티와 가리움이 없는데도 또 能히 聰明을 넓혀서 欺蔽한 점이 없었으니 비록 九重의 깊은 곳에 있으나 海內的 治亂과 生民의 休戚과 臣僚의 邪正이 눈에 확하였다. 대개 人主의 보고듣는 것은 限定이 있음으로 반드시 衆人이 보고 듣는 것을 습하여 聰明으로 삼는 것이니 진실로 그 마음을 크게 공정하게 하여 치우친 바가 없어서 直言을 듣기 좋아하여 謙虛한 態度로서 받아들이는 이가 아니라면 어찌 이에 미치랴.

孔子的 말속에 이르기를 “良藥은 입에는 쓰지만 病에 利롭고 忠言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行에 利로우니 湯王과 武王은 直言을 받아들임으로써 國家가 興旺하였고 桀王과 紂王은 唯唯로써 國家가 滅亡하였다”고 하였다.¹³¹⁾

陸贄의 말에는 “明智가 아니면 能히 直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聖德이 아니면 能히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지 못한다. 直言을 오게하면 그 지혜가 더욱 크게 되고 질책을 찾아내게 되면 그 德이 더욱 빛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千古의 格言이니 君主가 마땅히 반복 외워서 自身을 警省해야 한다. 대저 忠言과 곧은 이론은 人臣의 이익이 아니고 國家의 福이니 忠義가 감동되어 몸을 버려 나라를 위하는 자 아니라면 能히 嚴威아래에 極言하는 이는 적을 것이다.

이러므로 哲侯와 興王은 이치에 깊이 밝아서 말을 求하기를 미치지 못할 것같이 하고 善言받아들이기를 등근 늑대를 굴리듯 빨리하고 諒直한 자를 嘉尚히 여기고 訐犯者를 義롭게 여기며 어리석고 천한 자를 용서하여서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이 불어나기 쉽게 하여 충실한 말을 듣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다. 이에 諫하는 복을 두고 착한 것을 告하는 기를 세우고 警戒하고 조심하라는 鞫를 달고 임금의 허물을 바르게 하는것을 맡은 벼슬을 두어 부지런히 묻고 받아들여 오직 착한 것만을 求하여 항상 한사람이라도 그 心情을 다하지 못하고 한 事件이라도 그 道理를 얻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이에 비방하는 말을 求하고 輿論을 들어서 葑菲는 그 뿌리가 나쁘다고 하여 캐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樵夫는 그 身分이 微賤하다하여 詢訪하지 않는일이 없었다.

이때는 內로 朝廷에는 羣臣百官으로부터 밖에는 草野의 배웃 입은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의 품은 생각을 披瀝하여 治化를 도우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이것이 嘉言이 숨겨지지 아니하여 君德이 밝아지고 朝廷이 修整되었으며 下情이 모두 上達되어 간사한 者가 막고 가리는 禍가 없어졌다. 人主의 마음이 만약 조그마한 偏私의 蔽가 있어

131) 孔子之言曰良藥苦口而利於病忠言之逆耳而利於行湯武以諤諤而昌桀紂以唯唯而亡(共五)

서 忠直한 사람을 疎遠하고 正論을 듣기 싫어하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아첨하고 비위만 맞추어 비록 나라의 禍가 아침 저녁으로 迫頭하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잔사한 말이 대궐 뜰에서 말하더라도 누가 敢히 한마디 말을 할까.

自古로 人主가 위에서 孤立하여 聰明이 막혀서 하늘이 怒하여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원망하여도 알지 못하고 날로 危亡의 지경에 나아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라 옛 聖王이 人心을 感動시킬 수 있거늘 하물며 사람이라.

剛健으로써 天道를 法받고 謙虛로써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中和의 표준을 세우고 包容의 도량을 넓혀서 善과 德을 좋아하되 一念이라도 誠實하지 않음이 없으며 命을 내려서 施行하되 一言이라도 信이 아님이 없으며 自然히 웃사람의 마음이 感動되어 착한 말과 正論이 다 앞에 陳述되어 光明하고 和平한 政治를 도와서 이룰 것이다.¹³²⁾

其六은 施仁政 곧 仁政을 베푸는 것.

易에 말하기를 “大哉乾元이여 萬物이 資始하나니(乃統天이로다)”¹³³⁾ 至哉坤元이여 萬物이 資生하나니(乃順承天이니), 天地의 가운데(中)에 사람이 位置하여 天地에 參與하는 故로 元을 본받는 것은 人君의 職責이요 元을 調和하는 것은 宰相의 일이다.

元은 仁이요 仁은 人心이다. 사람이 出生할 때에 天地의 物을 生하는 마음을 얻어서 마음으로 하였으므로 사람마다 惻隱한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仁의 시작하는 끝이다. 人君은 이 마음을 미루어 政治에 施行하여 온 세상에 生命가진 種類에게 다 그 恩澤을 입도록 할 것이니 이것은 元을 體得한 것이라고 이룰 것이요, 宰相은 이 마음을 가지고 善政을 贊襄하여 愛人惠物하는 뜻을 베풀고 天地生育의 마음에 順應할 것이니 이것은 元을 調和한다고 하는 것이다.

임금과 宰相이 協心同德하여 道에 합하고 政治가 다스려져 太和에 保合하여 어진이들이 모든 位次에 參列하여 백성과 物에 惠澤이 두루 미치면 心和氣和하여 天地의 和氣가 應하여 陰陽이 고르고 風雨가 때맞고, 群生이 生育하여 萬物이 번식하여 모든 福된 物質과 이를 만한 祥瑞는 다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王道가 완성될 것이다.

自古로 人君이 仁政을 베풀고자 하나 仁을害치는 것이 두가지 있다. 刑罰이 煩苛하면 원망과 고통이 많아서 仁을害치며 賦斂이 무거우면 백성이 그 膏血을 다하게 되었으니 仁을害친 것이다. 그러므로 孟子는 刑罰을 가볍게 하고 稅斂을 輕減하는 것으로 仁政을 베푸는 根本이라 하였으니 대개 能히 이와 같이 못하면 비록 仁心, 仁聞이 있더라도 백성은 그 恩澤을 입을 수 없다.

帝王의 治는 仁義・禮樂에 根本하였으나 백성이 政教를 따르지 않는 者가 있으면 刑罰으로써 整齊하나니 이것은 다만 政治를 補助하는 道具인 것이다. 그러므로 刑法은 비록

132) 古之聖王感人心而通天下之志者誠信而已矣誠者爲治之本而信者人君之大寶也誠信之至可以感鬼神格天地而況於人乎...剛以法天虛以受人建中和之極廓包容之量樂善好德而無一念之不誠發號施令而無一言之不信則自然羣情感動昌言正論畢陳而前有以贊成光明恭和之治矣惟(其五).

133) 乾卦彖辭.

設置하였으니 매우 삼가하고 哀矜하는 뜻이 그 속에 있었다.

堯陶가 舜帝의 德은 稱道하여 “帝의 德은 허물됨이 없어서 아랫사람에게는 簡으로서 임하고 백성을 너그러움으로써 거느리고 罪가 의심나는 것은 輕한 쪽으로 罰을 주고 功의 의심나는 것은 重한 쪽으로 賞을 주며 無罪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失不經하여 好生의 德이 백성의 마음에 充足하였다. 대개 舜임금의 政治는 너그럽고 簡한데 근본하고 刑은 刑이 없기를 목표로 하여 백성이 中道에 協助한 때문에 四方이 動한 功效가 있었다. 이것은 後世에 마땅한 법받아야 할 바이다. 孔子는 말씀하시기를 “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敬重하고 信이 있고 節用하고 愛人하라”하였고 有若은 이르기를 百姓이 豊족하면 임금이 어찌 豊족하지 않으며 百姓이 豊족하지 않으면 임금이 어찌 豊족하리요”고 하였다.¹³⁴⁾ 대개 侈用하면 傷財하고 傷財하면 반드시 害民에 이르므로 人民은 반드시 人君과 百姓이 一體가 된 理致에 깊이 밝아서 百姓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의 근심은 근심하여 恭遜하고 謙소하여 節用하고 自己는 節約하고 아랫사람에는 厚하게 하여 漢文帝가 百金의 費用을 아끼는 것과 宋仁宗이 하루저녁 배고픈 것을 참는 것과 같이 한 然後에야 弊習을 改革하고 너그러운 政治를 베풀어서 백성이 侵奪을 免하게 될 것이다. 「大學」에 「詩經」의 말을 引用하되 “기쁘다 君子여 백성들의 父母라 하니 백성들의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백성의 父母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 殷나라가 民心(또는 百姓)을 잃지 아니하였을 때는 上帝에 祚하였다. 마땅히 殷나라를 거울삼아라. 天命을 保全하기가 쉽지 않다. 百姓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百姓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先儒朱子가 이어서 말하기를 “天下를 다스리는 자가 能히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契矩하여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고저 하는 바를 能히 그만두고저 하여도 그만 둘 수 없다”고 하였다. 대저 所謂 이 마음이라는 것은 至誠 慈愛하는 마음이니 대개 이 마음이 있는 然後에 仁政을 行할 수가 있고 진실로 이 마음이 없으면 한갓 法만 가지고 能히 써 스스로 行하지 못하는 것이다. 옛 唐太宗이 罪를 決斷하는데 哀傷하여 百姓을 侵害하여 君主의 一身을 奉養하는 것은 自己 다리의 살을 베어서 배를 불리는 것과 같다. (割肌腹飽)는 戒가 있었고 宋太祖는 형액으로 罪에 걸리는 것을 보고 感泣하여 諸侯에게 撫養의 道를 티일러 仁愛一念이 足히 國脈을 기리어 歷年을 延長시켰던 것이니 진실로 至誠惻怛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찌 能히 이에 이르렀겠느냐. 易에 이르기를 “天之大德曰生이요 聖人之大寶曰位니 何以守位오 曰仁이요”고 하였다. 또 孟子는 이르기를 “先王이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이에 사람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政治가 있다”¹³⁵⁾고 하였다.

其七은 順天心 곧 天心을 順應하는 것.

134) 孔子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有若曰百姓足君孰與不足百姓不足君孰與足(其六).

135) 昔唐太宗哀傷於斷獄而有割肌腹飽之戒宋太祖感泣於橫罹而諭諸侯撫養之道仁愛一念足以壽國脈而縣歷年苟非有至誠惻怛之心何能至此易曰天地之大德曰生聖人之大寶曰位何以守位曰仁孟子曰先王有不忍人之心斯有不忍人之政(其六).

伊尹은 太甲에게 訓戒하기를 “하늘은 親한 이가 따로 없다. 능히 공경하는 이를 親하며 백성은 항상 생각함이 없고 어진이를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傳說이 高宗에게 告하기를 “하늘이 聰明하시니 聖人이 이를 法받으면 臣下가 공경히 받들고 백성이 따라서 다 스러진다”고 하였으며 召公은 成王에게 告戒하기를 “皇天上帝가 그 元子와 이 大國 殷의 命을 改革하였으니 지금 王의 受命이 無窮한 아름다움이 있아오니, 또한 無窮한 근심에 있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으랴”고 하였다. 옛 聖賢이 그 임금에게 告戒한 것이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었다. 그런즉 임금이 德을 닦아 이를 보존하는 道理가 敬天하는 것보다 무엇이 큰것이 있으랴.

대저 하늘이라는 것은 理의 存在한 바로서 感應의 妙는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더 빠르니 임금이 진실로 能히 그 德을 힘써 공경하여 항상 하늘에 짝하려고 생각하고 處心 行事를 한결같이 天理에 順應하고 天心에 合한다면 하늘이 많은 祥瑞를 내리고 天祿을 기러 보존할 것이요. 만약 能히 공경하지 못하여 處心 行事가 덜끝만음이라도 天理에 어긋나고 天心에 合하지 못함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여 災殃으로 應할 것이다. 이 이치는 환하게 밝아서 지난일에 징험할 수 있으니 옛 帝王이 새벽부터 매우 조심하여 上帝를 대하듯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敢히 한 번 숨쉴 동안이라도 欺瞞함이 없었던 것이다.

옛 成湯이 큰 가뭄의 災殃을 만나서 여섯가지 일로써 自責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 人君이 마땅히 警省할 것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개 聖人은 마음을 至誠에 둠으로 항상 事天하는 道理를 다하여 부족함이 없었으며 六事만이 마음에 만족치 못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招來할 수가 있을 듯 하므로 날날이 말하여 스스로 반성하였는데 後世 人君은 敬天하는 마음이 能히 純一하지 못하며 災殃을 만나 修省하는 것이 또한 未盡함이 있으니 能히 하늘을 感動시킬 수 있으랴.

대저 人君의 心事の 天意에 合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징험할 수 있느냐하면 人心에 징험하면 알 수 있다. 君心이 大公至正하고 好惡取舍가 義理에 마땅하고 여러 사람의 뜻에 맞으면 반드시 天心에 합당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하고 道理에 어긋남이 있다면 人心을 거스리는 것이니 어찌 天意에 合할 수 있으랴. 天心은 即人心이니 人心을 얻으면 天意도 얻는 것이다.

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보는 것은 백성의 보는 것으로 부터하며 하늘의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의 듣는 것으로부터 한다”고 하였으며 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威嚴을 두려워하여 이에 保全한다”고 하였다.

이 이치를 깊이 살펴서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百姓의 마음을 거스려 天意에 어긋남이 없게하여야 한다.¹³⁶⁾

136) 君心大公至正好惡取舍當於義理而協乎羣情則必合於天心矣如或不爾而有章於道則拂人之心矣何以合天意乎天之心即人之心人心得則天意得矣書曰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詩云畏天之威于時保之深燭是理常存祗懼罔拂百姓以違天意(其七).

其八은 致中和이다.

中庸에 이르기를 “致中和면 天地 | 位焉하며 萬物이 育焉이니라”하였고 또 이르기를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오 發而皆中節을 謂之和이니 中也者는 天下之大本 | 오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 | 니라”고 하였다.

대개 天命의 性은 純粹至善하여 人心에 갖추어 있는데 그것이 바야흐로 發하기 이전에는 渾然히 心中에 있어 치우친 바가 없으므로 中이라 이르고 그것이 發하여 品節이 틀리지 않고 乖戾함이 없으므로 이것을 和라 한다. 靜하여 兼該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性의 中되는 所以이니 天下의 理가 다 여기 말미암아 나오는 까닭으로 天下의 大本이라 하고 움직여서 맞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情의 發이 그 바른 것을 얻은 것이니 天下 古今 함께 말미암는 바이므로 天下의 達道라 한다. 이것은 人心이 寂感하는 自然의 理이며 體用의 온전함이니 本來 다 이와 같은 것이고 聖人和 不愚의 差로써 더하고 덜한 것은 없다. 그러나 靜한 적에 存養함을 알지 못한다면 天理가 어두워서 大本이 서지 못하고 動할 적에 節度에 맞게 할 줄 모르면 人欲이 방사하여 達道가 行하지 못한다.

오직 君子는 不覩不聞의 곳에서 항상 戒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渾然의 本體를 保存하여 치우침이 없어서 그것을 지켜 잃지 않으면 大本이 날로 더욱 굳게 서고 또 隱微幽獨한 즈음에 幾微를 살펴서 事物에 應할 때에 더욱 틀림이 없어서 간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면 達道가 날로 더욱 넓이 行하여질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中和를 이루어 天地가 定位하고 萬物이 生育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先儒朱子說에 이르기를 “靜할 적에 한 번 숨힐 동안이라도 中하지 않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바르고 天地의 心이 또한 바르게 됨으로 陰陽動靜이 자기 제자리를 얻어서 이에 天地가 定位하고 動할 적에 한가지일도 和하지 않음이 없으면 나의 기운이 順하고 天地의 기운도 또한 順하고 充滿하여 틈이 없고 즐겁고 기쁘게 통하여 萬物이 이에 그 生을 成遂시키게 되니 이것은 萬物의 本源이며 一心의 妙用이며 聖神의 能事이며 學問의 極功인 것이다.¹³⁷⁾

喜怒, 哀樂의 發이 다 理에 맞고 한사람을 賞증으로써 千人萬人이 勸獎되고 한사람을 怒한으로써 千人萬人이 懲戒되며 백성의 窮乏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鰥寡孤獨이 모두 그 處所에 安定하고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므로써 群生品類가 다 恩澤을 입으면 萬物이 어찌 그 生을 發育하지 않으랴.

陰陽이 調和되어 風雨가 때를 맞추어 오고 災變이 消滅하여 祥瑞가 이르며 天地中에 生命있는 種類가 자기 그 性을 이룰 것이니 이것은 中和를 이룬 極功이다.

先儒의 所謂 “마음이 和하고 氣가 和하니 天地의 和氣가 應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後世의 明哲한 君主로서 善治에 뜻을 둔 이는 진실로 또한 많았지만 여기에 힘쓰이는 것이 아니하였으므로 天地가 應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祥瑞가 이르지 아니하며 三辰이

137) 先儒朱熹之說曰靜而無一息之不中則吾心正而天地之心亦正故陰陽動靜各止其所而天地於是乎位矣動而無一事之不和則吾氣順而天地氣亦順充塞無間歎欣交通而萬物於是乎育矣此萬化之本源一心之妙用聖神之能事學問之極功也(其八).

바로 運行되지 않고 六氣가 和하지 않고 地震하고 山이 무너지고 水災, 旱災, 饑饉 등으로 災變이 거듭발생하여 群生이 자라나지 못하니 어찌 이렇게 연유를 생각지 않으랴.

대개 人君은 天位에 居하여 萬物을 다스리며 九重宮闕 깊은 속에 마음이 고요한 때에 털끝만큼도 치우친 변통이 있으면 그 中을 잃으므로써 天地가 그 位置에 安定되지 못할 것이다. 念慮가 發하는 것과 刑政의 施行에도 한가지 일이라도 義理에 어긋남이 있으면 그 和를 잃으므로써 萬物이 發育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人主의 一心은 萬化의 根源이니 잠깐 동안이라하여 마음을 간직하지 않으며 조그마한 것이라하여 살피지 않으리요

위의 八規는 모두 聖經 賢傳의 뜻에 근본하였으니 進德修業하는 要가 아닌것이 없다. 다만 임금의 學問輔導하는데 위주로 하였으므로 治道の 節目에는 具備하지 못하였으나 政治하는 綱領만은 이에 갖추어졌으니 이로써 修身齊家하고 이것으로써 中道를 세우고 표준을 세우고 이로써 紀綱을 세우고 朝廷을 바로 잡고 四方의 門을 여러 視聽을 넓히며 賢材를 任用하여 모든 官職을 맡기고 聖道를 밝혀서 人心을 바로잡고 教化를 숭상하고 風俗을 변하게 하면 二帝三王의 政治도 여기에 넘지 않을 것이다.

政治하는 道理는 비록 多端하다 하더라도 그 本源地를 求한다면 人主의 마음에 있으며 근본을 바로잡고 根源을 맑게하는 道도 또한 學問을 힘쓰는데 있다.¹³⁸⁾

其九는 養國本 곧 世子를 輔養하는 것.

詩經大雅篇에 이르기를 “이 文王이 마음을 공경히 하고 조심하여 上帝를 섬기므로 福을 많이 받았다” 하였고 또 “德을 힘쓴 文王은 어진 소문이 그치지 않으시니 上帝께서 周나라에 베풀어 주시되 文王의 孫子에까지 미치었다”고 하였다. 대개 文王은 謹愼하는 공경과 힘쓰는 誠이 있어 能히 事天의 道를 다한 까닭으로 上帝께서 베풀어 주신 慶事가 있고 恩澤이 百世에까지 끼쳤던 것이다.

예전 太任이 文王을 孕胎하였을적에 胎敎의 法이 있었던 까닭으로 文王이 나면서부터 밝고 聖스러웠으며 옛 聖人의 자식 敎育하는 法은 孕胎할 때에 始作하였는데 하물며 이 미 나서 어린이가 분별할 줄 아는 때이겠느냐.

元子가 지금 비록 襁褓에 싸여 있으나 타고난 특이한 資資이 똑똑하고 風成하여 반드시 보통사람보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니 敎養輔道하는 道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禮經을 상고 하건대 三王이 世上을 敎育할적에 반드시 禮樂으로써 敎育하고 太傅와 小傅를 세워 敎育하였으니 太傅는 앞에 있고 小傅는 뒤에 있었으며 들어오면 保가 있고 나아갈 적에는 師가 있으니 이러므로 가르침을 깨닫고 德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保傳篇에 이르기를 “옛날의 王者는 太子가 나면 禮를 舉行하였는데 有司가 齊戒(又は 齋戒) 엄숙하여 禮服을 갖추고 太子를 南郊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 보이는 것이요. 大闢을 지

138) 右八規皆本聖經賢傳之旨無非進德修業之要但以主於輔導聖學而未暇備治道之節目然其爲治之綱領則具於此矣以之而修身齊家以之而建中建極以之而立紀綱正朝廷關四門廣視聽任賢材布衆職明聖道正人心崇敎化變風俗二帝三王之治不踰於此矣治道雖曰多端救其本源之地在於人主之心端本清源之道又在於務學 (『晦齋先生文集』 卷之八, 進修, 八規, 其八).

날적에는 내려서 가고 宗廟를 지날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빨리가는 것은 孝子の 道인 까닭으로 赤子때 이미 敎育은 벌써 行하여졌던 것이다.

周成王이 襁褓에 싸여 있을 때에 召公은 太保가 되고 周公은 太傅가 되고 太公은 太師가 되었는데 保는 그 身體를 保養하는 것이고 傅는 德義로써 輔傳하는 것이고 師는 敎訓으로서 啓導하는 것이니 이것이三公의 職務이다. 이에 少保, 少傅, 少師를 두었으니 이는 太子와 더불어 居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분별함이 있으면 太師, 太傅, 太保의三公과 少師, 少傅, 少保의 三少는 孝, 仁, 禮, 義를 밝혀서 啓導, 熟習시키고 邦人을 좇아버려 惡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다 天下의 바른 선비로서 들은 것이 많고 학문이 있는 者를 가려서 太子를 모시고 보위하여 더불어 居處하고 出入하였다 그러므로 太子는 나면서부터 바른 일을 보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도리를 行하게 되어 左右와 前後가 다 바른 사람이다.

대거 바른사람과 더불어 항상 居處하면 能히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齊나라에서 生長하면 齊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바르지 못한 사람과 항상 더불어 居處하면 能히 不正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楚나라에서 生長하면 楚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릴적에 이룬 것은 天性처럼 되고 習慣은 自然처럼 된다” 하였으니 三代之 國運이 長久한 所以는 그들이 이와 같이 太子를 輔翼하여 太子가 갖추어 있었기 때문이다.¹³⁹⁾ 三代聖王의 制度는 後世에 다 回復하여야 할 것이어든 하물며 이 太子를 輔翼하는 法은 더욱 宗社 生民의 잘되고 못되는데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

秦漢以來로 太子를 敎養함이 매우 苟且 簡略하여 啓諭함이 道義가 아니고 敎導하는데 法度없어서 禍敗를 招致한 것이 많았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옛적에 文王이 太公으로 하여금 太子를 師傅케 하였는데 太子가 鮑魚를 즐기매 太公이 주지 않으며 말하기를 “禮에 鮑魚는 俎豆에 오르지 않으니 어찌 非禮한 음식으로 太子를 養育하리요”하였으니 옛사람이 太子가르치는 것의 그 엄격함이 이와 같았다.

非禮의 飲食으로 太子를 기를 수 없다고 하였으니 不正한 사람 不正한 빛깔(色) 不正한 소리는 또한 귀와 눈에 接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太子의 善은 일찌기 깨우쳐 알리고 左右를 選擇하는데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太子가 正人이 될 것이 이것이 易에 이르는바 “蒙以養正之道也”인 것이다.

무릇 保養敎諭하는 方法은 한결 같이 三代之 法과 같이 할 것이니 侍講院의 設置를 기다릴 것 없이 일찌기 師·傅 保를 세워서 그 調護의 職務를 맡게 하고 또 賓客을 두어서 번갈아 서로 들어가 모시어 敎養의 職務를 다 하게 할 것이다. 太子를 南郊에 보인다는 것은 대개 옛 天子의 禮이었는데 지금은 비록 舉行할 수 없으나 大闕을 지날때에는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宗廟를 지날때에는 머리 숙이고 빨리 가는 禮는 臣子の

139) 孔子曰少成若天性習慣如自然三代之所以長久者以其輔翼太子有此具也(其九).

道理를 보이는 것이니 지금도 또한 行할 수 있는 것이다. 保母와 侍奉하는 사람을 아울러 溫良 恭敬하고 寬裕 慈惠하며 德行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채우고 만약 陰邪不正한 사람이 있으면 물리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器用, 衣服, 玩具도 다 모름지기 質朴한 것으로 하고 奢侈한 물건은 눈에 接하지 못하게 하고 淺俗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教化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道理에 맞기가 天性처럼 되어 어릴때에 벌써 聖人의 바탕이 갖추어질 것이요 조금 자라서는 嘉言, 格論을 날마다 앞에 陳述하여 순수한 資質을 養成하고 聰明한 天性을 開發한다면 習慣이 智慧와 더불어 자라나 한 가지를 들으면 백가지를 알아서 文王의 聖明과 다름이 없을 것이므로 宗社臣民의 福이 실로 이에 根源할 것이다.

가만히 생각컨대 지금 宗社生靈의 萬世의 計劃으로서는 다만 聖學을 輔導하는데 있으며 더욱 東宮을 教養하는 것 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임금의 德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여 規戒의 더함이(益)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東宮이 지금 襁褓에 쌓여있다 하여 그 輔翼의 道를 疏忽히 하여서는 안된다.

대저 聖人은 舜임금 같은 聖人은 없사오나 禹, 皋陶는 일찌기 規戒함을 잊지 않았으며 召公도 또 이르기를 “若生子罔不在厥初生”이라 하였다.

대개 아들이 처음 날때에 教養하는 것이 그 道를 얻으면 賢哲하게 되고 그 道를 잃으면 愚昧하게 된다는 것을 알한 것이다.

輔導하는 規度와 教諭하는 方法은 九條에 대략 具備되었다.¹⁴⁰⁾

退溪先生은 進修八規에 관해서 이르기를 “學問과 德行이 可히 君主를 輔佐할만 하였고 마음은 懇懇하여 항상 임금을 堯舜같은 임금으로 만들고 백성을 堯舜時代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으로써 自己任務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遷謫中에서도 지극한 忠誠을 이기지 못하여 易 乾卦 九三爻 文言의 進德修의 뜻을 取하여 이를 敷衍하여 八規를 지어 忠誠을 바치고저 하였다”고 하였다.¹⁴¹⁾

Ⅳ. 結 論

위에서 먼저 先生의 生涯와 德行을 考察하기 위해서 先生의 生涯와 그 時代狀況, 先生의 人品과 德行, 箴銘과 大學章句補遺를 分析考察하였다. 先生은 일찍 높고 먼 立志를 于先하였다. 뜻이 높으면 卑陋하지 않고 멀면 限定됨이 없다. 卑陋하지 않고 限定됨이 없으면 道를 可히 배울수가 있다고 하거니와 “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함이 있는 者 또한 이와 같다. 곧 나도 舜과 같이 하면 舜과 같이 될 수 있다(舜何

140) 夫聖莫聖於舜而禹皋陶未嘗忘規戒召公又曰若生子罔不在厥初牛自貽哲命蓋言子之初生教養之得其道則哲失其道則愚凡人皆不可不謹而況儲貳之重乎輔導之規教諭之方粗備於九條(「晦齋先生文集」卷之八, 進修八規, 其九).

141) 「晦齋李先生行狀」.

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 努力하여 “죽은 뒤에야 그친다(死而後已)”는 先生の 立志는 聖學을 배워 儒學의 典型的인 聖賢이 되고자 하는데 힘쓰고 聖學과 箴銘에 의해서 꾸준히 뜻을 敦篤히 하여 存心養性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先生이 14歲 때 聖賢의 問學에 뜻을 勸勉하고(厲志聖賢之學), 27歲되는 해 元旦에 聖學을 든독히 하고 聖賢의 德을 닦고자 하는 높은 뜻을 가지고 實踐窮行할 것을 다짐하는 五箴을 지으니 그 元朝五箴并序에 이르기를 “듣건대 옛 聖賢들은 그 進德함이 날마다 새롭지 아니함이 없으며 오직 날로 부기런하여 죽은 뒤에라야 그친다 하였으니 대개 사탐되는 道理를 다하여 하늘이 賦與한 바를 저버리기 않으려고 함이었다. 내가 나서 27年이나 되었다. 行實은 規範에 맞지않고 말(言)은 法度에 어긋남이 많으며 學問은 매우 힘써도 道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이는 먹어도 德은 나가지 않으니 聖賢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마침내 衆人으로 돌아갈 것이 明白하다. 아! 오늘은 元朝이다. 해가 또한 바뀌었는데 나 홀로 옛 그대로 德은 새롭게 하지 않으리요”고 하고 있다. 退溪先生은 “아! 우리 東國은 옛부터 仁賢의 德化는 입었지단 道學은 傳함이 없었다. …우리先生은 …스스로 이 學問에 奮發하여 闡然히 날로 드러나는 道德이 行實에 符合하였고 완하게 붓으로 적어 내어 말이 後世에 傳하게 되었으니 우리 東方에서는 그와 비길 사람은 적을 것이다”고 하였다.

先生은 朱子가 編次한 「大學章句」를 고쳐 編次하였는데 그것이 「大學章句補遺」이다. 「續大學或問」은 그 고쳐 編次한 理由를 敷衍한 것이다.

或人이 물기를 “大學一篇은 程子가 처음으로 尊信하고 表章하였으며 또 簡編을 序次하고 그 歸趣를 發明하였다. 朱子는 章句를 著述함에 비록 程子의 뜻을 根本하였으나 다시 錯誤된 簡編을 訂定함에 있어서는 程子의 見解에 다름이 있으니 어떠한 이유인가” 하거늘, 先生은 대답하기를 “天下의 이치는 무궁하니 비록 聖人이라 하더라도 能히 다 窮究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前代의 聖人이 發明하지 못한 바를 後世의 聖人이 發明한 것이있고 前代의 賢人이 發明하지 못한 바를 後賢이 말한 것이 있으니 程朱의 學問에 진실로 淺深高下를 말할 수 없으나 所見에 있어서는 詳略異同이 能히 없을 수 없다”고 하여 聖經賢傳에 관련된 述作의 典範이라 할 思想이 表明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根本的인 思想은 政治思想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先生의 여러 著述에는 可히 先生의 學問을 볼수 있는 것인데, 그 精詣한 見識과 獨得한 妙는 忘機堂과의 無極太極을 辨論한 書 四, 五篇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으며 여기 나타나 있는 말은 儒道의 本源을 闡明하고 異端의 邪說을 辯駁하여 精微를 꿰뚫고 上下를 洞徹하여 純粹히 한걸같이 正道에서 나온 말이었으니 宋儒諸賢 特히 考亭에게 얻은 것이 더욱 많았다고 한다.

無極太極辯과 答忘機堂書의 思想은 儒學의 基本的인 哲學이다. 여기서 天地人 三才思想과 人本主義, 民本主義 政治思想이 導出된다.

先生은 “대저 이른바 太極이라는 것은 斯道の 本體요 萬化의 領要이니 子思子의 所謂 天命之性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太極의 體를 가리켜 寂滅이라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고 道學에 있어서 “대저 道라는 것은 다만 人事之理이다. 人事의 理를 떠나서 道를 求하면 空虛한데 빠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吾儒의 實學이 아니라”고 한다. 아래로 人事를 배우는 것이 곧 위로 天理에 達하는 것이다. 下學人事하여 上達天理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先生은 戒愼恐懼하는 心性의 修養으로부터 父母 兄弟 夫婦等 人倫日用的 일과 齊家治國平天下하는 事業에 이르기까지 이런 具體的인 일을 通하여 이 理를 具現하는 이른바 道學의 實用性이 強調되고 있다.

「一綱十目疏」에서 “帝王의 爲治之道는 至簡하여 번거롭지 아니하고 지극히 쉬워서 어려운 것이 없으니 天下가 비록 크더라도 다스림은 마음에 있으니 至簡이 아닌가. 四海가 비록 멀지마는 다스림은 道에 있으니 지극히 쉬운 것이 아닌가” 하였다.

周易繫辭上傳第一章에 “乾以易知요 坤以簡能이니 易則易知요 簡則易從이요 易知則有親이요 易從則有功이요 有親則 可久이요 有功則可大요 可久則賢人之德이요 可大則賢人之業이니 易簡而天下之理이 得矣니 天下之理이 得而成位乎其中矣니라”하고 있다.

그런데 爲治之要是 一綱十目이 있다.

綱은 體이니 政治의 根本이 나오고 目は 用이니 政治의 法을 말한다. 綱은 君主의 心術인데 君主의 마음이 바르면 萬事가 다스려진다. 君主의 心術을 바로 잡는데는 반드시 學問을 通하여 얻게 된다. 先儒는 말하기를 學問만이 이 마음을 기를수 있고 敬만이 이 마음을 存心할 수 있고 君子를 親近히 하는 것만이 이 마음을 維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學問만이 마음을 기를수 있다 하였는데 어떤 性格의 學問인가는 本論에서 考察하였다. 十目도 心術의 緒餘이며 爲治의 切務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¹⁴²⁾

「一綱十目疏」는 先生이 49歲되는 中宗 34年 己亥(1539) 應旨上疏하였다.

그 內容은 一綱十目으로 되어있다.

一綱은 君主의 心術이며, 十目の 其一은 嚴家政, 其二是 養國本, 其三是 正朝廷, 其四是 愼用舍, 其五是 順天道, 其六是 正人心, 其七은 廣言路, 其八은 戒侈欲, 其九는 修軍政, 其十은 審幾微이다.

「弘文館上疏」는 先生이 51歲되는 中宗 36年(1541) 弘文館副提學이 除授되었다. 여기서 上疏하여 聖學本末과 時政得失을 極陳하였다.

十事 곧 一綱九目으로 되어있다. 一綱이란 中和를 이루는 것이고 九目の 其一은 宮禁

142) 李載浩教授는 “先生의 哲學이 우리나라 儒學史에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先生의 經世思想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한 實情”이라고 한다(晦齋全書解題). 李佑成教授의 “李晦齋先生의 歷史的 位置와 그 經世思想”의 目次는 다음과 같다. 一. 十六世紀 前半期의 社會狀況과 士林派, 二. 士林派哲學의 定立, 三. 士林派로써의 政治的 立場과 時局論, Ⅰ. 民衆에 관한 新認識, Ⅱ. 君主論과 人事行政論, Ⅲ. 國防論, Ⅳ. 맺음말.

不可不嚴也，紀綱不可不正也，人材不可不辨也，祭祀不可不謹也，民隱不可不恤也，教化不可不明也，刑獄不可不愼也，奢侈不可不禁也，諛諂不可不納也이다.

進修八規는 先生이 60歲되는 明宗 5年 庚戌(1550年) 江界謫所에서 完成한 것인데 易 乾卦九三爻의 “進德修業”의 뜻을 取하고 여기 敷衍하여 八規를 지었다.

先生은 “이를 깊이 玩味하고 힘써 行하던 帝王의 存心出治의 要와 繼天立極의 道가 갖추어 있다”고 하고 있다. 其一은 明道理, 其二是 立大本, 其三是 體天德, 其四是 法往聖, 其五是 廣聰明, 其六是 施仁政, 其七은 曰 順人心, 其八은 致中和, 其九는 養國本이다. 先生은 위 八規는 모두 聖經賢傳의 本旨에 根本하였음으로 進德修業하는 要領이 아닌것은 없다고 하였다.

先生은 이르기를 “지금 學校의 政策은 人倫에 根本하지 않고, 勸勵하는 方法이 다만 記誦詞章의 末節에만 있으니 記誦詞章은 비록 폐지할 수는 없지만 化民成俗의 근본은 실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先生의 政治思想은 下學而 上達하는 先生의 根本思想에서 미루어 안 수 있다.

또한, 先生의 哲學思想에 있어서 그 特徵의 하나가 道學의 實學性 乃至 實用性의 強調라고 할 수 있거니와 政治思想에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易 乾卦九三爻의 文言은 다음과 같다. 九三曰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는 何謂也오, 子ㅣ曰 君子ㅣ進德修業하나니 忠信이 所以進德也ㅣ오. 修辭立其誠이 所以居業也ㅣ라 知至至之라 可與幾也ㅣ며 知終終之라 可與存義也ㅣ니 是故로 居上位而不驕하며 在下位而不憂하나니 故로 乾乾하여 因其時而惕하던 雖危나 无咎矣라.